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우수사례집

[지자체·센터]



지자체 우수설치·운영



- 1. 서울특별시 중구
다함께돌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구의 오만가지 노력 08
- 2. 경기도 화성시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2
- 3. 충청북도 제천시
'함께 하는 통합돌봄의 시작'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와 함께 18
- 4. 경상남도 거제시
비용은 줄이고, 돌봄은 촘촘히,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8
-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공협력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공, "모다들엉 7치 키우게 마썸" 36

센 터 우수운영



- 1.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온마을과 더불어 da(다함께) dol(돌봄) 하다!!! 44
- 2. 경기도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백송한신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행복 놀이터 54
- 3.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다함께돌봄센터
우리는 행복백신 접종완료! 58
- 4. 경기도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신길가치키움터)
「온 마을이 같이, 가치 있게 키우는」 안산시 신길가치키움터 62
- 5. 경기도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역써밋플레이스)
나,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해요 70



- 1. 경상남도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미래산업의 주역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80
- 2. 서울특별시 광진구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카오스의 우주 탐험가 86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4호점 흥은2동우리동네키움센터
GO! GO! GO! 안심하GO! 마을과 함께 하GO! 매일 가GO!
싶은 흥은2동우리동네키움센터 94
- 4. 부산광역시 북구다함께돌봄센터(울리아이꿈자람터)
모두가 함께하는 울리아이꿈자람터 고품격 UCC스타 108
- 5. 인천광역시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돌봄센터-지역사회 공동체-지자체, '우리 다함께 돌봄' 118
-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마루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나오니까 좋다] - 산마루캠핑장 124
- 7. 충청남도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센터
코로나 블루 NoNo~~함께 해서 더 즐거워요^^ 130
- 8. 서울특별시 중랑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놀이의 주인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 142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미래의 주인공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152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자연아 놀자! [생태활동] 166
-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백제가 살아있다(PBL) 172
- 4. 경상남도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진해 우아한클럽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놀이 클럽, 진해 우아한 클럽에서는요~^^* 184
- 5. 경기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슬기로운 돌봄생활 192
- 6.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돌봄터
아동이 즐거운,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이 함께하는 영귀미돌봄터 204
- 7.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담다함께돌봄센터 210
-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완전 안심! 행복 만평! 218



지자체

우수설치·운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서울특별시 중구
다함께돌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구의 오만가지 노력
2. 경기도 화성시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 충청북도 제천시
'함께 하는 통합돌봄의 시작'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와 함께
4. 경상남도 거제시
비용은 줄이고, 돌봄은 촘촘히,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공협력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공, "모다들영 7치 키우게 마쌌"

지자체 | 우수설치·운영

다함께돌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구의 오만가지 노력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가 다함께돌봄사업에 2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

서울시 중구는 2019년 11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신당센터)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동화센터)까지 총 248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7개의 센터를 직영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서울시 중구 국공립 전체 초등학생 수 3,368명(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수 1,684명) 중 공적 돌봄 수혜학생은 1,126명으로 공적 돌봄율 3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목표(2022년 공적돌봄율 30% 달성)보다 높은 수치로 중구가 다함께돌봄사업에 2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입니다.

※공적 돌봄 학생 수(1,126명)
: 다함께돌봄센터 248명, 학교 돌봄교실 675명, 지역아동센터 123명, 방과후 아카데미 80명



구 직영으로 전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010백만원의 예산을 인건비(210백만원)와 운영비(800백만원)로 추가 지원

중구는 품격 높은 돌봄 서비스와 우수한 프로그램, 영양만점 급·간식을 초등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 직영으로 전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010백만원의 예산을 인건비(210백만원)와 운영비(800백만원)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당 돌봄교사 2명 배치와 대체인력풀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일자리를 연계·지원하여 하교도우미를 배치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원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의 취지에 맞춰 우수한 프로그램과 친환경 급·간식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등 돌봄사업에 중점을 두고 중구는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풀 모집 공고문

급·간식 사진

프로그램 활동 사진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협조를 받아 현수막, 포스터를 수시 부착

다함께돌봄센터를 홍보하고 이용아동을 모집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협조를 받아 현수막, 포스터를 수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21년 연초 현원 59명이었던 중구4호점(약수센터)은 현재 72명(정원8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 개소한 중구7호점(동화센터)은 개소 전부터 중구광장, 돌봄카페, 중구SNS 및 학교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정원(20명) 100% 모집 완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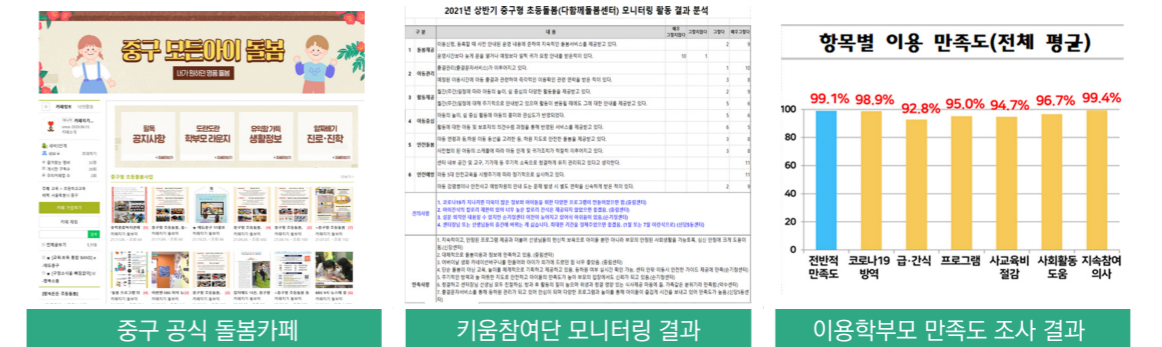
2020년 10월, 중구 공식 돌봄카페를 개설하고 운영

더불어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2020년 10월, 중구 공식 돌봄카페(<https://cafe.naver.com/jungguchildcare>)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며 현재 604명의 학부모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센터 시설사진, 급-간식 사진, 프로그램 활동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며 학부모님과 돌봄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홍보하고 학부모 생생 후기를 듣고자 돌봄센터 이용후기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30명의 학부모님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센터별로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키움참여단(총 13명)은 연 2회(상/하반기) 돌봄시설 부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후기 및 의견을 돌봄카페에 공유하며 센터별 학부모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개소한 중구7호점(동화센터)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중구7호점 이용 학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키움참여단(2명)의 모니터링 활동비를 긴급하게 구예산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21년 6월 운영 중인 센터에 한해 시 보조금 지원됨

연 2회 진행하는 전체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와 키움참여단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에는 돌봄센터 이용 학부모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중구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시행 하겠습니다.



중구 공식 돌봄카페 | 키움참여단 모니터링 결과 | 이용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왜 이리 일찍 왔니?〉

-서울중구직영초돌봄시설: 키움 1호 신당센터 자랑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일을 하면서 쌓인 피로도 잊을 만큼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곤 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점점 늘어만 갔다. 퇴근 때까지 우리 아이를 누가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학교 내 돌봄 교실이나 학원 등을 활용해 보라는 선배 학부모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퇴근 시간과 맞추기 힘들거나 못미더운 구성원이 보이는 등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 하였다. 여기저기 알아보면 중·유연히 접하게 된 것이 중구형에서 지원하는 초돌봄센터이다.

퇴근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넉넉한 운영 시간에, 게다가 영양을 고려한 식사까지 제공하니, 그것도 무료~대박!! 꼭 되게 해달라는 마음 속 기도를 하며 신청했는데, 다행히 선정되어 무척이나 기뻐했다. 다른 동네 사는 학부모 친구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며 구정 지원 돌봄센터에 신청해 보라 권유도 하곤 했다. 그런데, 중구와 다른 구에는 구정에서 지원하는 돌봄센터가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그 때야말로 정말 중구 주민임을 정말 자랑스러웠다. ^^

(중구1호점) 이용학부모 후기

중구 모든아이 돌봄 센터를 만나 아이도 저도 안심하고 직장맘하고 있어요. 큰 아이를 처음으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울로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댁부모님은 귀농하시고 친정은 경기도지역으로 멀리도 하지만 전정 염마도 일을 하시는 상황에 선택지가 없는 육아는 제게 전업맘이자 경단나라는 길로 접어들게 하였습니.

사실 부모님의 손을 빌어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다지 마음 편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해도 아마 고민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3년이 흘러 둘째도 낳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하게 될 중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난관에 놓였습니다. 전업 주부이면 둘째라고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현실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권유를 듣고 경단내 8년 만에 다시금 재택근무라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육아를 위해 전업맘을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다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웠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기회가 아니었다 싶기도 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 상황 또한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구2호점) 이용학부모 후기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화성시

I. 추진배경

-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개별 가정 내 양육 어려움
- 초등돌봄지원 부족으로 인한 방과후 및 방학중 초등돌봄 사각지대 발생

II. 추진방향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III. 추진내용

◎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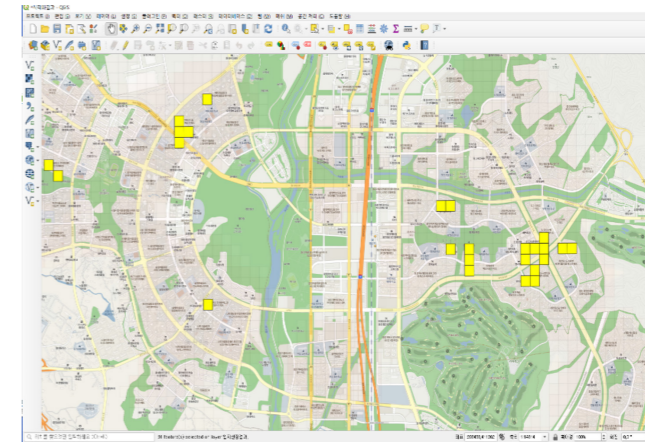
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및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 협의체 위원의 온종일 돌봄 협력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함께돌봄 추진계획에 반영

2. 빅데이터를 통한 입지선정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노력

○ 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공모 선정

- 빅데이터 분석모델 중 활용도 및 파급 효과가 높은 돌봄 센터 입지 분석을 통해 실 수요자 관점의 돌봄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센터 입지선정에 활용하였습니다.
- 수요예측기반 돌봄센터 입지분석을 통한 돌봄설치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동탄4동에 2021년 4월, 다함께돌봄 청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돌봄센터를 설치한 결과 현재 4개소 설치·운영 중이며 정원 154명에 149명의 아동이 등록하여 이용률 96.7%를 달성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화성시 전역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다함께돌봄사업을 홍보하고 화성시 SNS에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모집을 홍보하여 무상임차로 유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지역돌봄협의체 회의자료

개별변화
행복화성

확정세
아동보육과



화성시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 화성시 내에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중 봉담센터, 청계센터, 장지센터는 공동 주택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다함께돌봄센터로 현재 운영중입니다.

3. 학교와 연결된 이음터 내 공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복합화 사업인 이음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복합화 건물안에 위치한 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림이음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함께돌봄 송림이음터센터는 센터 내에서 활동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1층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센터 내에 배란다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사방치기, 줄넘기, 물놀이, 아나바다 운동 등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음터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화성시는 2022년 2개의 신설하는 초등학교 이음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림이음터 내 어린이도서관



송림이음터 내 커뮤니티 계단



아나바다 운동 체험

4.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돌봄교사 추가배치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 연계로 경력자 배치

다함께돌봄 송림이음터센터와 장지센터는 지역특성상 신도시에 위치하여 초등돌봄 수요가 많으며, 센터 공간이 넓어 이를 활용하여 정원 49인 시설로 등록을 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센터장1인, 전일제돌봄교사1인으로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시간제 돌봄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하고,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보육교사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전일제 돌봄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5.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지센터는 동탄2롯데캐슬 임대위와 함께 하는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통해 등굣길에 센터 이용 아동들이 응원의 글을 적어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참여하였습니다.



- 장지센터는 매일 책 한권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독서 통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책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봉담센터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색다른 악기를 접해보고 함께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전통악기 칼림바 수업을 통해 낯선 아프리카 문화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주곡을 완곡하는 데에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로봇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요리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 발달을 도모하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센터에서 만든 요리를 시식해 보지는 못했지만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아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작은 추억의 상자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심성강화 프로그램(칼림바)



요리 프로그램



6.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 2022년부터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IV. 추진경과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추진경과	
화성시 온종일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2018.10.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전 돌봄수요조사 협조 요청	2019.1.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19.1.
다함께돌봄 봉담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	2019.2.
다함께돌봄 봉담센터 개소	2019.4.
화성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9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19.10.
다함께돌봄 송림이음터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	2019.11.
다함께돌봄 송림이음터센터 개소	2019.12.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대상지 신청 공고	2020.5.
화성시 다함께돌봄 장지센터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	2020.6.
다함께돌봄 장지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20.8.
다함께돌봄 장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	2020.9.
화성시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개최	2020.10.
다함께돌봄 장지센터 개소	2020.11.
다함께돌봄 청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21.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모집 공고	2021.2.
다함께돌봄 청계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	2021.3.
다함께돌봄 청계센터 개소	2021.4.
화성시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개최	2021.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모집 공고	2021.8.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21.11.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21.11.

지자체 | 우수설치 · 운영

'함께 하는 통합돌봄의 시작'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와 함께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의 출발

제천시의 8개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놀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놀이터'는 아동권리 현장에서 명시하는 '아동들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제천시는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 기본 조성 방향

- 제천시가 주축이 되어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대한 돌봄 공백을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아동돌봄 모델로서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
- 다양한 지역자원 연대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 구현
- 아동의 안전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육성 등 사회적 지원 시스템 마련

적극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노력

- 다함께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19 ~ '22 단계적 확대) (2018. 08.)
- 2019년 다함께돌봄사업 수요조사 실시 (2018. 08.)
-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 운영 (2019. 02.)
-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1호~4호센터) 4개소 위탁협약 및 설치 (2019. 04. ~ 2019. 11.)
- 2020년 다함께돌봄센터(5호~7호센터) 3개소 설치 (2020. 09. ~ 2020. 10.)
-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8호센터) 1개소 설치 (2021. 03.)
-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9호센터) 1개소 설치 예정 (2022년 상반기)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 현황

제천시의 다함께돌봄놀이터는 2019년 10월 강제동의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에 1호 다함께돌봄놀이터 '희망돌봄놀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현재 화산동에 장애아동이 이용가능한 통합돌봄센터로서 8호 다함께돌봄놀이터 '엄마품돌봄놀이터'까지 총 8개소를 운영중이며 2022년 상반기 9호 다함께돌봄놀이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번	센터명	위치	면적	정원	개소일
1	희망 돌봄놀이터	청풍호로10길31, 106동 도서관호 (강제동, 강저코아루파크)	131.95㎡	20	2019.10.14.
2	우리 돌봄놀이터	용두대로15길 47, 부속1동 관리사무실건물 지하1층(하소동,청구아파트)	192.86㎡	20	2019.10.28.
3	한울타리 돌봄놀이터	관전로2길6 (신백동,신백아동복지관)	112.75㎡	20	2019.10.29.
4	온도 돌봄놀이터	내토로59길 31, 커뮤니티센터동 (장락동,신안실크밸리)	112.19㎡	20	2019.11.28.
5	아이편한 돌봄놀이터	장락로62, 102동 103호 (장락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19.57㎡	20	2020.09.24.
6	푸른꿈자람 돌봄놀이터	신죽하로83-20 (고암동, 고암오네뜨아파트 경로당)	135.57㎡	20	2020.10.12.
7	다음세대 돌봄놀이터	명륜로24길 34, 2층 (교동, 제천동부교회)	67.26㎡	20	2020.10.15.
8	엄마품 돌봄놀이터	의병대로18나길12-7(화산동)	66.29㎡	20	2021.03.29.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는 비영리법인(4개소)과 비영리민간단체(4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센터는 총 5개 센터로 생활지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아파트 경로당 1개소, 커뮤니티센터 1개소, 도서관 1개소, 교회시설 내 1개소, 아동복지관 내 1개소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편리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 운영비 추가 지원
다함께돌봄놀이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제천시 자체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센터당 연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있으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여 대체인력파견 지원 등 다함께돌봄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인력 지원

제천시는 매년 2회씩 동계·하계 대학생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 지원 및 학생근로활동으로 다함께돌봄놀이터 돌봄업무 보조인력으로 지원하여 지역내 학생들의 사회체험 및 일자리 기회 제공과 더불어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마련

제천시는 2021년 7월부터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돌봄놀이터 출석, 귀가 관리 알림기능을 통해 등하원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통학 과정 중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역할을 하며, 돌봄놀이터 운영일정 및 공지사항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공유하여 수시로 확인 가능하여 돌봄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노력

연번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명	센터명
1	체육활동	뉴스포츠, 실내체육, 요가교실	희망, 우리, 한울타리, 온도, 다음세대, 엄마품
2	교육활동	노인학대예방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위생교육	희망, 우리, 한울타리, 온도, 아이편한, 푸른꿈자람, 다음세대, 엄마품
3	문화예술활동	창의미술, 원화랑놀이, 아이클레이 창의놀이, 가야금, 컬러글씨 팝아트, 시낭송과 스피치, 창의공예, 북아트	우리, 한울타리, 온도, 아이편한, 푸른꿈자람, 다음세대, 엄마품
4	놀이활동	보드게임, 민화놀이, 종이나라, 전통(전래)놀이, 레고만들기	희망, 우리, 한울타리, 온도, 아이편한, 푸른꿈자람, 다음세대, 엄마품
5	학습활동	코딩, 생활과학교실, 수학기초, 독서교실, 역사이야기, 동화	희망, 우리, 한울타리, 온도, 아이편한, 푸른꿈자람, 다음세대, 엄마품
6	여가활동	찾아가는 나눔의 숲 캠프, 열두달 식물, 아동요리, 방송댄스, 음악교실, 어린이정원사, 영화가좋다	한울타리, 아이편한 다음세대, 엄마품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연번	연계기관	협력내용	협력기간
1	제천시체육회	실내체육(뉴스포츠) 활동프로그램 지원	'20.01. ~ '21.12.
2	신백아동복지관	책임어주기 프로그램 지원	'20.08. ~ '21.12.
3	제천시노인복지관	보육교사도우미 청소, 돌봄서비스 지원	'19.11. ~ '21.12.
4	제천시자원봉사센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노래, 글쓰기, 난타 교실 등)	'21.03. ~ '21.12.
5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제천문집이 간다!! 보드게임	'21.08. ~ '21.11.
6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봉사동아리	보건안전교육	'21.04. ~ '21.11.

다함께돌봄놀이터 설치 및 이용 확대 홍보를 위한 노력

- 공공시설 및 초등학교 연계 다함께돌봄놀이터 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다함께돌봄놀이터 센터별 이용아동 모집 현수막 게시(연중)
- 홍보리플렛 제작 비치 및 외부 행사 홍보물 배부(2,000매)

홍보 현수막 게시

다함께돌봄놀이터 홍보 리플렛

제천시 홈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소개

지역방송국(CCS충북방송) 홍보

장애아동 통합돌봄 실시를 통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 제천시 다함께돌봄놀이터는 장애아동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동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특히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제천시 지역 내 중증장애아동이 나 발달장애아동 가정의 돌봄부담과 돌봄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제천시 제8호 다함께돌봄센터인 '엄마품돌봄놀이터'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돌봄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으로 심리상담발달센터의 언어치료 프로그램, 식생활교육 제천네트워크의 식생활교육, 장애인부모회제천시지부의 미술 치료지원 등 지역내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을 운영하는 '엄마품돌봄놀이터'는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돌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번	센터명	다문화가정 이용아동 수	장애아동 수	취약계층 아동 수 (한부모/조손/기초생활대상 등)
1	희망돌봄놀이터	0	0	1
2	우리돌봄놀이터	1	0	2
3	한울타리돌봄놀이터	0	0	0
4	온도돌봄놀이터	1	0	0
5	아이편한돌봄놀이터	0	0	0
6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1	0	4
7	다음세대돌봄놀이터	1	0	0
8	엄마품돌봄놀이터	1	장애아동 8 특수아동4	한부모 9 / 조손 1



엄마품돌봄놀이터 장애/일반아동 통합 프로그램 활동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난타/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식생활교육)



요가교실 프로그램



코딩교실 프로그램



제천시체육회 뉴스포츠 프로그램



보드게임 프로그램



신중년 프로그램 '동아책아,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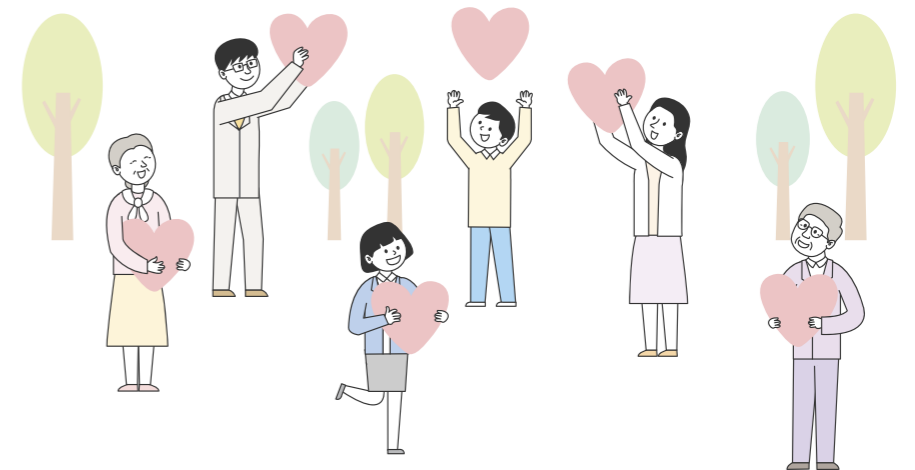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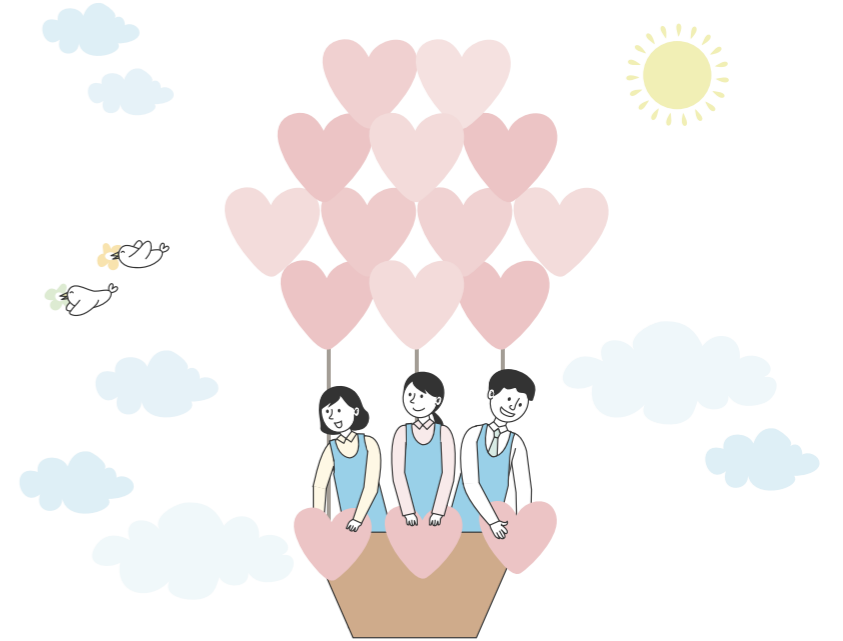
창의공예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백년아이'



보건교육 프로그램 (세명대 간호학과 건강알리미)



지자체 | 우수설치·운영

비용은 줄이고, 돌봄은 촘촘히,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는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유출 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4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분야에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확대 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도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제1호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1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 3호점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준공예정인 가정행복지원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거제시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비율은 전체 인구의 9.0%로 전국평균 6.3%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히 18개 면·동 중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 거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5개 동에 전체 아동인구의 7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장소 선정 시 돌봄 수요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시 했기에 거제시에서는 센터 설치 장소로 가장 적합한 위치를 공동주택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 5개 지역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돌봄센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과 타부서(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기반 돌봄센터 입지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1



주민설명회2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장소

빅데이터(공통기반 플랫폼(예산)를 활용한 수요예측 기반 돌봄센터 입지 분석 결과

1. 추진배경
- 통계, 주택, 기반 수요예측 및 거주 특성을 고려한 돌봄센터 최적 입지 선정

2. 분석 개요
- 분석기간: 2021. 10. 1. ~ 2021. 10. 31.
- 분석지역: 행정안전부 제1분지역(거제시)
- 분석대상: 아파트

3.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 시정형 분석 및 기초형 분석 결과 상동동, 아문동, 수암동 지역이 돌봄 수요가 높음
- 입지분석 결과 입구가 쉽고 넓은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단지 입지를 우선으로 선정
- 주요 세입자를 통한 돌봄센터 입지도, 위치, 이용시간, 입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

행 정 국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활용

그래서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는 모두 집이나 학교에서 10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 관리동이나 복리동의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게 되었고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호점부터 3호점까지 개소 후 대기자가 상시 10명 이상 넘을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의 유휴공간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전	설치후	
		동적공간	정적공간
1호점			
2호점			
3호점			

공동주택 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안정성과 접근성 외에도 단지 내 활용가능한 시설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 외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리동 2층에 위치한 1호점의 경우 3층 옥상에서 체육수업과 놀이활동을, 단지 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야외 명상, 요가수업을 진행합니다. 3호점은 내부 전용면적이 72.9㎡로 아이들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기에 다소 협소한 편이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탁구장을 특정시간동안 센터에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탁구도 치고 체육수업과 악기수업 등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마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간 공유

아이들을 키우는 거제, 거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가정 등 일반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공동모금회 등 각종 재단이나 기업의 공모사업 대상에 제외되거나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이나 자원봉사자 연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기존 센터 인력과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인력 배치

거제시에서는 긴급일자리, 희망근로,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돌봄보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아동들의 발열체크 및 방역활동, 아동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센터 환경정화를 담당 할 어르신들을 지원받았습니다.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내의 단기사업이라 안정적인 인력지원에 한계가 있어 2022년부터는 센터마다 아동복지교사 1명씩을 상시로 배치 할 예정입니다.

◎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거제시에서는 효율적인 출결관리 및 아동의 센터 이용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의 등·하원 확인 메시지를 부모님들께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이 시스템은 센터 인근 초등학교와 동일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부모님들이 관련 앱(app)이나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등·하원 안심알리미 시스템

1호점

2호점

3호점

◎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거제시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비(월100만원)와 공공요금(월20만원) 등 추가운영비 예산을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아동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계획 시 이용아동과 학부모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월 1회 실시하

는 이벤트데이는 아동자치회를 통해 프로그램 주제와 콘텐츠를 아동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의 두 번째 특징은 인성과 감성과 지성이 어우러지는 인감지(人感知) 향상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인성과 감성, 지성이 조화로운 거제아이를 길러 내겠다는 동일한 목표 아래 센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자원 연계 및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거제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재능기부를 통한 매듭공예와 종이접기, 거제시 체육회 체육수업,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법인의 다른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젝트-가족사진 촬영프로그램- 진행시 수탁법인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의 셀프사진관을 활용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3호점은 수탁법인인 (사)블루시티관현악단에서 센터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악기지원과 전문강사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체육회 체육수업

한국장학재단 대학생멘토링

(사)블루시티 관현악단 악기지원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 및 자원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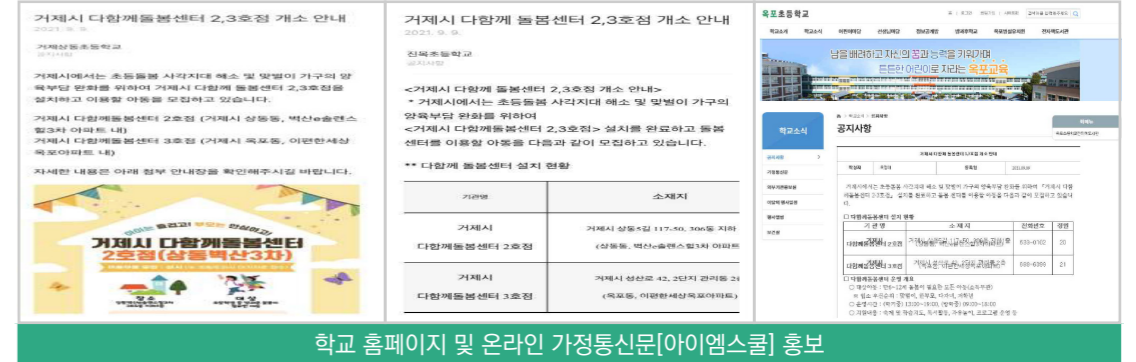
- (온라인) 거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부
- (오프라인) 거제소식지, 공공 게시대 및 공동주택 내 현수막·배너 게시
- (기관연계) 센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보도자료



홍보 현수막 게시



학교 홈페이지 및 온라인 가정통신문[아이엠스쿨] 홍보



지자체 | 우수설치·운영

공공협력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공, “모다들엉 7치 키우게 마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사회 공공협력 모델”

제1호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1년 6월 “지역사회 공공협력 모델”제1호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간 연계·활용한 긍정적인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10개기관 지역사회 공공협력 모델 후보지 21개 공간 중 유일하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성공, 공공기관 협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의 선발 주자로 롤모델이 되어 전국 지자체 문의 쇄도)

서귀포시 초등학생수는 11,088명으로 다양한 돌봄시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75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2,219명이며 돌봄이용율 20%로 돌봄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에서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에 돌봄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파악한 결과, 전국 10개 기관 21개의 공간이 추천되었고,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서호동)내 공무원연금공단 1개소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위치한 혁신도시는 2007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후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아동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초등돌봄 인프라는 전무한 지역이었기에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지역상생의 구체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 중이었기에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아래 순조로운 협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로 10년 간의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내 아동복지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3개 기관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동 친화적인 시설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드디어 21년 6월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현재 정기돌봄 이용자 평균 15명,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응급돌봄, 긴급돌봄, 일시돌봄 등 다양한 돌봄 기능을 겸비, 유연한 돌봄시설로 운영중입니다.

“지역사회 공공협력 모델”로 탄생한 서귀포시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공기관간 상호협력노력이 적용된 특화된 장점

“지역사회 공공협력 모델”로 탄생한 서귀포시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공기관간 상호협력노력이 적용된 특화된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선, 돌봄시간을 20시까지(학기중 10시~20시, 방학중 9시~20시)로 연장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1층에 위치한 센터인 만큼 해당 기관 자녀도 이용하고 있어 야근이 잦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하고 아이들은 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아동들은 공단의 직원 식당에서 단 1,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저녁식사를 먹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상임대공간은 70.85㎡로 다소 좁은 편이지만 동일 건물내 식당, 홍보상영관, 도서관, 세미나실 등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 협약으로 10년 동안 건물 임대료(월500만원) 및 관리비(월100만원) 6억을 무상지원 받는 셈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당시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지원 이외에 별도 도비를 편성하여 비상구 설치, 센터 이용아동 출결시스템 구비, 각종 사무용품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돌봄인력 1명, 노인일자리 1명, 공공근로 돌봄교사 1명, 아동복지교사 3명(영어, 미술, 체육) 총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우선 입소대상으로 이용료를 1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하루 급식비 1천원, 간식비 2천원 이외의 비용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돌봄교사와 아동복지교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별도의 잡비 부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센터 주위에 바람모루 공원이 위치해 있어 바깥놀이를 할 수 있고 넉넉한 실외 공간과 운동시설,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 산책로까지 아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진정 놀고 먹고 쉬이 가능한 돌봄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의 설계하에 흠어진 여러 자원을 구슬처럼 모아 돌봄안전망의 보배로운 인프라로 엮어낸 열매가 서귀포시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의 노력이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 공백 해소라는 공익에 접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회적 가치의 꽃을 피워 지역주민과 함께 값진 열매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끝에서 피어나는 다함께돌봄.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나홀로 아동이 없는 마을, 또래와의 교류 속에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일과 가정이 건강하게 양립할 수 있는 서귀포 온 마을이 모다들영 7치(제주어:모두 모여 같이) 키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다양한 돌봄욕구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전경(다들은 1층에 위치)



다돌설치 관련 협의



설치공간 (70.85㎡)



개소식



실내활동



식사시간



바깥놀이



산책시간



실내 체육시간



실외 운동



프로그램(종이접기)



프로그램(영화감상)

센터 우수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상

1.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온마을과 더불어 da(다함께) dol(돌봄) 하다!!!
2. 경기도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백송한신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행복 놀이터
3.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다함께돌봄센터
우리는 행복백신 접종완료!
4. 경기도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신길가치키움터)
「온 마을이 같이, 가치 있게 키우는」 안산시 신길가치키움터
5. 경기도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역써밋플레이스)
나,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상

1. 경상남도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미래산업의 주역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카오스의 우주 탐험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4호점 흥은2동우리동네키움센터
GO! GO! GO! 안심하GO! 마을과 함께 하GO! 매일 가GO!
싶은 흥은2동우리동네키움센터
4. 부산광역시 북구다함께돌봄센터(울리아이꿈자람터)
모두가 함께하는 울리아이꿈자람터 고품격 UCC스타
5. 인천광역시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돌봄센터-지역사회 공동체-지자체, '우리 다함께 돌봄'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마루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나오니까 좋다] - 산마루캠핑장
7. 충청남도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센터
코로나 블루 NoNo~~함께 해서 더 즐거워요^^
8. 서울특별시 중랑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놀이의 주인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미래의 주인공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자연아 놀자! [생태활동]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백제가 살아있다(PBL)
4. 경상남도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진해 우아한클럽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놀이 클럽, 진해 우아한 클럽에서는요~^^*
5. 경기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슬기로운 돌봄생활
6.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돌봄터
아동이 즐거운,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이 함께하는 영귀미돌봄터
7.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담다함께돌봄센터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완전 안심! 행복 만땅!

센터 | 우수운영

온마을과 더불어 da(다함께) dol(돌봄) 하다!!!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래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체험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애쓰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남구다함께돌봄센터가 되기 위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생활 돌봄, 공모사업을 통한 업그레이드 돌봄,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돌봄, 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적 돌봄, 대학과 연계 협력을 통한 윈-윈 돌봄, 지자체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는 명품 돌봄, 종사자와 함께하는 휴(休) 돌봄,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함께하는 모두 돌봄’ 등 온마을(모두)의 힘을 모아 ‘da(다함께) dol(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생활 돌봄

◎ 등하원 차량 운행

남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021년 1월 아동 통학차량 기준에 맞는 설비를 모두 갖춘 전문 통학차량을 지원 받아 안전성과 쾌적함을 더한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학기중’에는 학교앞 → 센터 → 집 코스로 ‘방학중’에는 집 → 센터 → 집 코스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가장 안전한 코스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여 센터 이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는 차량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센터 이용에 대한 안락함과 만족도 향상



◎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 차등제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감 감소

이용료를 정액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시간에 따라 정산해서 후불제로 이용하도록 하여 원시간에 따른 이용시간 조정 등의 고민 없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센터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이용료 차등제 실시

정기돌봄	50,000원/월
(월80시간이상-160시간이하 이용)	
3시간 정기돌봄	40,000원/월
(월60시간이하 이용)	
2시간 정기돌봄	30,000원/월
(월40시간이하 이용)	
일시·긴급돌봄	5,000원/일
(차량운행 불가)	
간식비(별도)	30,000원/월

차량운행
▶ 방학 운영은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남구다함께돌봄센터
Tel. 053) 217-7701 · Fax. 053) 217-7702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8길 13-2(다함께) 108호
홈페이지: www.ngwc108.com 접속 후 문의

I 공모사업을 통한 업그레이드 돌봄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센터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전문적 프로그램 부재의 한계성을 해소하고, 더 즐거운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모금회 ‘2021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으로서 프로그램 사업비 2,325,000원을 지원받아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 표현하기 및 성취감 향상, 요리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식재료를 활용하여 신체의 오감 자극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방학중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의 돌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센터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향상, 학부모님들에게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리는 데에 기여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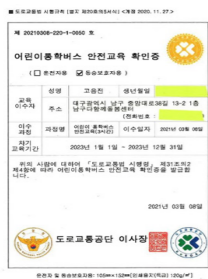
◎ 지역주민을 위한 ‘탑동네 온마을 한마당’ 행사 참여를 통한 교류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탑동네 온마을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체험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내에 돌봄센터를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센터 이용 아동들도 다양하게 마련된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고 화합하는 경험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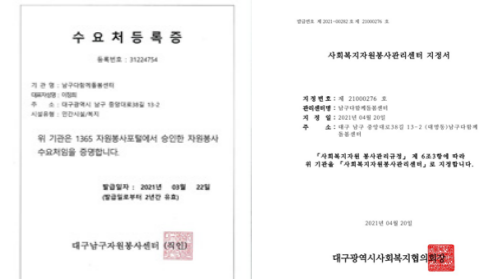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연계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손이 부족한 남구다함께돌봄센터는 어르신들의 손길로 정기적인 소독 및 청소를 통한 청결유지 및 감염 예방, 간식제공 지원, 통학차량 관련법의 강화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동승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 필수’ 문제를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교육 수료 후 함께 활동해주심으로서 아동 돌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지원인력으로 활동



◎ 1365, VMS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인 1365 자원봉사포털,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임을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손쉽게 봉사활동을 신청함과 더불어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봉사시간 인정 및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항상 선생님들의 관심을 바라는 아이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학습지도, 다양한 놀이활동, 게임을 통해 관심과 인정욕구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적 돌봄

◎ 경일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코로나 시대에 당면하여 대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중인 학생 11명과 함께 비대면 프로그램인 ‘초등학생들의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 업사이클링 예술·감각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온라인(Zoom)을 통한 프로그램을 총 8회기 진행, 화면을 통해 인형극으로 구성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배우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업사이클링 만들기도 진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소근육 자극 활동을 통해 신체 및 감각 표현활동을 도와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지원



◎ 대구인성센터 연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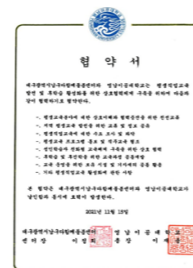
- 대구인성센터와 연계하여 위스타트 행복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인성함양 및 정서적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개발프로그램 실시
- 남구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요리, 매거진, 사진, 가면' 네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총 12회기를 통해 'Being : 존재감 및 자존감 향상', 'Becoming : 자기관리 및 유능성 향상', 'Belonging : 소속감과 협력, 사회적 규칙 함양', 'Blending : 시민성 형성 및 세계화를 위한 통합능력 향상' 네가지 핵심가치 향상을 위한 창의적 경험 제공



Ⅰ 대학과 연계 협력을 통한 윈-윈 돌봄

◎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센터가 위치한 지역내(남구 소재) 영남이공대학교와 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기관과의 지역연계를 활성화 하고, 아동들에게 언니,오빠,누나,형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까운 미래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제공 및 안정적인 정기적인 프로그램 진행



지자체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는 명품 돌봄

◎ 지자체(대구광역시 남구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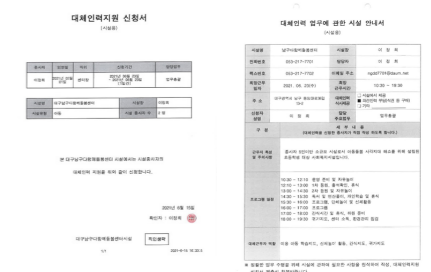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차량비, 수용비및수수료 등 운영비 예산 추가지원
- 남구청 직영 아동전문 스포츠 체험시설인 '온마을 아이맘센터'의 IT체험관, 스포츠 시설을 무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센터를 통해 취학동지서와 함께 센터 홍보지를 배부 및 비치하여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에게 선제적 선택 기회 제공
- 남구청 소식지 '남구사랑'에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Ⅰ 종사자와 함께하는 휴(休) 돌봄

◎ 돌봄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외부 지원시스템 활용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대체인력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봄 종사자의 휴가, 교육참여 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음으로서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을 덜어주어 적은 인력이 근무함으로서 더 크게 느껴지는 휴가, 교육 등 업무 공백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여 소진 예방에 기여



**서로서로 인지하면서
함께하는 모두 돌봄**

◎ **이용시간 연장운동을 통한 학부모님들의 돌봄고충 나누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 운영시 차량운행도 중지되어 등하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벌이 학부모님들이 출근 전에 아동을 센터에 맡기고 퇴근 후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 30분 ~ 19시 30분으로 이용시간을 연장운영 하여 학부모님들의 돌봄고충을 함께 해소

◎ **감염 예방 지침 준수를 통한 재난극복 노력**

- 매일 아동 하원 후 퇴근 전에 분무소독을 하고 출근 후 환기를 하며, 매일 오전과 오후 2회 책상 및 교구를 소독제로 닦고 청소를 통해 인체 유해성은 최소화 하고, 소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자체 소독 실시
- QR코드 확인을 통한 백신접종 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체온체크, 시니어클럽 공익활동 어르신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경로 사전 예방
-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어른들 모두 힘들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센터 내에 여분의 마스크를 비치하여 마스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며, 수시로 환기를 시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에 불평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음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차량운행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센터에 도착하고 출발할 때 문자로 알려주셔서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좋음. 집까지 데려다 주시니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함. (*혜 학부모)

긴급돌봄 시기와 방학중에는 이용시간을 늘려주시고, 약속시간보다 늦게 데리러 가도 웃으면서 맞아주시니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마땅히 없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좋았음. (*민 학부모)

오전이든 오후든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이용한 시간 만큼만 이용료를 계산하면 되니까 학원비 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음. (*이 학부모)

방학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음. 요리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고 하는 체험활동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했음. 집에서 해줄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함. (*은 학부모)

아이들 학교 숙제 중에 만들기 같은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부모가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센터에서 선생님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아이들을 도와 과제물을 함께 해결해주시니 너무 감사함. (*은 학부모)

아이가 ADHD가 있어 약을 복용중에 있으며, 평소에 거친 언어와 과장된 행동이 있는데 센터를 이용한 후 언어도 순화되었고, 과장된 동작이 줄어들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센터에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함. (*준 학부모)

아이가 센터에서 또래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들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으로 집에 와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기분이 좋고 센터를 다니면서 많이 자라고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이 듬. (*영 학부모)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이야기: 평범 생활(유아)에 관한, 사별한 거울돌봄이유자가
원하는 놀이 (오리놀)다.
 재미있었던: 담뽀에 친구들과 같이 게임이 거에 본다.
 아쉬움: 주안함은, 왜 속속이 재미없다.
원하는 놀이: 인형놀 추가 하면 좋겠다.
아쉬움: 안전벨트가 불편해서 앞으로 넘어가
 기 싫다. 안전벨트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원하는 놀이~~ **피클** 많이 하고 싶
 다. **다함께** 단돈 1천원 짜리만
 있으면 좋겠다. **원하는 놀이** 오뚜기
 치킨, **원하는 놀이** 일 단 짜 게임, **원하는 놀이**
 원하고 싶다
원하는 놀이 타고 다르면 걷거나 **원하는 놀이**
 뛰는 것이 좋아요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재미있었던: **원하는 놀이** 게임이 재미있었다.
 아쉬움: **원하는 놀이** 만화책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원하는 놀이 게임이 재미있었다.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돌봄센터에서 활동 계획을 많이 하면 좋겠다.
원하는 놀이 유치원전 말고
원하는 놀이 무취수준이면 좋겠다.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남구다함께돌봄센터에 하고싶은 이야기>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원하는 놀이**



센터 | 우수운영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행복 놀이터

경기도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백송한신

우리 센터는 저학년 아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를 마치고 센터를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방을 벗고 손을 씻고 노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놀이터”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놀이터도 못나가게 하는 바람에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놀지를 못하고 지내는 실정이었기에 더욱 그런 공간의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놀이터”였습니다. 기존 시중에 있는 것을 구매하여 설치할 수도 있었지만 아동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디자인을 설계하고 위치도 아이들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총 2층으로 구성을 하여 1층은 아동기 특징인 자기만의 공간 개념을 넣어서 만들었고 2층은 어릴 적 다락방 같은 이미지를 넣어서 나지막한 책꽂이를 비치하고 인형과 책들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상담을 올 때도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이내 놀이터로 뛰어가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등록을 하고 가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센터를 자랑할 때 “행복놀이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이 놀이터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자신있게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공간이 없어지는 이 때에 우리 센터의 행복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교육학적 특징을 갖추고 인성과 행복이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행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아이들이 하원을 할 때 선생님들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주먹인사로 나누고 헤어집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나고 묻곤 했지만 행복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지내다보니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것도 알게 되었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행복 놀이터는 아이들이 단순히 노는 공간이 아닌, 때로는 혼자 앉아서 자신과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도란도란 협동적 또래의 우정을 쌓아가는 꿈자람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행복 놀이터가 우리 센터에 있다고 자랑을 하며 행복하게 자라 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꿈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놀이터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꿈을 꾸고 자라서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딱딱한 학교와 학원과는 달리 행복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크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 부모님)

아이가 혼자여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 못했는데 행복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친구를 배려할 줄도 알고 즐겁게 자라서 고맙습니다. (변** 부모님)

위낙 성격이 활달해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행복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배려심도 길러지고 양보할 줄도 알아서 한층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유** 부모님)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면 그냥 좋다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 놀이터 저도 궁금합니다. (이** 부모님)

집에서 조카를 돌봐주다보니 늘 조용히 지내야해서 아이의 정서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였는데 센터를 다니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행복 놀이터가 너무 재미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 부모님)

남자 아이지만 세심하고 눈물도 많아서 늘 걱정이었는데 집에오면 콧노래를 부르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 놀이터가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하는 모습에 센터에 감사하고 부모님들께도 홍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황** 부모님)



센터 | 우수운영

우리는 행복백신 접종완료!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다함께돌봄센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돌봄교실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마주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멈추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고 특히나 친족이 돌봄을 도와줄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은 집안에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침범하는 중입니다. “이대로 바이러스에게 질 수 없지!” 한창 뛰어놀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키워가야 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철원군다함께돌봄센터 - 돌봄교실



철원군다함께돌봄센터 - 돌봄책방



마음의 소리함, 읽어주는 라디오

아이들에게 행복백신을! - 마음의 소리함

이곳 철원에는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마음의 편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비밀 편지를 통해 생활 중 고충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고 어려워 수 있으니 우리도 마음의 소리함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센터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를 지키며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

함'을 만들었습니다.

돌봄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하고 싶은 활동, 먹고 싶은 간식, 듣고 싶은 노래와 보고 싶은 영상,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 등 이야기들을 적어서 마음의 소리함에 넣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모아 우리는 월 1회 아동자치회의를 열었습니다.

I 아동자치회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민주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함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동 상호 간 공감대 형성으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I 들려주는 라디오

가정에서 핸드폰 외 각종 미디어로 시간을 보낼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에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사연으로 적고 '들려주는 라디오'에 넣으면 사연을 선정하여 공유하고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떼창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얘들아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듣고 부르니 행복하지 않니?' 어느새 아이들의 작문 능력도 향상되고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공감 능력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I 마음의 소리를 모아 만든 프로그램



아동자치회의



신문지게임



놀이체육

놀이체육, 보드게임, 전통놀이, 글라스데코, 디폼블럭, 줄넘기, 훌라후프, 피구, 보석십자수, 신문지게임, 몸으로 말해요 등 그 종류도 주제도 다양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야외 놀이터에서 놀고 난 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한다는 귀여운 규칙도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순간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입니다.

돌봄선생님과 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원예



공예



재난대피훈련

우리 센터 돌봄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지역 내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의 기초학습증진을 위해 학습을 놀이형태로 접목하여 재미있는 게임을 합니다.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하게 되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동시 따라 쓰기는 국어공부와 마음공부를 같이할 수 있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중국어, 원예, 미술, 요리, 장기, 바둑, 종이접기, 음악, 안전교육 등 끊임없이 배우고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함께했습니다. “우리 또 무엇을 배워볼까?”

I 만족도 (21년 상반기 조사결과 중)

- 아동용(25명)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돌봄교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7	6	1	0	0
2. 돌봄교실은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4	6	4	0	0
3. 친구에게 돌봄센터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12	7	5	0	0
4. 돌봄선생님은 친절하고 잘 도와준다.	16	7	1	0	0
5. 돌봄교실에서 제공받는 간식의 양과 종류는 적당하다.	12	6	1	0	0
6. 앞으로 계속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싶다.	16	6	2	0	0

- 학부모용(21명)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는 돌봄교실에 만족한다..	9	12	0	0	0
2. 돌봄교실 참여가 귀댁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6	8	3	3	0
3. 돌봄교실 참여가 귀댁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5	12	4	0	0
4. 돌봄교실 운영이 학부모님의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	15	6	0	0	0
5. 앞으로도 돌봄교실에 귀댁 자녀를 계속 참여시킬 의사가 있다.	13	9	0	0	0
6. 돌봄교실 운영 중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돌봄교실환경	프로그램운영	학생관리	간식서비스	비고
	7	13	7	15	0

우리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를 센터에 보내는 학부모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만족도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고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냐는 질문에 25명 중 17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7명 중 6명은 ‘그렇다’, 1명은 ‘보통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눠준 행복백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I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한 아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마음의 소리함에 꾸준히 마음을 적어 넣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하고 싶은 활동과 함께 먹고 싶은 간식을,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모든 것들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철원군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매일 다른 활동으로 방학기간동안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이*현 아동 보호자)
 “방학기간 동안 돌봄교실에 참여하여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이*서 아동 보호자)
 “저는 6학년 때 까지 여기 다니고 싶어요.”(신*주 아동)

센터 | 우수운영

「온 마을이 같이, 가치 있게 키우는」 안산시 신길가치키움터

경기도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신길가치키움터)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신길가치키움터>는 2019. 11. 27. 개소하여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주변 환경과 햇살이 반겨주는 교실, 쾌적한 대그룹실, 넓은 테라스까지 갖춘 아늑한 공간에서 아동들이 마음껏 놀이하며 몸도 튼튼, 마음도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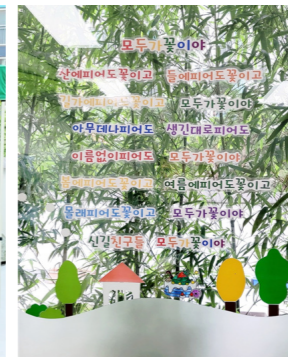
안산시의 지원과 지역사회 공모사업,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돌봄 교사들의 재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놀며 크며 재기발랄한 <안산 신길가치키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드리는 아이들의 엽서



신길행정복지센터의 감자 기부 - 가정 나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후원해주신 <모래 놀이터 & 대나무 화단>

따뜻한 마음이 모여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회가 위축되고 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환경개선 후원(모래놀이터, 대나무 화단), 신길행정복지센터의 햇감자 나눔, 벨라르페 컴퍼니의 찾아가는 음악회, 서울여자대학교 동아리의 재능기부 진로수업 등 온정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들의 감사 액자 + 포스코 직원분들의 추석맞이 과자선물 & 마음 따뜻한 손글씨 엽서



예술단체 <벨라떼 컴퍼니>의 찾아가는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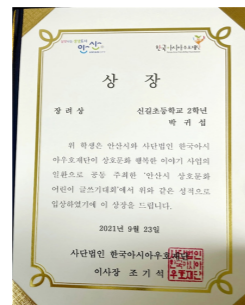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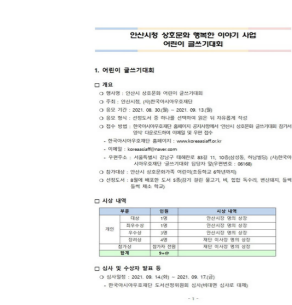
서울여자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의 진로 수업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도 빛나는 우리 친구들, 최고!!

지역사회에서 주최한 온택트 어린이 사생대회와 글쓰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하고 노력한 과정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기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도리섬 상점가 상인회 주최 <코로나 극복 온택트 어린이 사생대회> - 은상 수상



한국아시아우호재단 주최 <안산시 상호문화 어린이 글쓰기 대회> - 장려상 외 다수 수상

지역사회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간가는 줄 몰라요!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엄선한 지역사회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선생님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아동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올해는 코딩, 미술, 독서, 공예 수업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한 팀당 소수의 인원 밖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내년에도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생활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딩 수업



미술 수업



공예 수업

또 아동들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고, 푸드테라피와 생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며, 아동들도 기다리고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특히 생태 수업은 선사유적공원과 수변공원, 해오라기공원 등 지역적인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자유놀이(바깥활동)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서 수업



푸드테라피 수업



생태수업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매주 월요일이 오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회의를 준비합니다. <작은원탁회의>라는 명칭의 아동자치회의입니다. 월초에는 주로 키움터의 새로운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도우미 친구를 선발하여 규칙을 적고 게시합니다.

다른 안건은 <무비데이>에 볼 영화, <쿠킹클래스>에서 만들 요리,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줄 축하 메시지 쓰기, 다음 달 간식이나 하고 싶은 놀이 선정 등입니다. 매일 책을 많이 읽은 친구에게 주는 <독서왕> 안내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이나 대피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살려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꽤 그럴싸한 공예 작품은 멋져 보이지만, 선생님의 손을 거치거나 아동이 활동을 즐기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받자마자 소각용 봉투로 직행할 <예쁜 쓰레기>를 줄이고,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덜 해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쉬운 반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돌봄 교사들이 더 많은 고민과 인터넷 서치, 밤잠을 설쳐가면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그림책놀이와 놀이 활동, 보드게임을 진행한 덕분에 종이 접기의 달인이 된 아동들도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집중력과 소근육 발달,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림책놀이 & 전통놀이 주요내용

구분	그림책	활동 내용	준비물
그림책 놀이	눈물바다	팝업 카드 (감정수업)	A4 용지, 색연필
	파란모자 / 옹기모자	신문지 소품 (감정수업)	신문지, 포스트 잇
	골고루 나라의 왕세프	어몽어스 셰프모자 (진로수업)	A4용지, 색연필
	내마음 ㅅㅅㅎ	초성놀이&감정가면(감정수업)	A4용지, 감정카드, 빙투기 과자
	차령이 보보, 풀잎3	가을 시화 책갈피(계절수업)	A4용지, 색연필, 말린 낙엽
	도토리 모자 가게	도토리 모자 인형 (환경수업)	도토리 모자, 기본, 스티커, 아이클레이
	행복한 허수아비	휴지심 허수아비 (환경수업)	휴지심, 색종이, 풀, 눈동자 스티커, 가위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업사이클링 팝업북 (환경수업)	헌 그림책, 가위, 풀, 마스크 테이프
	완두	재능 그릇 (진로수업)	8절 색상지, 색연필
보드 게임	혼나기 싫어요!	감정날말 알까기 (감정수업)	플라스틱 병뚜껑, 감정카드
	머리와 꼬리(탈무드)	활동지 & 서펜티나 (역할수업)	A4용지, 색연필, 보드게임 교구
전통 놀이	PPT자료	쥐불놀이, 죽방울놀이, 딱지치기 (환경수업)	헌 책, 빈 페트병, 마른, LED 볼, 꾸미기 재료



세프 모자

업사이클링 팝업북

(플라스틱 병뚜껑) 알까기



신문지로 만든 집 · 용기모자 · 배 · 구멍조끼 · 공 뭉쳐 던지기

재능 그릇



시화(낙엽) 책갈피

도토리 인형&모자

행복한 휴지심 허수아비



실 창작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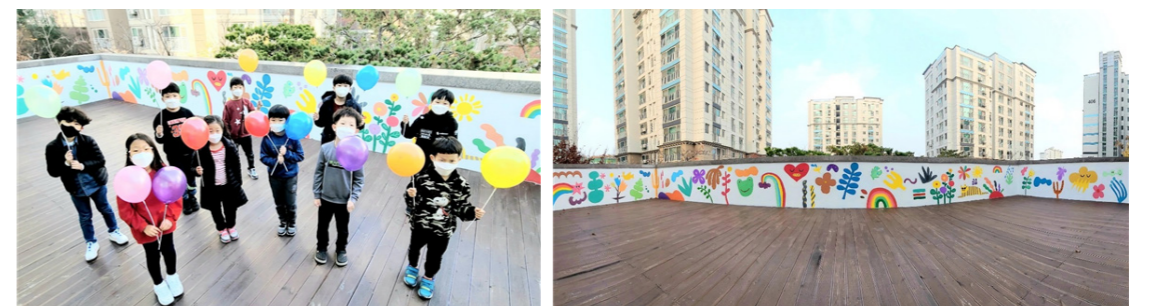
취볼놀이&죽방울 놀이

헌책 딱지치기

숲과 공원, 호수와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안산에서 맘껏 뛰놀며 우리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꾸어가는 <안산시 신길가치키움터> 친구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모두 많이 웃고, 항상 건강하세요~!!



삭막했던 테라스 공간이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멋진 갤러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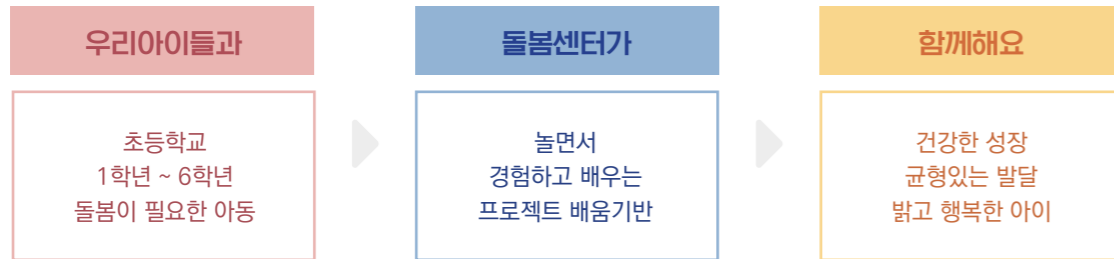
센터 | 우수운영

나,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해요

경기도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역써밋플레이스)

광명시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는요~

광명시 1호점으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는 아이들의 쉼터」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 프로그램 활동,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그램**
 - 건강한 나,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우리 **심리 프로그램**
 - 우리 몸을 건강하게 **어린이 요가**
 - 바른 먹거리 **식습관 교육**
- 환경 프로그램**
 - 우리가 사는 곳 **생태이야기**
 - 지구를 지켜요! **환경 프로그램**
 - 새롭게, 가치 있게 **업사이클링**
- 공동체 프로그램**
 -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전래놀이**
 - 창의과학 ■ 토탈공예 ■ 보드게임 ■ 블럭놀이
- 네트워크 프로그램**
 - 다함께 어울려 우리가 되는 **다문화 수업**
 - 슬기로운 심리방역 생활 **그림책 심리**
 - 우리들은요~~ **블로그, 카페 운영**
 - 궁금해요 우리아이! **부모교육**

▶▶▶ 상·하반기 학부모 간담회 진행/프로그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아동·학부모)
아동·학부모 의견수렴, 만족도 분석 및 결과를 반영한 돌봄센터 운영계획 수립

I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지 2년째...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학습 위기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 및 예절 습득의 기회마저 사라진 요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학년 승급이 이루어졌지만 또래 및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힘들고, 불규칙적인 생활과 편식으로 성장의 불균형과 잔병치레하는 아이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센터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몸과 마음 튼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강한 나,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우리 심리 프로그램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언어와 행동예절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여행준비

- 캠프활동으로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기
- 자기이해를 위한 나의 모습 생각해보기 (과자로 내 얼굴 표현)

○ 나를 찾아서

-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고 나 이해하기 활동과 미래의 나를 생각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 드림북만들기 :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좋은 점, 고쳐야할 점,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이끼야 도시도 구해줘' 동화를 통해 이끼의 역할을 알아보고 나의 역할을 생각하고 다짐해보기



○ 우리 가족

- '자연아, 자연아 우리가족 치유해줄래' 동화를 보고 우리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가족 간에 예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걱정인형을 만들어 선물하기
-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응원책갈피, 마음의 편지 적어보기

○ 함께 사는 우리

-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화분 만들어보기
- O, X퀴즈를 하며 함께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 마음신호등으로 대화나 행동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시연해보기
-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미운말 쓰레기통을 활용해 바른말 사용 다짐을 표현하기

◎ 우리 몸을 건강하게 어린이요가

아동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집에서의 생활이 많은 우리아이들~~ 핸드폰과 컴퓨터, TV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은 어깨 말림, 거북목, 척추 틀어짐 등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요가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어 코로나19 위기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 바른 먹거리 식습관 교육

아동기 음식의 기호, 음식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결정은 성인기 식습관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곁에 있는 수많은 인스턴트와 정크푸드에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GMO와 첨가물, 제철음식 등을 이해하고 식재료를 보고, 썰고, 맛보는 건강 간식 만들기 체험과정을 통해 건강한 식재료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체 및 두뇌발달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아동기에 식습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해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GMO 식품과 건강하고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친환경 재료로 간식 만들기
- 채식의 중요성과 채소가 땅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알아보기
- 맛과 향이 좋은 첨가물(코치닐 색소)에 대해 알아보고 천연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 익히기
- 우리땅에서 나는 제철 곡식, 과일, 채소에 대해 알아보고 제철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이해하기
- 자극적인 양념으로 맵고, 짠, 단맛에 익숙해진 우리,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알아보기
- 5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고 균형 있는 식단 생각해보기
- 농약, 성장호르몬 식재료를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친환경 농산물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기
- 발효식품의 종류 및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발효식품 간식을 만들어 먹으며 발효식품과 친해지기
- 인스턴트, 정크푸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밥상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패스트 푸드 같은 간식을 만들어 보기

I 환경 프로그램

UN에서는 기후와 환경오염으로 빚어진 지속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광명시도 2020년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현대사회이슈화의 중심에 있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나아가며 주변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문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사는 곳 생태이야기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자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사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문을 여는 시간으로 주변의 꽃과 나무, 곤충과 동물, 광명의 습지와 멸종위기 금개구리부터 살펴보며 자연과 생태계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리 동네 꽃과 나무

- 센터 옆 화단의 다양한 꽃을 살펴보고 꽃과 잎을 두드려 나만의 손수건 염색도 했어요
- 나뭇잎의 종류와 구조도 배우고 애벌레를 관찰하고 만져보는 즐거운 시간~
- 바늘잎 친구인 소나무와 친척인 나무, 솔방울과 잣나무방울을 만져보며 차이를 알아봐요
- 주변의 나무를 관찰하고 돌아와 나만의 나무를 만들어 보았어요



○ 곤충과 동물의 세계

-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비의 한 살이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 보아요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쁜 새들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새소리 퀴즈도 맞춰요
- 곤충들의 종류와 몸의 구조, 특징을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로 곤충을 만들어요
- 매미의 종류와 다양한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매미 허물을 만져보니 신기해요
- 거미를 관찰하고 거미활동지를 통한 거미줄과 거미 그리기, 거미줄 게임도 재밌어요



○ 습지와 금개구리

- 습지가 하는 일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물고기를 만들어 낚시놀이도 함께해요
- 양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봐요
- 폴짝 폴짝 연꽃 개구리 게임을 하면서 개구리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 환경오염으로 변해가는 숲과 생태계를 알아보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아가요

◎ 지구를 지켜요! 환경교육

광명시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목표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응/ 물의 순환/ 미세먼지/ 생물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소비/ 플라스틱은 무엇일까요? 라는 6가지 주제로 강의와 더불어 온실효과 실험/ 멸종생물 빙고게임/ 실천약속 선언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집에 가서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빈 과자봉투를 주머니에 담아오고 엄마의 분리수거를 간섭하는 등 위기의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실천하는 친구들의 미담은 가슴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 **새롭게, 가치 있게 업사이클링**

생각 없이 버렸던 종이박스, 플라스틱 화분, 커피찌꺼기, 공병, 잡지책을 가지고 캠페인 도구, 자석걸이, 소풍바구니, 마스크 줄을 만드는 과정 속 많은 질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놀라움과 신기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또 회기가 거듭될수록 독특함과 퀄리티가 높아지는 작품들을 보며 아이들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등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Ⅰ **공동체 프로그램**

◎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전래놀이**

전래놀이를 함께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규칙을 통해 협동심, 사고력, 배려심을 배우는 동시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고 밝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부작용을 해결해 보고자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 **창의과학**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회차 진행에 그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참여도와 흥미가 높았습니다. 로봇의 동작원리를 이해하며 물리과학 중 힘, 마찰력, 지렛대 원리 등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 조립도를 보며 로봇을 조립해 나만의 로봇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달시키고, 완성된 로봇을 이용한 놀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 **토탈공예**

공예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 활동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의 손으로 전해지는 촉감과 눈으로 보는 색감, 형태 변화는 아동의 오감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활동에 집중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이 참 예뻐했습니다.



Ⅰ **네트워크 프로그램**

◎ **다함께 어울려 우리가 되는 다문화 수업**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와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며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편견이나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 다문화 수업은 결혼이민자의 강의와 의상, 악기, 놀이 등 오감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그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 언어를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갖게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슬기로운 심리방역 생활 그림책 심리**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센터 운영법인 (사)좋은친구들 지원 사업으로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그림책 주인공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감정표현을 함으로써 '나를 표현하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존감 향상을 통해 우울감을 이겨내는 심리방역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전문가의 감정 활동지 분석을 통한 아동별 피드백은 활동을 하거나 아동을 대할 때 신경써야할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교사의 역할 및 방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실패해도 괜찮아 (슈퍼토끼, 슈퍼거북)**

- 성과중심의 학습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을 위해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

○ **두려움에 대해 (수박만세, 쿵쿵이와 나)**

- 부정적인 감정(두려움)에 대해 인정하고 스스로 대처하거나 위안을 얻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찾기

○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기 (가시가 없다면, 커다란 악어알)**

- 타고난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고,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 **감정알기 (여름밤에, 하나도 안무서워)**

- 자신의 감정을 알고 감정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 감정 표현을 통한 우울감 줄이기

◎ **우리들은요~~ 블로그, 카페 운영**

우리아이들이 센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걱정마세요~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메세지를 전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친구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한 뼉 한 뼉 자라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블로그와 카페의 내용을 꽉꽉 채우게 만듭니다.

◎ **궁금해요 우리아이!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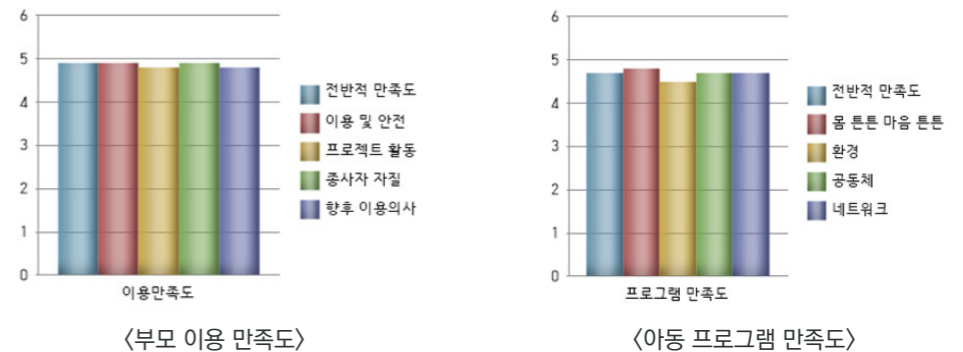
부모도 잘 모르는 우리아이! 너무 순해서, 너무 예민해서, 너무 활동적이라 키우기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내 아이 바로 알기' 부모특강을 진행했습니다. TCI 기질 검사를 통해 내 아이에 대해 알아보고 기질에 따른 놀이와 훈육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의미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참여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추가교육 요구에 따라 12월에 한 번 더 진행예정입니다.

I **우리의 만족도**

◎ **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이용아동, 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센터가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수업 또 언제해요?', '오늘은 뭐해요?' 등 아이들 표현의 내용이 만족도를 통해 한눈에 보여 지며 어떤 부분의 보충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향후 이용의사 만족도를 반영하듯 이용인원 확충을 위한 추가모집 공고 시 지인 권유를 통한 문의와 접수 증가로 나타나 종사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위해 학원시간까지 바꾸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아이가 재미있어 해서 너무 좋아요.” (신** 보호자)
 “환경교육을 받고 와서 집안의 불을 끄고 다닙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안심하고 돌봄센터를 이용합니다.” (박** 보호자)
 “센터가 너무 재미있다는 동생들의 말을 듣고 누나도 다니길 원해서 아이들 3명이 센터를 이용합니다. 덕분에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 ** 보호자)

센터 | 우수운영

미래산업의 주역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경상남도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과거에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읽고, 쓰고, 말하고, 암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도 과연 이러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 우리 아이들은 로봇과 함께 살아 가야 하고, 암기, 계산은 로봇이 더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언어적 학습영역이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숙제였다면, 이제는 '로봇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과학지식' 분야의 프로그램 관련 공모사업에 더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 센터에서 진행한 과학 분야 프로그램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찾아가는 발명교실', '과학문화바우처'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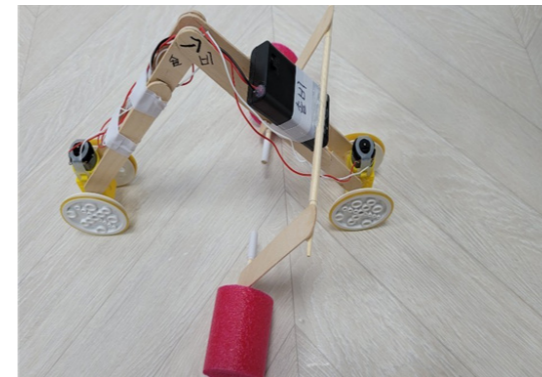


청소년비전프로젝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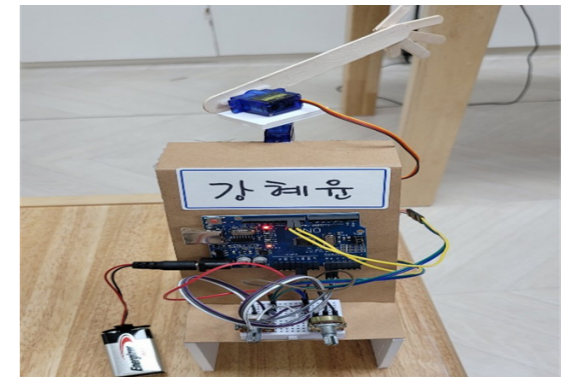
성인이 되었을 때,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 지식을 얼마나 가지게 되느냐로 친구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 과 '강점'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체험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본인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모사업이 청소년비전프로젝트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센터 이용 아동 중 초등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와 열정적인 신청 사유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비대면 4회기, 심화 과정 대면 수업 추가 1회기로 총 5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프로젝트 1차시 : 메커니즘 (계단을 오르는 로봇)

만들기 전에 미리 디자인하고, 움직임이 어떤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과학기초지식 마찰력에 대해서도 배우고, 모터와 바퀴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로봇 수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사전준비과정이나 회로 연결 등이 쉽지만은 않은 첫 차시 프로젝트였지만, 완성된 후, 책을 높게 쌓아 놓고 시연했을 때, 로봇이 책을 넘어가는 그 순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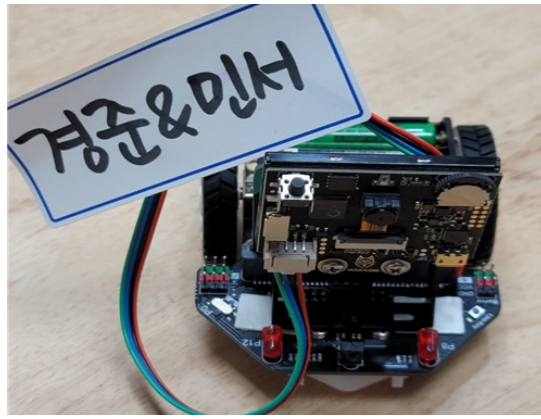
움직이는 로봇 팔

◎ 프로젝트 2차시 : 로보틱스 (움직이는 로봇 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두이노'를 이용했습니다. 아두이노 (ARDUINO)는 로봇의 두뇌로, 무엇인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코딩 값을 입력하여 명령한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2차시에서 만든 '로봇팔'은 사람의 팔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완성된 로봇팔을 직접 조종하여 웁~웁~ 작동되는 로봇을 보았을 때, 작업하는 과정 중간중간의 어려움은 깨끗하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 3차시 : 인공지능 (AI Tools)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차시는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센서인 카메라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허스키렌즈를 통해 사물추적, 얼굴인식, 물건인식 등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얼굴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나중에 센터에서 출석을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출석체크가 자동으로 가능해지겠지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AI tools 허스키렌즈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담은 아동별 패들렛

◎ 프로젝트 4차시 : 머신러닝 (선을 따라가는 로봇)

4차시에는 허스키렌즈를 활용하여 선을 따라가는 로봇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되어 진 것이랍니다. 바닥에 검은색 선을 그려놓고, 렌즈가 인식하여 따라가는 원리를 응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더 연구하고 실험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를 배운 우리 센터 친구 중의 누군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자로 성장해 나간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 프로젝트 심화 과정 마지막 차시 : 대면 수업 (코딩)

5차시 수업은 심화 과정으로 강사님들께서 직접 센터에 오셔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시고, 개인별 컴퓨터를 놓고 한 명씩 코딩해가며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만족도가 너무도 높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소질이 보이는 친구가 있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두에도 그랬듯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 지식을 얼마나 가지게 되느냐로 친구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우리 친구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 4차산업 시대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일지라도 '경험을 하고'와 '경험을 하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소질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차시 대면 수업



프로젝트 완성 기념 선물과 기념 촬영

찾아가는 메타버스 발명교실 (한국발명진흥회 공모사업)

한국발명진흥회의 공모사업은 센터이용 아동의 나이에 맞추어 초등 저학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주제로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회기에 걸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방법과 조작법을 배워보고 가상공간에 3D 아바타를 제작하여 말풍선에 대화 및 생각을 직접 표현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모습 등을 배우고 익히며 매우 흥미로운 아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어찌나 멋있었는지 모른답니다. 옆에 친구들과 의논도 하고 서로의 작품에 칭찬도 하고 조조작이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 또한 최고였습니다.



찾아가는 발명교실 1차시



찾아가는 발명교실 2차시

메타버스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은 가상공간을 디자인해보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생동감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지만 아동들의 집중력은 최고였습니다. 강사님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반했다며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블록코딩을 학습하여 프로그래밍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여 발표하는 시간과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의 발표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주신 강사님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준 친구들 모두에게 칭찬 박수를 보냈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3차원 공간을 이해하고, 디지털 소통 및 발명의 도구로서의 활용방법을 배운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학문화바우처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문화 산업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학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바우처사업에 공모하였고, 선정 후 아동들과 함께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은 과학교구를 직접 검색해보고, 아동 자치회의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투표하여 교구를 선정했습니다.

센터 친구들의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교구는 ‘태양광자동차’, ‘초음파쓰레기통’, ‘자동차회전오르골’이었습니다. 수령한 Kit를 가지고 센터에서 3회기에 걸쳐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차시.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시간에는 ‘어떻게 햇빛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의 시작이라는 것,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에 대해 심도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초음파쓰레기통만들기

있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차시. 초음파쓰레기통 만들기 시간에는 초음파센서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과학원리로 사용되는지도 배워보았습니다. 이미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의 감지 센서, 초음파 탐지기 등 의료용,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손을 가져다 대면 저절로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는 신기한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3차시. 자동차회전오르골만들기 시간은 오르골의 유래와 오르골이 작동하는 태엽의 원리를 알아보고, 자동차가 회전하는 자석의 원리까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만들기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고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친구들이 고른 과학의 원리를 활용하는 작품이어서 그런지 센터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여 지방의 소도시여서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인 단점 없이 과학의 다양한 영역 및 분야를 아동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작지만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면화, 디지털화되어가는 이 시기에 센터 친구들이 디지털 소외를 느끼지 않고, 더불어 미래 세상의 핵심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4차산업 시대에 꼭 필요한 소양과 지적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의 주역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오늘 엄청 재밌었다고 자랑을 엄청하네요^^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강** 어머니)
 “선생님,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이 가까워서 계속 이어서 하고 싶어요.” (장**)
 “1박 2일 캠프형태의 수업이 있다는데,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김**)
 “이런 수업은 저는 무조건 계속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김**)
 “메타버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2번만 해서 아쉬워요.”
 “선생님, 초음파쓰레기통이랑 자동차회전오르골, 태양광자동차 수업하는 날에는 무조건 할 거니까 미리 시간 알려주세요.”

센터 | 우수운영

카오스의 우주 탐험가

서울특별시 광진구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내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지닌 의미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국력에 의한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실현하려는 한국형 발사체라는 점입니다. 비록 목표했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탑재된 위성모사체 분리까지의 모든 절차를 성공시키며, 내년에 있을 2차 발사에서 누리호가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광진구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아동들은 누리호 로켓 발사에 주목하며, 발사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의 결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처럼 실패한 것이 아닌 잘 되지 않았던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만의 광활한 우주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 광진구 8호점의 배움과정

광진구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PBL(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해 아동이 삶의 연구가로서 배움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PBL을 통해 서울형 5C가 지향하는 아동주도(Directed), 창의성(Creative), 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지역사회 교류(Community)의 프로젝트 배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PBL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아동과 아동 간, 교사와 아동 간, 아동과 물질 간의 다양한 공동체적 상호교류와 경험이 발현되고, 아동 자신이 (아동과 아동 자신 간) 마주한 궁금증을 배움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유능감이 실현되는 학교 밖 배움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동이 관심가지는 사회, 문화, 역사, 과학 등의 현상을 중점으로 아동과 상호작용을 통한 주제를 선정하며, 아동이 주제에 대해 마인드맵 또는 브레인스토밍을 그리며, 배경지식과 궁금증에 대해 생각을 확장해 나갈 때,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민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동 스스로가 설정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협력자로서 함께 하며,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지원자이자 적절한 시기에 좋은 멘토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과정을 광진구8호점 아동과 교사가 함께하였던 11월의 '우주 Universe'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소개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다(Gardner,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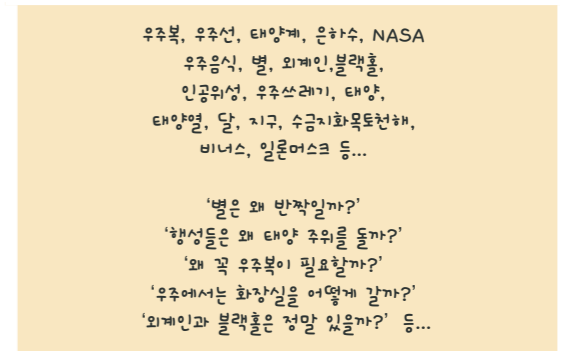
광진구8호점 아동들이 일어나가는 활동은 자신의 강점 지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여러 분야의 지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 활동이 언어, 논리·수학 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학교 밖의 센터에서의 배움은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 자기이해, 자연친화를 경험으로서 이해하고 사유하는 통합적 활동을 추구합니다.

I . 1. 우주의 시작

◎ 활동 : 우주를 키워드로 한 마인드맵과 궁금증



우주(Universe) 마인드맵 작성하기
작성자 : 한아윤 아동



'우주' 단어와 궁금증

아동들은 다같이 모여 앉아 우주와 연관된 단어들을 이야기 하였고, 더 이상 떠오르는 단어들 없을 때까지 아이디어를 모아냈습니다. 무궁무진한 우주만큼이나 수많은 단어들 쏟아져 나왔고, 아동들은 우주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우주에서의 일상생활 여부, 우주와 관련된 추상적 궁금증을 언급하였습니다.



II. 어려운 지식을 쉽게 사유하기

◎ 활동 : 에어펌프 로켓의 실험



우리도 날라가는 로켓을 만들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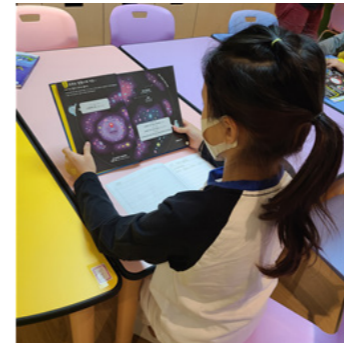
더 멀리. 더 높게 날리기 위해 실외로 나가기

‘누리호’ 발사 이후 아동들 사이에서는 로켓 접기, 로켓 그리기, 로켓 조형물 만들기가 이어졌고, 하늘로 날릴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교사들은 로켓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로켓 중 아동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작지만 수십미터를 날라가는 에어펌프 로켓으로 선정하였고, 아동들과 에어펌프 과학로켓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해하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동들은 센터의 실내에서만 로켓을 날리는 것에 아쉬워하였고, 외부공간(어린이대공원)으로 나가 더 멀리! 더 높게! 날려보며, 팀별로 로켓대회를 열어 협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 활동 : 우주보드 메이킹 and 우주 골든벨

아동들은 우주에 대해 궁금했던 지식들을 알기 위해 우주관련 책과 인터넷 검색을 병행해 나갔고, 각자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검색->정리->도출->제작하는 우주보드 메이킹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아동들 앞에서 자신의 보드를 발표하고, 자신의 발표 주제를 문제로 출제하여 골든벨 퀴즈를 열었습니다. 아동마다 궁금증이 다 달랐기에 보드제작도 다 달랐고, 아동들의 관심 주제는 「우주복」, 「한국의 우주식량」, 「space 블랙홀」, 「우주정거장」, 「유리가가린」으로 발표를 통해 나와 타인의 지식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세계 최초 우주비행사 유리가가린을 조사한 아동은 다른 친구들에게 그가 남긴 말 중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1961)”라고 소개해 주며, 우리가 사는 지구는 푸른 행성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주 궁금증을 책에서 찾기



교사의 컴퓨터는 아동의 자료 검색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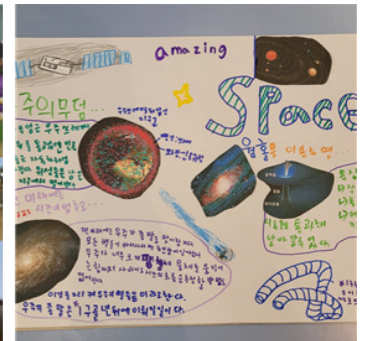
우주보드를 만들어 가는 중



우주 보드 발표시간
발표자 : 김하엘 아동



우주 골든벨 퀴즈~



우주보드 제작하기
제작자 : 문시원 아동

◎ 활동 : 우주 보드게임 and 지구의 공전과 자전

로켓에서 광활한 우주로 날아간 아동들은 행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지구를 떠났을 때 만나게 되는 행성의 존재와 그것들이 태양계를 형성한다는 사실과 마주하였습니다. 아동에게 제시된 보드게임은 행성의 실물 사진과 명칭이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표기 되어 있었기에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의 행성 이름을 익혀나갈 수 있었고, 또 공전과 자전 시스템을 하드페이퍼로 만들며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보드게임



공전과 자전 시스템

◎ 활동 : 태양, 지구, 달의 벤다이어그램 and 우주 팽창

아동들은 행성을 통해 태양과 달은 행성이 아닌 천체라는 것을 알게 되며, 태양, 지구, 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였습니다. 저학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쇄 문구를 제시하여 오려 붙이는 형태로 벤다이어그램을 제안하였고, 아동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며 가시적인 효과성을 지닌 벤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주 팽창설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 활동으로서 풍선 위에 별 스티커를 붙이고, 풍선에 바람을 불었을 때 빠른 간격으로 벌어지는 팽창의 원리를 익숙한 풍선을 통해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Venn diagram
기록자 : 이서영 아동



우주팽창설 '풍선실험'



III. Cooking : 우주식량 개발

◎ 활동 : 행성 주먹밥 and 우주에서 온 피자

우주보드 메이킹 발표 아동을 통해 우주인들에게는 우주정거장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음식이 정해져 있고, 연구원들을 통해 김치, 라면,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등의 한국형 우주식품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주 음식을 만들어 볼까?'라는 교사의 제안에 따라 1차로 행성 주먹밥과 2차로 별, 태양을 닮은 우주 피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우리가 경험하던 것의 논리성을 이해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차이를 생성하였고, 변용된 형태의 요리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행성 주먹밥 만들기



행성 크기대로~ 행성 위치대로~



우주피자 만들기



별 또는 태양을 닮은 피자

IV. 외부견학 : 내부와 외부의 공간 넘나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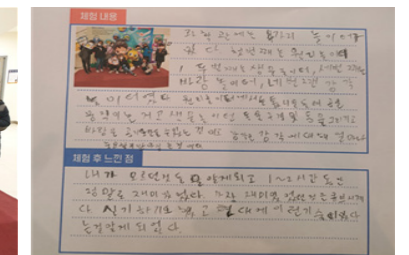
◎ 활동 : 견학 -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과학관에서 단체사진 ^^v



체험 보고서

아동들의 무궁무진한 우주 관심으로 인해 하루하루 알게 되는 우주를 매우 신비로워했지만, 교사들은 과학적 원리를 근간으로 놀이와 배움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견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에게 과학관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상상력을 펼쳐내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받는 즐거운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V. 놀이문화 : 끊임없는 운동과 실험

◎ 활동 : 새롭게 생성되는 놀이활동

아동들의 놀이문화에도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아동들은 호모루텐스가 되어 혼자로서의 놀이, 또래와의 병행 놀이를 자연스럽게 열어나갔습니다. 아동들이 보여주는 놀이는 단일한 흐름을 나타내는가 하면 고차원적인 표상활동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어제의 놀이가 단절되면서도 내일 모레의 놀이로 다시 생성되는 연속성을 드러냈습니다. 아동들의 놀이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거나 센터의 자원과 환경 및 물질의 마주침 속에서 지속성의 엄함이 발현되는 즐거운 배움이었습니다.



VI. 마무리 : 카오스의 우주는 현재 진행형

◎ 활동 : 우주 탐험가

광진구8호점 아동들의 우주 프로젝트 기록은 수 많은 별들 중에 한 개 일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광활한 우주 세계를 여행 중이고, 자신에게 마주한 곳에서 탐험을 시작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우주 활동을 마무리 하려는 찰나에도 한켠에 배치되어있던 로봇 블록을 꺼내 탐사선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주 탐험가로서의 운동 에너지를 이끌어내며, 코스모스 우주가 아닌 카오스의 우주 속에서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광진구8호점 아동들의 카오스 우주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퇴근하고 아이를 만났는데, NASA처럼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연구센터는 뭐라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재빨리 검색해서 KARI라고 알려 주었어요. 저도 NASA는 알지만 우리나라의 KARI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아요. 우주 관련하여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박** 보호자)

“코로나19로 학교에서도 현장학습을 못가서 많이 아쉬워 했는데, 센터에서 어린이과학관에 간다고 하니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 보호자)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이곳에서 우주인들이 쉬고, 밥도 먹고 해요.” (이** 아동)

“우주에 최초로 간 사람은 유리가가린이에요. 지구는 푸른별이래요.” (한** 아동)

“빵 부스리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금지 음식이라 신기했어요. 우주는 무중력상태이고, 우주 쓰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주음식을 계속 개발 중이래요. 저도 우주음식을 개발하고 싶어요.” (김** 아동)

“센터에는 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이** 아동)

“우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하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블랙홀이 진짜 있다고 해요. 블랙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문** 아동)

GO! GO! GO! 안심하GO! 마을과 함께 하GO! 매일 가GO! 싶은 흥은2동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4호점 흥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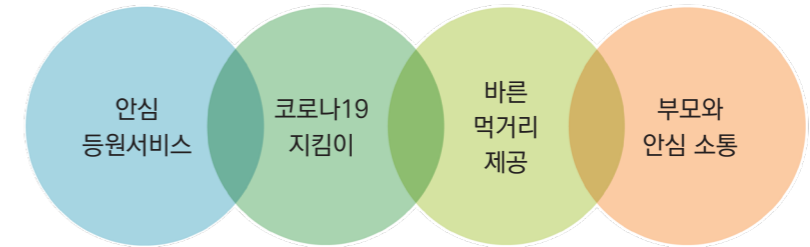
흥은2동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초등학생 모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어린이로 육성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탐구심과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아동의 이미지를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봄의 기본을 실천하며 부모님은 안심하GO, 마을과 함께 하GO, 매일 가GO 싶은 센터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I 1. 안심하GO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심 돌봄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아동성장을 지원함




[흥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 안심하GO]

◎ 안심등원서비스

안심하GO - 안심등원서비스	
기간	2021년 3월 2일 ~ 현재까지 (아동등원 시 매일 진행됨)
목표	학교부터 센터까지 아동의 안전한 등원과 안전교육을 통한 안심 돌봄
방법	<p>학교 앞 집결지(체육문화회관)에서 엄마가 마중하듯이 센터선생님이 아동을 반갑게 마중하고, 차례와 교통안전을 지키며 센터까지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지도함</p> <p>※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하며, 하원 즉시 놀이터에서 놀이 후 센터로 등원하여 아동의 만족도가 높음</p> <p>※ 인근학교는 높은 언덕에 위치에 있으며 큰 대로변 횡단보도를 두 개 건너야 하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연중 실시하였음. 부모는 안심하고 아동은 선생님의 마중을 좋아함</p>
활동사진	<p>체육문화회관 앞에서 만나기! 차례차례 줄서서 내려가기 횡단보도 교통안전교육</p> <p>경찰서 건의하여 센터 앞 사거리 등교 시 가로세로 녹색신호 수신, 바닥신호등 설치</p>

◎ 코로나19 지킴이

안심하GO - 코로나19 지킴이			
기 간	2021년 2월 22일 ~ 현재까지 (매일 수시로 진행)		
목 표	코로나19위험성을 인지하고 교육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코로나19방역수칙 준수		
방 법	예방이 중요하므로 안전교육, 손 씻기, 체온측정, 수시로 소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함		
활동사진			
	일일2회 체온측정	올바른 손 씻기	세스코공기살균기(24시간살균)
			
	공기청정 및 자연환기	코로나19예방 안전교육	코로나19예방 센터이용수칙

◎ 부모님과 소통하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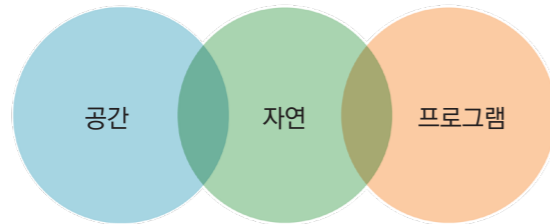
안심하GO - 부모님과 소통하GO			
기 간	2021년 2월 ~ 2021년 12월(매일 수시, 면담 2회 이상, 만족도조사 2회)		
목 표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아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방 법	밴드를 이용하여 계획안 & 간식 & 활동사진 공유 - 양방향소통, 정기-수시상담, 만족도조사		
활동사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밴드-양방향 소통	밴드-가정연계활동

◎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

안심하GO - 건강하고 바른먹거리 제공			
기 간	식단 매달 작성, 간식 매일 제공, 요리활동 연 10회 이상 실시		
목 표	성장기인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인스턴트 간식을 지양하고, 직접 만든 양질의 간식을 제공 요리활동을 통해 편식예방과 창의력을 키우고자 함		
방 법	전문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한 영양 간식 제공 아동요리전문가와 함께 월 2회 이상 세계요리(나시고랭, 카나페등)를 만들어 편식개선		
활동사진			
	제철 과일 주2회 이상 제공 - 통새우볶음밥, 수박	직접 만든 간식 제공 - 불고기파스타, 레몬에이드	서대문구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위생관리
			
	전문 업체 식자재 발주 (풀무원푸드머스)	요리활동과 연계 편식개선 - 개구리 햄버거 만들기	요리활동과 연계 편식개선 - 김장담그기
		2. 센터에서 제공된 간식 중에 가장 만족하셨던 3가지를 적어주세요.	간식 잘 챙겨주셔서 대체로 다 만족 합니다
	전문영양사 식단 작성 (푸드머스영양사 작성)	만족도조사결과 - 가장 만족한 간식 BEST 3가지	떡볶이, 떡국, 피자(키즈세트) 로제파스타 미니피자면 초코머핀 피자 다 좋아요 또띠아피자 핫도그 떡볶이 크릭빠네파스타 또띠아피자 모두 만족

2. 마을과 함께 하GO

마을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지역사회의 공간활용, 아름다운 자연누리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아동들의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



[홍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 마을과 함께 하GO]

◎ 공간

마을과 함께 하GO - 공간	
기 간	2021년 3월 ~ 현재까지(강당 주2회 사용, 풋살장 5회, 도서관 수시)
목 표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여 센터 내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함
방 법	동주민자치센터 강당,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풋살장, 홍은2동 작은도서관 등 마을과 연계하여 마을 자원을 이용함.
활동사진	
	<p>홍은2동주민자치센터 강당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풋살장 홍은2동 작은도서관</p>

◎ 자연

마을과 함께 하GO - 자연	
기 간	2021년 3월 ~ 수시로 진행
목 표	녹색도시 서대문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고자 함
방 법	센터 인근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홍제천, 안산, 숲 체험장을 수시로 방문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는 하원 후 바로 이용하고 거리가 있는 곳은 긴 나들이로 활용
활동사진	
	<p>홍제천 안산 백련산 숲 체험장</p> <p>서대문체육회관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p>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연계

마을과 함께 하GO - 서대문구청 -> 아동청소년과·문화체육과	
기 간	런런(달리면서 배우는 오리엔테어링)서대문 6월~7월 8회 참여, 목공교실 8월 1회 참여, 어린이 풋살교실 10회 참여
목 표	서대문지역특성을 활용한 지역문화에 참여하여 성취감과 지역사회 애郷심을 기르고자 함
방 법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등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담당자와 연결을 통해 다양한 체험에 참여
활동사진	
	<p>아동청소년과 런런서대문 안산목공교실 문화체육과 - 어린이 풋살교실</p>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연계

마을과 함께 하GO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기 간	2021년 환경리스팩 1회, 평화통일프로그램 6회
목 표	대학생과 연계한 환경교육, VR체험, 코딩교육 등 질 높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환경교육과 청소년시기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해 보고자 함
방 법	서대문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의 기후변화프로그램 연계, 평화통일프로그램 연계
활동사진	 업무협약식
	 S-지니어대학생과 함께 하는 환경리스팩 RE-BORN
	 아이스팩이용한 방향제만들기
	 VR체험 및 가상현실만들기
	 평화통일프로그램-로봇코딩
	 평화통일프로그램-로봇코딩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연계

마을과 함께 하GO - 서대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 간	2021년 아동심리미술 10회, 미디어리터러시교육2회
목 표	친숙한 미술 매체를 통해 감정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아동에게 넘쳐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
방 법	청소년 상담복지전문교사 파견 아동심리치료미술,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강사와 워크숍으로 진행
활동사진	 아동심리미술
	 미디어리터러시교육 I
	 미디어리터러시교육 II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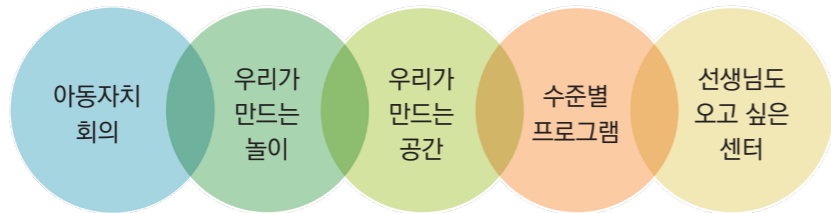
마을과 함께 하GO - 종로·서대문 거점형키움센터			
기 간	2021년 11월 ~ 현재까지 6회 참여		
목 표	거점형센터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뛰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함		
방 법	매달 거점형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신청 후 방문체험, 우리센터아동에게 필요한 교사교육 참여		
활동사진	 아동체험 - 암벽등반	 아동체험 - 보드게임	 아동체험 - 달고나체험
	 아자! 놀이프로그램 (중사자 역량강화교육)	 보드게임 활용법(저학년)	 보드게임 활용법(고학년)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연계

마을과 함께 하GO - 서대문구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기 간	돌봄네트워크센터장회의 - 매달1회 실시, 전체종사자네트워크회의 2021년 6월		
목 표	서대문구 다함께 돌봄센터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및 센터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방 법	서대문구 다함께 돌봄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서대문구 내 돌봄 공백 해소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상황 공유		
활동사진	 서대문구 돌봄네트워크 센터장 정기 회의	 서대문구 전체 돌봄종사자 네트워크회의	 서대문구 전체 돌봄종사자 네트워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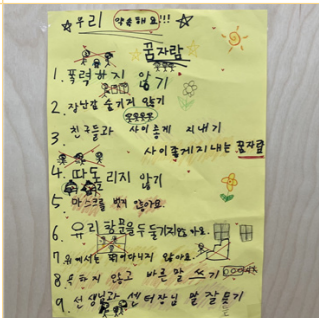


3. 매일 매일 가GO 싶은 센터

아동주도적인 자율적인 놀이 활동 및 쉽이 있는 편안한 환경 제공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고, 아동중심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적인
 배움이 발현 배움을 지향함. 아동·선생님 모두 매일 가고 싶은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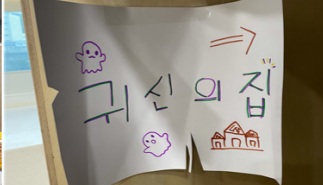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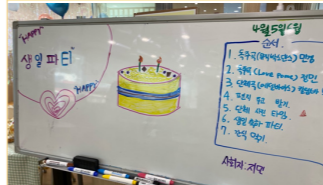



[흥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 매일 매일 가GO 싶은 센터]





◎ 아동권리존중 아동자치회의

매일 매일 가GO 싶은 센터 - 아동권리를 존중한 아동자치회의	
기 간	2021년 아동자치회의 (필요 시), 반장선거(3개월마다)
목 표	아동참여권의 의미를 알고 센터내의 규칙 등을 아동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실현시키고자 함
방 법	센터 내의 규칙 정하기, 반장선출을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 및 센터 운영에 직접참여
활동사진	
	
	
	센터이용규칙정하기 반장선거 아동자치회의

◎ 우리가 만드는 놀이

매일 매일 가GO 싶은 센터 - 우리가 만드는 놀이	
기 간	2021년 3월 ~ 현재까지(놀이에 따라 진행)
목 표	발현적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자 함
방 법	놀이나 행사의 기획을 아동들 스스로 함. 생일음식, 생일카드만들기, 사화자, 식순 등 아동스스로 정한 수 업무분장을 통해 행사진행
활동사진	
	
	
	아동주최 생일잔치 귀신의 집 놀이 할로윈파티
	
	
생일파티 아동주도 기획 어린이날 행사 - 과자파티 생일잔치 - 사화자	

◎ 우리가 만드는 공간

매일 매일 가GO 싶은 센터 - 우리가 만드는 공간	
기 간	2021년 2월 ~ 현재까지
목 표	쉽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아동중심의 공간구성으로 아동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함
방 법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따른 공간을 아동과 함께 구성,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 느낄 수 있도록 식물키우기 등 자연친화적 공간 구성
활동사진	
	
	
	넓은 꿈이 자라는 공간 아늑한 휴식공간 캠핑장놀이
	
	
소그룹실 베란다 텃밭 신체놀이 - 필라테스놀이	

4. 만족도 조사

2021년도 흥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부모만족도 조사

2021년 흥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학부모용

안녕하세요? 흥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입니다.
본 설문은 이용만족도를 진단하여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통해 본 센터에서 더 나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있겠습니다.

※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자녀가 하고 후 센터로 올원하는 일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센터이용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기출부: 월 50,000원, 일기출부: 월 2,500원)					
3	센터 운영, 직원 시 준수 정책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4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한 '양질의 간식'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4-1	간식 중 가장 만족하시는 것을 3가지 적어주세요.					
5	아동의 시간외(돌봄대응)에 맞춰 '정리'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6	아동들이 센터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센터에서 '교과나외' '방학' '진로' '프로그램'을 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센터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9	센터의 선생님은 친절하고 아동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센터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11	센터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11-1	센터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하시는 것을 예시에서 3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예시: 1.문화 활동 2.교외의 활동 3.미술 활동 4.음악 활동 5.놀이활동 6.직접체험 7.부모교육 8.교외활동 9.지역사회 연계 활동					
12	센터 이용에 있어 기타 의견 또는 제안사항을 내용, 일련의 일들이 있으시면 일제 안에 적어주세요.					

-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센터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응답 수: 15
매우 그렇다: 15 (88.2%)
그렇다: 2 (11.8%)

센터의 선생님은 친절하고 아동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 수: 14
매우 그렇다: 14 (82.4%)
그렇다: 3 (17.6%)

설문조사 결과 센터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매우 그렇다 88.2%와 그렇다가 11.8%로 100%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센터선생님이 친절하고 아동을 존중한다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100%로 나타났다.

3. 센터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하시는 것을 예시에서 3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 키즈세프 음악 외부활동
- 외부활동, 음악활동(피아노), 축구,
- 키즈세프
- 문화활동
- 외부활동
- 1)외부활동-거점키움센터
- 2) 하교 직후 신체활동 놀이터
- 2) 키즈세프
- 1 축구
- 2 문화활동
- 3 음악활동

1. 고학년까지 돌봄을 한다는 점,
2. 중간중간 밖 갈 나들이
3. 공공기관 등 타기관 프로그램 참여 등

음악활동, 키즈세프, 신체활동
3가지만 고르기가 어려워요~

- 키즈세프
- 미술활동
- 문화활동

2번 4번 7번

가장 만족하는 프로그램은 키즈세프, 외부활동, 신체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두 아이를 보내는 엄마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요
돌봄에서 미술, 음악,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 매일 매일 새로
워 하고 즐겨줍니다.
뜻상, 견학, 대학생연계 멘토 등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도 절감됩니다!
학원보다 키움이 좋아요!

"엄마! 센터에서 제일 늦게 가는게 내 소원이야!"
하여 초등학생 아들이 매일 외칩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며 다닐 수 있는 것은 센터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일 것 같아요

좋은 2동키움센터 항상 응원합니다!!! /학년 4학년 학부모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신경 써 주시
는 선생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이스
니다. 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 많아서 아이가 흥은2동 키움센
터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
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
안전 하교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센터에서 제공되는 간식 이야기를 아이가 매일 하
여 관심을 갖고 핸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았는데 퀄리티
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함께 보며 간식을 설명하는
아이를 보니 '돌봄센터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영양을 생각한 간식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매우
특별 간식 등 간식의 구성이 너무 좋아서요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들이 많이 나와 좋았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직접 요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져 더욱 아이가 돌봄센터에 만족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스레 간식, 활동사진을 함께 보며 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센터 | 우수운영

모두가 함께하는 울리아이꿈자람터 고품격 UCC스타

부산광역시 북구다함께돌봄센터(울리아이꿈자람터)

I. 기관 개요

부산광역시 북구다함께돌봄센터(울리아이꿈자람터)는 부산 북구에서 3번째 생긴 돌봄센터로 울리벽 산블루밍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신축아파트에 생긴 돌봄센터로 저소득층 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신도시에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어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은 편입니다.

본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내 방과후를 전문으로 하던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 돌봄과 관련된 복지시스템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소득가정이 주로 이용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센터를 이용하게 될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좀 더 촘촘하게 파악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II. 울리아이꿈자람터의 고품격 프로그램 운영

1.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울리아이꿈자람터의 신나는 UCC 제작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유튜브에 단순 등장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거듭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래포가 형성되어 가면서 이제는 대본, 의상 등 제작의 과정에도 스스로 참여하여 기획부터 촬영까지 선생님과 어린이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진로교육 때 크리에이터가 1위가 나올 만큼 유튜브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UCC를 제작해보았습니다.

(1) 2020년 10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개소식

코로나19가 맹렬하던 2020년 10월. 결국 오프라인 개소식 대신 비대면 개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개소식을 준비하게 된 마당에 이왕이면 좀 더 특별한 개소식을 준비하고 싶어 센터 선생님들과 구청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고, 어린이가 주인공인 돌봄센터 개소식을 만들어 보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기존에 입소하여 다니던 3학년 5학년 어린이가 사회자로 되었고, 나머지 어

린이들은 센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의상과 소품, 대본은 센터와 구청에서 준비하였지만, 너무 가벼운 개소식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촬영하는 중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전문 아역배우처럼 너무 잘 하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저런 거 언제 찍어요? 저도 바나나웃 입고 유튜브 찍어 보고 싶어요.”

개소식을 올린 유튜브에 많은 좋아요가 붙었고, 홍보도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유튜브 촬영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CMmqOvkHBs>

(2) 스스로 기획하는 크리스마스 미니 연주회

개소식 이후 유튜브를 한 번 더 찍어보자는 약속을 어린이들과 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학교 학예전도 취소되었고, 본인의 끼를 발산하고 싶어도 펼칠만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센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끼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6학년 학생이 사회자가 되었고, 기획과 대본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팀별로 칼림바 연주자가 되어 어떤 연주곡을 할지 팀별로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연주회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선정 후 아이들과 촬영에 돌입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8hmN7plaHM>

③ 대학과 함께하는 영상제작 진로체험활동

센터의 소통채널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는 중 동서대학교 영상학과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대 학생들에게는 실습할 기회가 되고, 센터의 어린이들에게는 방송영상제작과 관련된 진로체험활동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활동은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이 없을 때 동서대 학생들이 와서 기자재를 설치하고, 센터의 선생님들에게 수업 진행과 관련 오터를 해주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이미 줌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따라하였고, 뉴스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등 방송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제작해보고, 그 과정을 또 촬영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Gx00jqWWAs>

(4) 여름방학 생활과 1주년 할로윈 파티도 영상으로 함께 즐겨요.

이제 유투아이꿈자람터에서는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먼저 다음번 영상은 어떻게 찍을 거냐고 제작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꾸미는 것이 아닌 이곳의 생활을 그대로 찍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름방학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찍어보자는 큰 틀만 제시하고, 아이들이 세부적인 센터의 소개를 하였습니다. 1주년 영상도 아이들과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사회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 멘트도 만들고, 자신만의 끼를 펼치며 크리에이터로 한발짝 더 다가가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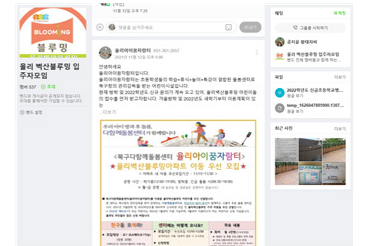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CEb2R6b4GJs>

1년동안 총 4편의 영상을 제작해보았고, 이렇게 스스로 영상제작을 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이곳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율성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역시 연주회나 발표회 형식으로 제작예정입니다.

2. 홍보는 이렇게. 아파트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 입주밴드 가입으로 아파트 소식을 한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까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빈 공간을 무료로 돌봄센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뜻 내어주셨고, 해당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아파트 아이들이 센터와 아파트 공용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입주자 밴드에 가입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밴드를 통해 입소아동 대기자 현황을 바로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2) 아파트의 모든 어린이와 함께 1주년 솜사탕 파티

1주년 행사 및 할로윈 파티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앞 아파트 공용 놀이터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솜사탕 파티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내 학부모 및 내 아동들에게 센터 홍보가 되었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3)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다함께 돌봄센터 문을 활짝 개방.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센터의 특성상 입퇴실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5시에 귀가를 찍고 집에 가서 가방을 두고 쉬다가 6시에 다시 센터로 놀러오는 일도 다반사이고, 귀가를 했지만 놀이터에서 친구랑 노는 센터 어린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귀가하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돌봄센터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센터가 문을 닫는 7시까지 잠깐 와서 놀다 갈 수 있도록 센터를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어린이용 보드게임을 많이 무료로 대여해주어 보드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내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었고, 늦은밤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진정한 돌봄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 외부 아동의 센터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으며, 3~4단계에서는 센터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4) 주민들의 안 읽는 책은 기부 받습니다.

아파트의 주민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안 읽는 도서 및 교구를 기증받아 다양한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집에서 안 읽는 도서는 센터에 와서 나만의 새로운 동화책 만들기, 만들기 시간 작품재료 등 새로운 수업 재료로 탄생하였습니다. 센터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은 안 읽는 책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만족도를 높이는 학부모와의 요구 파악과 다양한 소통

센터 이용자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 자녀이기는 하나, 저소득층 보다는 생계의 위협이 적은 자영업이나 전문직이 많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신금초등학교는 전교생 350여명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돌봄교실이 3개나 있고, 아파트 인근에 대형복지관도 2군데나 있어 이미 돌봄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옆 동네의 학원가에 보내고 있어 경쟁력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외부특강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일반학원처럼 학교진도에 맞춘 학습지도, 입퇴실 카톡 전송이 되는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코로나 대비 세스코 방역, 전문 급간식업체 이용 등 양질의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	내용				
09:00~10:00	아침자유시간				
10:00~10:40 (20분휴식)	아침 학습시간 40분 / (개인 방학숙제 및 독서)				
11:00~11:40 (20분 휴식)	영어	한자8급	영어	한자8급	영어
12:00~13:00	점심시간 및 양치 (코로나 및 위생 점검시간)				
13:00~13:20	선생님과 키르기 스트레칭. 다함께 체육				
13:20~14:20 (20분휴식)	오후 학습시간 40분 / (큐브수학, 백점맞는 국어)				
14:20~15:00	동화구연	놀이체육	뮤지컬	창의보드	음악놀이
15:00~15:30	간식 시간				
15:30~16:10 (20분휴식)	오후 학습시간 40분 / (초능력 국어 독해)				
16:30~17:10	신나게 놀아요! 창의보드게임				
17:10~17:50	저녁 학습시간 40분 / (개인 학원 숙제 자율학습)				
17:50~18:00	귀가 및 정리				

(1) 다양한 소통채널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되,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로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용 비공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그날 먹은 간식, 수업활동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외부 홍보용 블로그도 틈틈이 소식을 올려 꾸준히 센터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2) 인근학원 연계로 빈틈없는 스케줄 관리

3월 새학기 1학년의 경우,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학교를 마치고 돌봄센터까지 혼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센터로 오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교문 앞으로 마중을 나가면 되었으나, 인근 학원에서 돌봄센터에 등하원 하는 아이들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시계를 볼 줄 모르는 1학년의 경우 학원차를 놓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에서는 엄마가 학원스케줄에 신경 쓰지 않도록 아이들의 스케줄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였습니다. 아동들의 휴대폰에 센터 연락처를 저장하여 무슨 일이 생길 때 바로 연락하도록 교육해 놓았고, 인근학원 연락처 원장님과 기사님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후 연계되는 아동들을 모두 조사하여 변경되는 스케줄에 바로바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사교육이 필요 없는 돌봄센터 만들기

본 돌봄센터는 아동 정원 20명에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2명, 한시적 돌봄선생님 1명, 대학생 멘토 1명이 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외부 특강 강사가 매일 40분간 수업을 해주고 있어, 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스케줄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부방처럼 1:1 학습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는 오전에 처리하거나 외부특강강사가 올 때 처리를 하고, 아이들이 집중되는 2시부터 5시까지는 센터장도 같이 아이들의 학습지도에 합류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돌봄선생님은 저학년 학습지도를 담당하고,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센터장과 대학생멘토는 고학년의 학습지도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의 학습습관을 무너뜨렸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처럼 40분 공부 20분 놀기로 시간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매일 받아쓰기와 독서를 진행하였으며, 시중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과 독해 책을 선정하여 매일 4바닥씩 나가도록 약속하고 스스로 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때는 선생님들도 같이 수업을 들으며 진도나 과제를 체크하였습니다. 특히 학습부진을 겪는 5~6학년 학생들은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중학교 진학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반 학원처럼 꼼꼼하게 관리하였습니다.



(4) 문화센터보다 더 알차게, 키즈카페보다 더 신나는 프로그램

① 외부강사 프로그램

울리아이꿈자람터는 동화구연, 놀이체육, 뮤지컬, 보드게임, 국악 총 5개의 정기적인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체육과 전통놀이를 결합한 국악수업, 다양한 게임을 배울 수 있는 창의보드게임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으로, 하루종일 센터에 있더라도 심심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즌별로는 요리, 생활용품 만들기 등 특강을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특강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아이들도 놀이위주의 특강이라 즐겁게 참여합니다.



② 자체 프로그램

울리아이꿈자람터에서는 매월 생일 파티를 열고, 생일파티에 맞춰 케이크만들기, 쿠키만들기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합니다. 어린이날이나, 할로윈 등 특별한 날에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과 의논하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영상으로 추억을 남겨둡니다. 방학때에는 돌봄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영어 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한시적돌봄선생님과 함께한 여름방학 영어퀴즈 수업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③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조금만 찾아보면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무료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운영한 생활과학교실, 부산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재능기부를 해준 풍선아트 체험, 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안녕소리야 예술체험 프로그램,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민주공원 만들기 수업, 해양소년단과 함께한 해양안전교실 등 1년 동안 알차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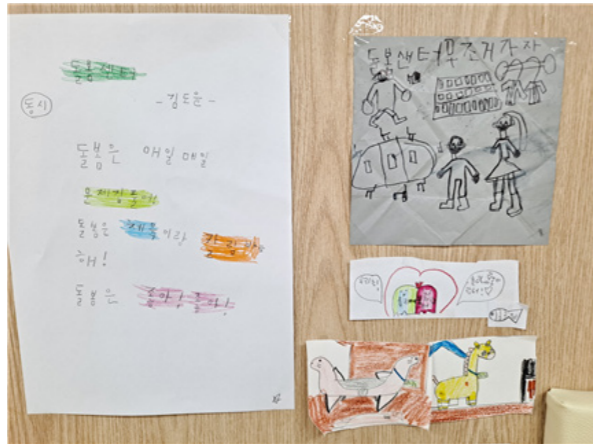


|||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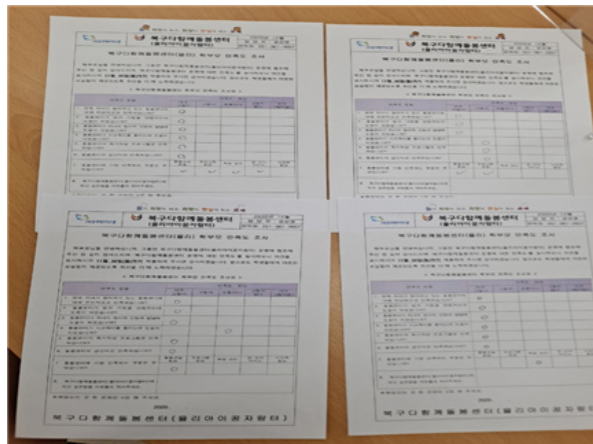
공부는 학원처럼, 재미는 키즈카페처럼, 휴식은 내 집처럼. 언제나 열려있는 아파트 속 도시맞춤형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부만 이용하는 돌봄센터가 아닌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센터로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색종이로 홍보 안내문도 만듭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늘 매우만족으로 답해주시는 학부모님들. 특히 늦은 시간까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은 물론 입퇴실이 자유로워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좋아하셨습니다.



센터 | 우수운영

돌봄센터 - 지역사회 공동체-지자체, ‘우리 다함께 돌봄’

인천광역시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돌봄센터-지역사회 공동체-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한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I 1. 여는 말 :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천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를 잡고 올해 3월에 개소한 돌봄센터입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공동체, 지자체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아래 센터장, 돌봄교사 2명, 그리고 10여 명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뽕뽕뽕뽕 생기 넘치는 아이들, 물심양면 협조해주는 학부모님들, 아동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알찬 프로그램, 열정 넘치는 종사자들 등 저희 센터의 자랑거리는 아주 많지만 그 중 이번 <전국! 다 돌 자랑>을 통해 소개할 내용은 바로 “돌봄센터-지역사회 공동체-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센터는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고민으로 이용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지역사회 공동체, 지자체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저희 센터가 그동안 지역사회 공동체,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온 사례는 매우 많지만 그중 이용아동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세 가지 활동을 소개하며 ‘다함께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센터를 자랑하려 합니다.

I 2. 우리 센터 자랑 : 센터-지역사회 공동체-지자체, ‘우리 다함께 돌봄’

1)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1 - <마을 도서관>과 함께 한 독도의 날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도 이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돌봄교사인 저도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독도에 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저 관련 영상을 보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뻔한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기대하고 좋아할 만한, ‘색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 교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였고, 그러다 센터 맞은편에 아파트 커뮤니티와 LH주택공사가 함께 만든 <마을 도서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준비가 한창인 도서관의 문을 망설이며 두드린 저희의 제안에 도서관 측은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도서관 코디네이터와 일정을 조율한 뒤 프로그램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도 3D 모형판 꾸미기, 독도 관련도서 소개 및 보물찾기, 독도 퀴즈대회 등의 색다른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게 되었고, 또한 아이들의 독도 3D 모형판 꾸미기 결과물과 도서관에서 제공한 독도 관련도서를 센터 복도에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도 기획하였습니다. 도서를 활용하는 콘텐츠의 경우 도서 자원에 한계가 있는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는 제공하기가 힘든데 마을 도서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하여 1) 독도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이고, 2) 작품+도서 전시회 개최를 통해 아이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으며, 3)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독도의 날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고취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4) 아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여기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5) 우리 센터와 곧 개소할 마을 도서관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야말로 ‘1석 5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마을 커뮤니티 주최의 할로윈 축제에 초대되어 함께 축제를 즐기거나 샌드아트 관람 같은 마을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상호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모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이용아동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활동사진1 - 작은 전시회



활동사진2 - 마을 도서관 방문

2)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2

- 그린캘린더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산해진미 플로깅 활동

두번째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의 예는 바로 인천광역시 서구와 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SK인천석유화학이 후원하는 <그린캘린더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지역 환경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로깅 + 페페트병뚜껑 수집'으로 이루어진 이번 활동에는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환경교육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11월 초, 쌀쌀해진 날씨에도 우리 아이들은 쓰레기봉투와 집계를 들고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몸을 사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였고,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나'부터 내 주변, 우리 센터 주변부터 깨끗이 정화해 나가면 언젠가 우리 지구 전체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심어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 공동체와도 친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아이들과 커뮤니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사진1 - 플로깅 활동1



활동사진2 - 플로깅 활동2

3) 지자체와의 협력 - 서구 가치 [키움] 프로젝트

마지막 지자체와의 협력의 예는 바로 <서구 가치 [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1) PET 리사이클링 가방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재활용'의 의미 알기, 2) 악세서리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의 의미 알기, 3) 전통 창의 체험키트를 활용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4) 초등 미니드론을 활용한 '4차산업' 이해하기, 5) 동화책을 통한 '사고력' 증진하기 등 총 5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차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1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 내 돌봄시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통하여 방과 후 교육 및 창의체험활동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양질의 제품을 지원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또한 저희 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매개가 되어 1)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2)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3) 내실 있는 지역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사진1 - 한지공예



활동사진2 - 드론체험

3. 맺는 말 : 우리의 미래는 여기, '돌봄센터' 서 자란다.

누구나 알다시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런 아이들을 이 사회가 다함께 돌보는 일은 사회의 유지와 다가올 밝은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개별 돌봄센터와 종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꿈인 '완벽한 돌봄'을 실현하는 일은 센터 하나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봄센터, 센터가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지자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앞으로도 센터 자체의 열정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그야말로 ‘다함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센터와의 협력으로 독도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도서관 정식 개관에 앞서 긴장된 마음을 풀 수 있는 고마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독도에 대해 알아보고 전시회도 진행해보며 독도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자는 프로그램 취지를 살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마을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방법과 에티켓도 알려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도서관 코디네이터 전**)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팔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또 엄마, 아빠랑 병뚜껑을 많이 모아서 모자란 친구들에게 나누어줘서 뿌듯했어요.”

(이용아동 김**)

“팔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동네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서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플로깅 활동을 또 해서 지구가 더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이용아동 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서구 가치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 센터를 생각하고 도움을 주시는 지자체가 있어 든든합니다.”

(돌봄교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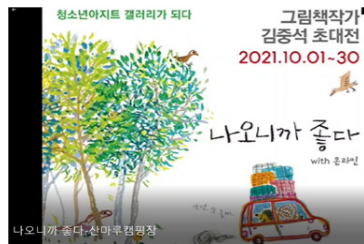
센터 | 우수운영

[나오니까 좋다] - 산마루캠핑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마루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산마루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나오니까 좋다]라는 그림책 전시체험을 센터 내로 들여와 산마루캠핑장으로 연계확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당연한 일상생활이 제약이 되어 스트레스가 과증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캠핑장을 꾸며가며 즐거움을 느끼고, 협력하는 모습,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정보를 나누며 아이들 개개인의 유의미함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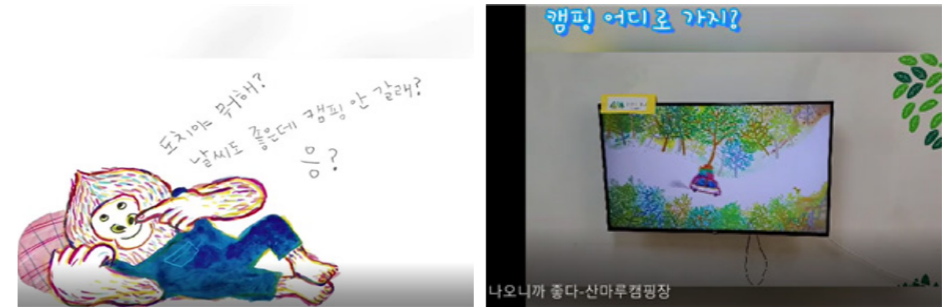
I 1. [나오니까 좋다] 그림책 보기



노원구 청소년이지트와 연계한 그림책작가 김중석 초대전에 산마루아이휴센터 아이들이 온라인초대되었습니다. 직접 그림책 전시도 보고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상으로 책을 만날 수 있었고 체험키트를 활용하며 책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만 없었다면 날씨 좋은 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캠핑을 떠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속에 캠핑을 떠나는 도치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산마루아이휴센터 아이들도 함께 산마루캠핑장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하며 돌봄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그림책 전시를 더욱 확장 시켜 실제 캠핑을 해보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즐기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자 ~ 이제 산마루 캠핑장으로 떠나볼까~



I 2. 같이 캠핑 가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쓰기

먼저 아이들은 캠핑을 함께 가고 싶은 가족, 친구, 선생님, 친척에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나 캠핑을 하지 못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산마루캠핑장에 초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편지는 산마루 우편으로 붙이고 친구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편지를 쓰면서 설레임과 즐겁게 지내는 상상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I 3. 작품속 캐릭터 색칠하기

[나오니까 좋다] 김중석의 그림책에 나오는 도치와 친구 그리고 캠핑카, 음식, 준비물 등에 색을 칠하며 어느새 그 안에 들어가는 꿈을 꾀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 과정 또한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으로 그 자체가 힐링이 되었습니다.



4. 나만의 캠핑장 꾸미기

이제 산마루캠핑장을 꾸며볼까요? 돌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캠핑장 벽면에 그림책을 전시하였고,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단풍잎도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구워먹을 고기와 야채도 만들었습니다. 캠핑장비를 들고와서 텐트도 치고 의자도 펴놓고 아이스박스를 옮기고 불명을 할 수 있도록 화로와 장작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함께 짐을 옮기며 서로 돕는 모습은 협력을 풀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5. 함께 캠핑하며 힐링하기

이제 산마루캠핑장을 예쁘고 멋지게 꾸며놓았으니 친구들과 함께 힐링하며 즐겨볼까요?



아이들은 모닥불 위에 고기를 구우며 고기가 잘 구워졌는지 수시로 뒤집어가며 이야기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내가 굽는 고기 이야기 하고 친구가 굽는 고기도 잘 구워지는지 보기도 하고 맛있게 구워지는 색깔도 표현해 보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캠핑을 준비하다가 잠시 텐트 속에 들어가 누워 편안히 쉬기도 합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캠핑장은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텐트 속에 불을 켜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도란도란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낮에는 신나게 캠핑을 하고 밤에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설정하며 이어나가는 캠핑의 모습입니다.

신나게 놀고 난 후 아이들은 피곤한가 봅니다. 어느새 누워 잠이 들고 한 아이는 초롱불을 벗삼아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고기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먹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네요. 잠시 나만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친구는 일찍 일어나 학교, 센터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서로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마루캠핑장에 아이들이 센터장님과 돌봄선생님을 초대했어요. 고기도 구워주고 쏘세지도 구어 주고 협력하며 대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흡족하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핑장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책 한 권을 들고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의 배경지식과 교양이 쑥쑥 쌓여갑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캠핑을 즐깁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배가 고파오나봅니다. 또다시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굽고 각자가 할 일을 찾아 자연스럽게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협력하는지 아이들은 스스로 터득합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큰아이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상황으로 등교도 미뤄지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제대로 못해보고 입학하게 되어 1학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올해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이가 학교생활도 담임선생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초등 돌봄교실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 방학도 길어지게 되어 초등 돌봄교실이 코로나 상황으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서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개인도시락도 지참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던 중 우연히 노원구 산마루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를 알게 되어 2학년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산마루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모습이 진짜 아이들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가 너무 좋다는 말을 계속 하면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적응도 잘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2학년 여름방학부터 다니기 시작한 산마루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매달 진행되는 프로그램내용을 보니 알차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도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너무 재미있어 해서 학원스케줄도 변경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을과 어울리는 캠핑체험이었습니다.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캠핑체험을 하게 된 날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주셔서 보니 센터 한쪽에 각종 캠핑도구와 텐트를 설치해놓고 실제로 캠핑을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꾸며놓은 게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가족끼리 캠핑을 많이 가지만 저희 아이는 가본 적이 없어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고 캠핑을 가 본 아이에게도 실내 캠핑체험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캠핑체험을 하고 오던 날 저에게 신이 나서 조잘조잘 계속 이야기 하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역할놀이도 하고 캠핑도구로 놀고 '나오니까 좋다'라는 책으로 그림도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캠핑체험을 하니깐 실제로 캠핑을 가보고 싶다고도 말하면서 정말 캠핑을 가야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체험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캠핑체험을 비롯하여 소풍, 할로윈파티, 요리체험 등등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걱정반기대반으로 보내게 된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였는데 이제는 정말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아이가 돌봄을 계속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이들에게 신나는 행복을 주는 산마루 아이휴센터(다함께 돌봄센터) 항상 응원합니다~^^

(정** 보호자)



센터 | 우수운영

코로나 블루 No No~~ 함께 해서 더 즐거워요^^

충청남도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센터

시골마을의 옛 보건지소 건물이 돌봄센터로 거듭나다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센터는 2021년 1월 서산시에서 두 번째로 개소한 돌봄센터로 2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건립된 시골마을 보건지소가 이전하면서 비어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아동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대부분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 홀로 있는 실정으로 마을의 돌봄센터 설치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지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일 년간 센터를 운영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센터 전경

“마늘 수확할 때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하니깐...애기 혼자 집에 있는데 센터에서 끝나고 데려다 주니까 너무 좋아요.”(***)보호자)
 “전에는 애가 학교 끝나고 항상 혼자 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놀고 오니까 좋아요.”(***)보호자)

긴급돌봄 기간에도 모든 아이들이 센터로 오다

COVID-19로 인한 긴급돌봄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센터를 이용하였기에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아이들과 함께 할 즐겁고 특별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센터의 지역적 특성상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시내권에 사는 아동에 비해 학습의 기회나 체험의 기회가 적고,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 부석센터에서는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한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아동의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도모하는 창의사고력향상 프로그램, 사회적 연결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결핍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정서를 함양시키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그들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센터의 모든 활동 및 프로그램은 센터 내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바깥 활동은 센터 단독 활동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한 한 해였습니다.

창의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





“**이가 자꾸 일찍 데리러 온다고 뭐라고 하네요.”(** 보호자)
 “선생님 요즘은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초4 ***)
 “로봇과학이 재미있다고 그날만 기다려요. 재미있는 프로그램해주셔서 감사해요.”(** 보호자)
 “**이가 요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왜 자기 안오는 날 하나며 물어보더라 구요.”(** 교사)

“이제는 아이들이 알아서 소독을 잘해요. 스스로 체온을 재고 선생님 저 높아요? 하며 다시 재기도 해요.”(** 교사),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인데 당연히 소독해야지요.”(의용소방대 ** 보호자)
 “선생님, 저 손 씻었는데 소독 또 했어요.”(초1 ***)

Ⅰ 마을 주민 & 마을 기관과 함께 나아가요

◎ **마을 모두가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긴급돌봄 실시에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 가정 내 마땅한 돌봄인력이 없어 아이들이 센터를 계속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기에 센터에서는 더욱 더 방역에 신경 쓰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자체소독과 2회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고, 손세정제,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상시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복지관의 방역물품 지원, 서산시 보건소와 부석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에서 실시하는 정기소독을 통해 마을 모두가 아이들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 「**실제인가! 연습인가?**」실전같은 안전교육

안전교육

어떠한 안전사고에도 종사자와 아동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서를 토대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월 3회), 소방대피훈련 실시(년 6회),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전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교육 시 다 아는 내용이라며 통명스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도 때로는 있지만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보며 금세 흥미를 보이고는 합니다. 다함께돌봄 부석센터에서 일상이 된 안전교육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의젓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소방대피훈련

사이렌 소리에도 움직임이 없고 주섬주섬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신발을 신던 아이들이 이제는 10초 안에 맨발로 건물을 모두 빠져나가 대피 장소에 모이는 모습을 보며, 일상에서 화재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피 후 사후 이야기 시간에도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피 시 유치원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한층 성숙된 아이들의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함께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소방대피훈련

심폐소생술(CPR)교육

지역사회 기관인 부석면 안전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육이 아닌, 소그룹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아이들 한명 한명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교육담당 소방관으로부터 언제든지 부석면 안전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반복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함께 안전교육



심폐소생술(CPR) 교육

“선생님~ 저 이제 사람 살릴 수 있을거 같아요.”(초3 ***)

“여러 번 교육을 받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당황하지 않고 하려면 정말 여러 번 교육을 받는게 맞는거 같아요.”(돌봄교사 ***)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든 안전센터로 오시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Ⅰ 가정과 함께해요^^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한 시골마을에 외부인인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마을분들에게 낯설고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이에 돌봄센터 교직원들은 마을 주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아이들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챙기고 소통하며 차츰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센터의 활동을 가정으로 연계하여 기념일의 의미 알기, 인증샷 올리기 등을 진행하여 센터의 활동에 가정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 또한 센터 활동에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알고 광복절날 태극기 게양 인증샷 보내기, 센터에서 친구와 함께 하는 생일파티, 복날 이벤트로 꼬꼬면, 닭다리 스낵, 삼계탕 등을 뽐낼 수 있는 추억의 뽐기대회, 빼빼로데이에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하트 꽃꽂이,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대해 알고 라이스클레이로 떡만들기와 내가 키운 버섯으로 추석에 음식해보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버섯을 키워 추석날 잡채를 만들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센터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가정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센터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함께 키워요~



광복절 이벤트

복날 이벤트



오늘이 복날인지도 몰랐어요. 재미있는 활동에 센스있는 선물까지 감사해요”
 (***) 보호자)
 “집에서도 못해주는 생일파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가 오늘을 오래
 전부터 기다렸어요.” (***) 보호자)
 “선생님 저 오늘 생일파티날이에요. 너무 좋아요.” (만5세 ***)
 “버섯이 쭉쭉 자라서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추석에 버섯을 잘라 잡채 만들었어요.”
 (***) 보호자)
 “와, 빼빼로다. 선생님 빼빼로는 제가 먹고, 꽃은 엄마 즐겨요.” (초3 ***)

“선생님~ 조개 주우러 바다에 또 가요.” (초1 ***)
 “아이들이 직접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고 그걸 이용해 결과물을 만드니 더 집중
 하고 즐거워했어요” (***) 교사)
 “선생님, 꽃 심어서 돌봄센터가 더 예뻐졌어요” (초3 ***)
 “오늘 바다 갔다왔다고 좋아하더라구요. 코로나 핑계로 가까운 바다 한번 못갔는데
 정말 좋았나봐요” (***) 보호자)
 “아이들이 밭에서 직접 썬을 캐서 씻고, 반죽한 후 부침개를 부치니 재밌었나봐요.
 또 하자고 하더라구요” (***) 교사)

우리 마을은 멋진 교육터

부석센터가 위치한 서산시 부석면은 태안 바닷가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던 시
 기...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조개를 주워왔습니다. 주워 온 조개로 조개리스를 만들고 센터
 에 전시하며 뿌듯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볍게 바닷가를 거닐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아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또한 앞마당을 이용하여 텃밭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며 매일
 농사일을 하시는 조부모님, 부모님의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아동 학부모님의 영어프리토킹 수업으로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
 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거부감없이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기관은 아이들의 멋진 친구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목표 아래 부석센터에서는 서산시 부석면 119안전센터, 서산시 가족센터, 서
 산시보건소, 부석면 농촌전통테마마을 빛들마을,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의 프
 로그램을 계획·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센터 내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는 위기상황 대처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산시가족센터에서는 아동의 스스로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법,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아동의 학습역량을 높이고, 우리 사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산시보건소와의 연계로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농촌 공동체 문화함양을 위해 설립된 부석면 마을주민 모두의 기관인 빛들마을과의 연계로 치즈 만들기 활동을 경험하여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다양한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만든 치즈를 직접 먹어보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교대진학을 희망하는 부석면 거주 고3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멘토-멘티링을 진행하여 학습지도 및 즐거운 놀이상대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석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지역사회 방역체계 인프라 구축 및 대응자를 위한 마음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손소독 및 온도측정기, 배부식 자동분무기, 방역소모품세트를 지원하여 센터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지역사회

부석면 119안전센터[방역활동]

서산시 보건소[흡연예방인형극]

부석면 빛들마을[치즈만들기]

서산시 가족센터[자기주도학습, 상호문화이해교육]

석림 종합사회복지관[방역물품지원]

“선생님 인형극 재밌었어요. 담배는 피면 안되는거죠~.” (초1 ***)
 “선생님 우유가 치즈로 변하는게 신기해요.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초3 ***)
 “선생님, 일본은 나빠요. 근데 나쁜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래요.” (초1 ***)
 “아이들이 처음에는 집중하지 못했는데 조금씩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활동적인걸 좋아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오시니까 아이들도 차츰 적응하는거 같아요.” (***) 교사)

Ⅰ 종사자도 쉬을 가져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돌봄교사란 직업이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한 직업이다보니 선생님들께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소진을 경험합니다. 이에 다함께돌봄 부석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개최하는 팸파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서산복지재단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작은 선물로 기쁨을 드려 종사자 소진예방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서산시가족센터	직원수(명)	4
담당자	김영진	연락처	

신청자 명단			
연번	이름	직책	희망상품
1		돌봄교사	<input type="checkbox"/> A세트 <input type="checkbox"/> B세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C세트
2		돌봄교사	<input type="checkbox"/> A세트 <input type="checkbox"/> B세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C세트

종사자의 쉬 지원

안녕하세요
네일명농장입니다
10월28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할로윈팸파티 진행합니다.
돌봄교실생들을 초대하려합니다.
4분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

4명입니다 오후 2:29

신청하시는 두분 성함과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오후 7:14

오후 7:29

감사합니다 **

오후 7:30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지원사업

힐링 팸파티 참석

I 일년을 되돌아보며....

어느덧 아이들과 생활한 시간이 일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만해도 낯설어하고, 마음을 내어주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던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선생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간식도 챙겨 먹으며 더 밝은 웃음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는 조금 늦게 일어나고,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게 아이들 마음인데도, 매일매일 센터에 와서 방학숙제하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농촌지역은 농사일로 바빠 아이들을 살갑게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으로 서산시 부석면은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모두 방과 후 아이들 돌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방치되는 농촌마을에 돌봄센터가 많이 설립되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이들도 센터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꿈을 찾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개소 후 첫 해라 이것저것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어떤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시도해보는 한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의 활동들을 기반 삼아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심도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도 아직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미숙한 아이들입니다. 지역, 가정환경 등에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센터 종사자 모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시골이라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 보호자)

“활동하며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사 **)

“아빠가 3D펜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사줬거든요. 돌봄에서 해서 좋아요.”

(초1 ***)

“집에 가면 혼자 TV봐요. 집에 늦게 가고 싶어요.”

(초4 ***)

“애들이 일찍 데리러 오면 싫어해요. 그래서 차에서 기다렸어요. 돌봄을 너무 좋아해요.”

(*** 보호자)



센터 | 우수운영

‘놀이의 주인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중심교육 과정은 1920년대에 듀이(Dewey)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태동한 교육과정의 한 사조로서 아동의 흥미와 자발적 활동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동 중심 교육과정관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생각은 “만약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그 아동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은 스스로 배우기를 원할 때 가장 잘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만약 아동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아동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자기 충족감은 증진되며, 이것은 바로 학습에 대한 만족과 다음 단계의 학습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 정신은 멀리 아동의 심성을 선한 것으로 본 루소(Rousseau)의 낭만주의적 아동관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1960-70년대에 대안적 교육과정 운동으로 나타난 자유학교 운동, 열린교육 운동 등도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통합 노력도 아동중심 교육과정 정신과 관계가 깊다.¹ 중랑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위의 교육이론이 아동의 놀이학습에 적합한 이론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추구하는 아동최우선의 원칙(5C)을 통해 아동 존중과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¹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중심 교육과정 [兒童中心教育課程, child centered curriculum]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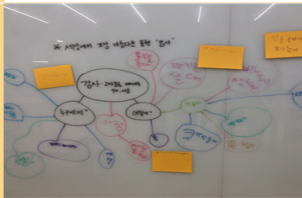





〈 아동 최우선 원칙(5C) 〉

- 아동주도(Child-directed)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 ‘돌봄 받는 아동’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아동’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자율성에 근거한 돌봄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정해진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의성(Creativity)을 향상시켜주는 프로젝트
 - 키움센터가 창작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작업실(Makers space)’이 되도록 아동들이 센터 내 재료와 기술,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제작과 표현 활동을 하도록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신감(Confidence)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돌봄선생님은 아동에게 정서적·동기적 측면의 배려와관심을 가지되 직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지양하며, 아동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경험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로 동기부여에 힘을 실어주도록 함
- 협력(Collaboration)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센터 내에서 또래들과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문제해결 및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에게 마을공간에서 어울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
- 지역사회(Community)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 기존의 ‘한정된 공간에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밀접하게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배움 활동(Project-Based Learning)을 위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함

‘출처: 2021년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메뉴얼’

위와 같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추구하는 아동최우선의 원칙(5C)인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협력, 지역사회라는 요소가 주는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중랑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아동주도선택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교사는 평소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관심가지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그 중 5개의 대표사례(빨대블록구성놀이, 문화행사-감사의달(5월), 추석 나눔행사, 캠핑놀이, 농업인의 날)을 소개하며, 아동주도선택놀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서술하려한다.

사례1. 빨대블록구성놀이			
일시	2021년 3월		
목표	놀이를 통해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느낌을 감각적으로 탐색한다.		
아동최우선 원칙(5C)충족 요소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협력		
진행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즘 유행하는 빨대블록으로 놀이하고싶다는 아동의 의견제시를 수용한다. 2. 빨대블록으로 각자 표현하고 싶은 모양을 평면구성물로 구성한다. 3. 자연관찰 와이책을 본 후 새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집들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야기 하며 '새 집'이란 입체구성물을 만들어 구성한다. 4. 센터 친구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자는 친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모두 협력하여 작품명'우리 집'이란 입체구성물을 만들어 역할놀이 한다. 		
평가	<p>빨대블록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조작활동과 신체의 전체부위를 움직여 구성함으로써 대소근육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며, 아동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구성해야 원하는 모형이 나올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기억력,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p> <p>또한 혼자서 아닌 또래와 협력하여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거야?" 등의 열린 질문을 하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법 등 협력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p> <p>끝으로 성취감을 크게 느끼며, 자신이 느낀 만족감을 언어와 비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p>		
주요활동사진	 <p>평면구성 - 애벌레 얼굴</p>	 <p>입체구성 교사와의 협력- '새 집' 만들기</p>	 <p>입체구성 아동간의 협력- '우리 집' 만들기</p>
	 <p>입체구성 아동간의 협력- '우리 집' 만들기</p>	 <p>협업하여 만든 '우리 집' 구성물로 함께 놀이하기</p>	

사례2. 문화행사-감사의달(5월)			
일시	2021년 5월 4일(화), 7일(금)		
목표	감사의 달을 맞아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친구와 함께 과정에 참여하여 감사의 의미를 경험한다.		
아동최우선 원칙(5C)충족 요소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협력, 지역사회		
진행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의 달을 맞아'감사'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한다. 2. 감사를 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아동들이 센터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3. 회의 후 코로나로 인해 비누 감사선물과 어두운 복도를 꾸며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한다. 4. 자료조사를 통해 감사비누 만드는 법과 재료를 결정하고 조사 실시한다. 5. 함께 감사비누를 만들고, 완성된 비누를 포장한다. 6. 센터 주변 이웃들이 일하는 사무실(경비실, 학원 등)에 방문하여 감사비누 전달한다. 7. 자유놀이 시간에 전구를 이용한 조명을 만들어 공동복도를 장식하여 밝혀줌으로써 같은 층 이웃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8. 소감을 발표하고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p>아동들이 한 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p> <p>또한 함께 기획 및 실행하는 과정동안 양보와 타협 등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p> <p>코로나로 비대면상황이 지속되면서 관계의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주변을 돌아보며,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함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p> <p>더 나아가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감사대상과 영역,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확장된 시각을 가진 첫 걸음이 되었다.</p>		
주요활동사진	 <p>의견 마인드맵</p>	 <p>자료 조사</p>	 <p>비누 만들기</p>
	 <p>비누 만들기</p>	 <p>비누 포장하기</p>	 <p>이웃전달하기</p>



사례3. 추석 나눔행사


일시	2021년 9월 14(화), 17(금)
목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알고, 감사한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추석 행사를 경험한다.
아동최우선 원칙(5C)충족 요소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협력, 지역사회
진행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석과 연관된 책놀이 후 추석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한다. 2. 추석 마인드맵 중 아동들이 추석 나눔을 하고싶다는 의견 수렴한다. 3. 나눔 대상, 나눔 방법 등 의견 수집의 시간을 가진다. 4. 아동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나눔 계획을 논의하고 나눔 대상자와 나눔물품을 결정한다. 5. 모둠으로 나누어 구체적 정보를 수집(맛강정 재료, 맛강정 레시피, 주변 선별진료소 조사 등)한 후 역할분담을 통한 실행과정에 참여한다. 6. 기관에 연락 후 전달식 일정 등에 관한 약속을 정한다. 7. 조사한 레시피대로 아동들이 협업하여 맛강정을 만든다. 8. 아동주도하에 업무분담 후 맛강정과 선물 포장, 편지활동에 참여한다. 9. 코로나전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센터장과 교사가 센터를 대표하여 '중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아동들이 준비한 추석선물을 전달한다. 10. 센터장은 아동들에게 추석선물 전달식과정을 사진자료로 준비하여 결과보고 한 후 평가의 시간을 가진다.
평가	<p>아동들이 이전의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진지한 태도로 과정에 참여하였다.</p> <p>역할분담의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p> <p>아동들은 우리나라 고유명절 '추석'에 가을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우리나라 전통풍습에 맞춰 감사한 분들과 나누고자 직접 추석행사를 기획, 구성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며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추석선물 전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매우 아쉬워하며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p> <p>아동주도놀이의 종류와 횟수가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자기주도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아동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안전한 상황 내에서 아동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p>



사례4. 캠핑놀이

일시	2021년 10월 19일(화), 20일(수)
목표	친구들과 함께 가을 캠핑 놀이를 하며, 캠핑 문화를 경험한다.
아동최우선 원칙(5C)충족 요소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협력
진행과정	1. 가을 캠핑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센터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싶다는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춰 센터 내에서 캠핑놀이를 하기로 결정한다.

진행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아동들과 캠핑놀이에 필요한 활동자료를 함께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3. 준비된 자료를 아동들에게 제공하자 아동들이 협력하여 함께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 및 주변 환경을 꾸미는 과정에 참여한다. 3. 추가 의견이 나와 즉석에서 모닥불을 구성하고 캠핑 역할놀이 한다. 4. 텐트 안과 밖의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캠핑간식(닭꼬치, 핫도그)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5. 센터 캠핑장 앞마당공간에서는 텃밭을 가꾸는 텃밭놀이에 참여한다. 6.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명을 끄고, 캠프파이어 상황극 후 텐트 내외공간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과 수건돌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 7.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캠핑놀이 둘째날, 모닥불(구성물) 주위에 모여 아동들의 신청곡을 받고 음악에 맞춘 댄스파티를 하며 캠핑놀이를 마무리한다.
평가	<p>아동들이 자신의 가족과 캠핑경험을 바탕으로 텐트와 주변 환경을 꾸미는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주도하여 역할을 정하고 분담하는 과정과 의견 제시 모습이 한층 자연스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p> <p>아동들은 캠핑놀이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 캠핑놀이때 먹을 간식, 캠핑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상황극 등을 스스로 정하는 과정이 있어 캠핑놀이가 더욱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p>
주요활동사진	 <p>텐트 꾸미기 모닥불 만들기 역할놀이</p> <p>간식 먹기 텃밭 놀이 보드게임</p> <p>수건돌리기 댄스 파티 캠핑놀이</p>

사례5. 농업인의 날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1일(목)
목표	'농업인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알아본다. 우리 먹거리 가래떡을 알아보고, 가래떡을 이용한 요리활동을 경험한다.
아동최우선 원칙(5C)충족 요소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진행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이야기 나누던 중 '빼빼로 데이'와 함께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가래떡 데이' 행사를 한다는 말에 많은 아동들이 흥미를 보여 함께 '가래떡데이'를 구성한다. 2. '농업인의 날'과 '가래떡 데이'에 대해 알아보며 이야기 나누기한다. 3. 가래떡을 이용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가래떡 요리를 선택한다. 4. '가래떡 빼빼로와 파베기' 요리 순서도에 따라 직접 요리과정에 참여한다. 5. 자신이 만든 가래떡 요리를 소개하며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다. 6. 가래떡을 빼빼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먹고 싶다는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포장된 가래떡을 집에 가져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선물하고 나누는 사후활동을 하기로 약속하며 마무리한다. 7. 다음날 함께 평가의 시간을 가진다.
평가	<p>아동들이 '농업인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가래떡데이' 행사 생긴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가래떡데이 행사에 참여하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날'을 알리는데 이바지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p> <p>평가시간에는 가래떡이 생각보다 맛있었으며, 가족들도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선물받는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다며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념일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는 평가도 있었다.</p>
주요활동사진	 <p>농업인의 날 알아보기 가래떡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가래떡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p> <p>가래떡을 이용한 음식 완성 맛있게 먹기 가래떡 나누기</p>

다음의 사례와 같이 아동중심, 놀이중심 활동 전개를 통해 아동의 자발적 흥미와 요구에 맞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며, 함께 마음껏 놀이함으로써 질서, 배려, 협력의 과정을 통해 사회성 발달 및 바른 인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랑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이용아동들이 편하고 즐겁게 놀이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센터의 주인인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노력하며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아직도 교사주도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어 늘 아쉽지만 아동들과 함께 지금처럼 아동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아동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해준다면 교사와 아동들 모두 함께 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더욱 풍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보호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집에 빨대블록이 있지만 블록작품을 크게 만들지 못해 아쉬웠는데 센터는 넓어서 제 방만큼 크게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떤 모양의 작품을 더 만들지 설계도를 그려서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동 1)

감사의 달 행사로 쿠키 만들기과 비누 만들기가 재미있었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쿠키를 만들어 아파트 경비아저씨랑 아랫집에도 드렸어요. 평소에 집에서 동생이랑 많이 뛰거든요. (아동 2)

엄마가 코로나로 캠핑을 못간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센터에서 텐트 치고, 그 안에서 간식 먹으면서 노니까 간식도 더 맛있는 것 같고, 진짜 캠핑 온 것 같고 너무 재미있어요. 동생한테 센터에서 캠핑 갔다고 이야기 하니 엄청 부러워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아동 3)

가래떡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11월 11일에 가래떡만 먹을래요. 농부 아저씨들이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한테도 가래떡 먹으라고 할게요. (아동 4)

00이 최근에 아빠가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 가보지 못한 캠핑 이야기를 많이 하며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센터에서 친구들과 캠핑놀이를 통해 진짜 캠핑을 한 것처럼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보호자 1)

센터에 다니면서 감사와 나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 같아요. 아이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네요. (보호자 2)

빼빼로 데이로만 알고 있던 11월11일을 가래떡데이로도 기념한다는 내용의 교육과 함께 가래떡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만 물든 **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3)

센터 | 우수운영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미래의 주인공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I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홍보

◎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홍보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를 알리고 지역 아동을 모집하기 위하여 주변 초등학교와 어린이 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초등학교 e-알리미에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지역거점센터 부재로 토요일돌봄 수요를 예상, 토요일돌봄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용산구청 누리집에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물



초등학교 e-알리미 안내문



토요일운영 안내문

◎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일일수업

주변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해보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입소 신청 전에 일일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변 초등학생 아동과 학부모님이 함께 방문하여 수업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I 온마을 돌봄 지역기관연계 및 기관선정 프로그램

◎ 건강하고 즐거운 아동참여형 신체놀이

최초의 아동참여형 놀이터인 '도담도담 실내놀이터'가 센터 바로 옆에 개소하여 협약을 통해 지역기관 연계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산6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아동 중 4명이 직접 디자이너로 참여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즐거움도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갈 곳이 없어진 아동들의 정기적 실내놀이가 가능하여 신체놀이 욕구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 함양

구청에서 신청하여 재배하게 된 작은 텃밭상자들이 있었는데 아동들이 텃밭활동을 좋아하게 되면서 더 다양한 활동이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한 먹거리교육과 식생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자립형 식생활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되어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계절별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등의 텃밭활동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안전조리활동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어린이 자립형 식생활

안전조리활동

우리들의 텃밭

◎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탐방

코로나-19로 소풍도 수학여행도 모두 중단된 세대인 우리 아동들에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견학의 기쁨을 알려주고자 지역사회 기관인 '용산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 용산구 관내 키움센터들이 함께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해설사님과 동행하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테마로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복사탑중창비, 기차가 지나가는 백빈건널목(땡땡거리), 새남터순교성지, 용산도시기억 전시관을 탐방하고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땡땡거리 미션

◎ 우리가 선택하는 식재료와 지구에 대한 고민

우리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하는 마을공동체 효창동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와 협약을 맺고 용산생협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아 건강한 재료들로 간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전지구적인 위협인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식재료가 지구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플라스틱과 쓰레기의 침범으로 죽어가는 바다생물들, FAD와 부수어획으로 희생되는 어류들과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채낚기 어업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간식이 비록 알록달록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구를 살리는 소중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끼간식 건강한 쿠키

환경교육

건강한 참치샌드위치

◎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력

용산구에는 용산혁신지구 마을강사인 '마을꿈샘'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꿈을 쫓게 하는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용산마을교육연구회에서 고민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참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을꿈샘과 용산구 관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협약을 맺어 센터의 아동들에게 마을학교의 생태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생태프로그램인 커피화분 만들기과 태양열 자동차 만들기를 시범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꿈샘 커피화분

마을꿈샘 커피화분

마을꿈샘 태양열 자동차

◎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을 고취시키고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새해 소망 무드등을 만들어보며 가족과 행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 교육도 직접 그 나라의 선생님께서 진행하여 아동들이 궁금해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긴급돌봄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길어지고 덥고 습한 여름 날씨 속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보는 수업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성교육도 하였습니다.



새해소망 무드등

다문화 교육

손소독제 만들기

◎ **안전과 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분기별로 '광나루안전체험관', '용산소방서'와 함께 응급처치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6회의 인성교육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실시, 2회에 걸쳐 아동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전문강사와 실시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알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회에 걸친 경제·신용교육으로 아동들이 용돈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재미있는 인형극과 마술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님과 아동을 매칭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 **영어 스토리텔링,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수업, 어르신 강사 프로그램**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초·중·고 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회리더로 발전하는 봉사프로그램인 '서울동행'과 함께 영어스토리텔링 수업을 주 1회씩 10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선생님의 정성스런 수업 준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동안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고 아동과 학부모님들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콘텐츠를 공급받아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8씩 두 번 국어, 체육, 다양한 창의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설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이접기 수업에 대한 요청으로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어르신 강사이신 투투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동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종이접기 활동으로 아동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OOHO 물병 만들기

영어스토리텔링

투투선생님과 종이접기

건축교육 상상놀이터

국어재능기부

◎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매개로 한 기관 단체 프로그램

코로나-19로 모든 문화생활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아동들이 방문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와 문화, 만들기를 좋아하는 우리 센터의 아동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나섰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더 많이 경험하게 하고자 다양한 박물관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찾고 연결하여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찾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문화교육들을 비대면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계천박물관 판자집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연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수표교 서울생활사 박물관 서초농업기술센터 새싹채소

Ⅰ 아동주도 프로그램

◎ 친구야,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

학기 중에 학원이며 과외로 바쁜 아동들이 시간이 나는 유일한 시간, 방학입니다.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조직하였습니다.

동아리 계획서도 작성하고 영상도 직접 제작합니다.

동아리를 선정하고 동아리원을 모집하는 모든 과정을 아동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방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톱모션 영화도 상영하고 칼림바 동아리는 연주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종이 스톱모션 동아리 칼림바 연주 동아리 레고 스톱모션 동아리

◎ 우리가 만들어 가는 놀이

아동들이 주도하여 만들어 가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이나 의자왕 게임, 좌식피구나 딱지치기 등을 계획하여 놀이를 아동이 주도합니다. 놀이를 위한 소도구도 직접 만들어 오며 놀이에 꽤나 적극적입니다.



좌식 피구 마피아 게임 딱지치기 왕중왕
 레고 부시지 마시오 보드게임 Zone 박스 자동차

I 아동 맞춤 센터 특화 프로그램

◎ 놀이로 배우는 입체수학

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재미있는 입체수학 시간입니다. 수학의 이론이나 내용을 즐거운 놀이로 배우고 연계활동을 하며 마무리 하는데 언제나 인기만점인 우리 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뫼비우스의 띠



다면체의 순환



인피니티 큐브

◎ 영화와 함께 키움아틀리에

미술전시관에 가야 만날 수 있었던 영화프로그램을 용산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키움아틀리에에서 영화를 배우고 다양한 영화따라잡기를 통하여 작가의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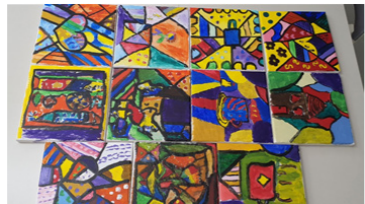
앙리 마티스 컷오프



로메로 브리토 팝아트



에바알머슨 행복한 미소



◎ 독서 이력제

책을 좋아하는 아동들이 평소 읽는 책을 기록하기 위해 독서통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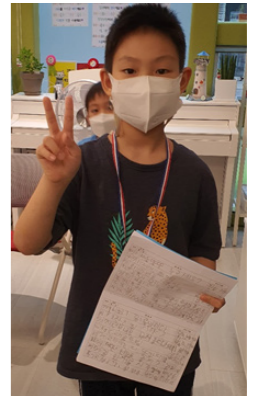
복잡하고 어려운 형식을 탈피하고 책 제목과 작가만 적는 방식으로, 하루에 두 권 이하로 읽으며 100권, 300권, 500권이 되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적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과가 된 이유는 금메달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100권 기념 금메달



책읽는 아동들



기념 사진

◎ 반려식물, 반려동물에 진심이에요^^

언제나 아동들에게 반응이 좋은 원예수업입니다. 심고 가꾸고 키우면서 우리도 함께 영글어 갑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신기하고 뿌듯해서 말이 많아지는 아동들 덕분에 초록 가득한 센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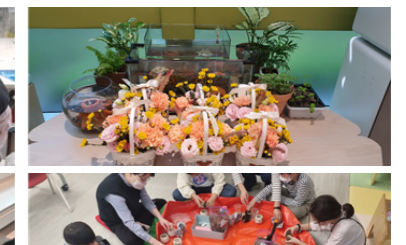
마리모와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는 아동들의 요청으로 구피를 마리모 어항에 넣어주었는데 갑자기 새끼를 낳는 바람에 어항을 장만하고 아동들과 함께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날이 갈수록 구피 식구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키운 히아신스



구피들의 보금자리



다육이 화분 꾸미기



I 아동과 함께 만드는 요일별 센터 자체 프로그램

◎ 월요일 키움뮤직

처음 센터를 개소했을 때 선생님들의 고민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즐거운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음악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친구가 되어 줄 악기를 배우며 행복도 함께 키웁니다. 현재는 우쿨렐레와 칼림바를 배우며 피아노 개별 연습 시간도 가지며 가야금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쿨렐레 개인 연습



우쿨렐레 합주



부모님 선물 칼림바연주 녹음

◎ 화요일 키움아트

개소 초기 아동들이 가장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을 경험하게 하고자 정기적인 창의 미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클레이공예 다육화분



수채 캘리그래피



아동주도 입체미술



종이입체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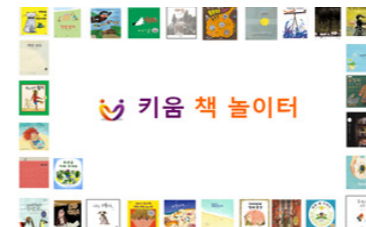
여름바닷가



지점토 트레이

◎ 수요일 키움 책놀이터

입소 학부모님 설문지에 빠지지 않고 독서 눈술 수업이 요청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책 읽는 부담과 눈술을 생략하고 책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바탕으로 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독후활동 때로는 연계 활동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더하였습니다. 매주 새로운 즐거움의 연속인 책놀이터는 우리 센터의 자랑입니다.



키움 책놀이터 인트로



'달 샤베트' 팝업북



'작은 집' 비누만들기



키움 도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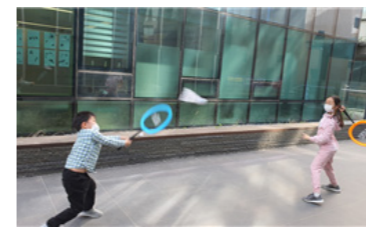
'노란 우산' 북아트



'문어목욕탕' 스톱모션

◎ 목요일 키움신체놀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체놀이 시간입니다. 센터 외부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실내에서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아야 하는 아동들의 에너지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즐거운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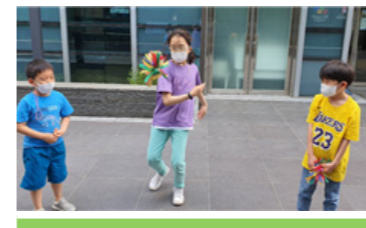
실외놀이



스트레칭, 댄스댄스



실내 신체놀이



◎ **금요일 특별활동 또는 Special day**

금요일은 안전교육 및 특별활동 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푸드테라피



영화감상



소방대피훈련

! **어서와, 이런 일주일은 처음이지? Special week!**

◎ **크리스마스 Special week!, 작은 전시회**

아동들이 생일, 어린이날 다음으로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를 Special week로 만들어 주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우쿨렐레 연주영상을 촬영하여 부모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고 2주간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재미있는 활동과 파티를 합니다.

우리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도 하였습니다. 작은 전시회는 1년에 두 번 개최됩니다.



캐롤 우쿨렐레 연주 영상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크리스마스 작은전시회

◎ **어린이날 Special week!**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아동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의견을 모아 일주일 간 Special week를 진행합니다. 아동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입니다.



마리모 구피 어항



어린이날 기념촬영



와, 어린이날이다!

!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요**

◎ **우리 센터 방송 출연**

서울시 추천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컨설팅결과 아동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아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촬영하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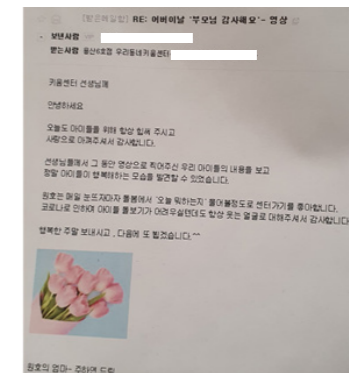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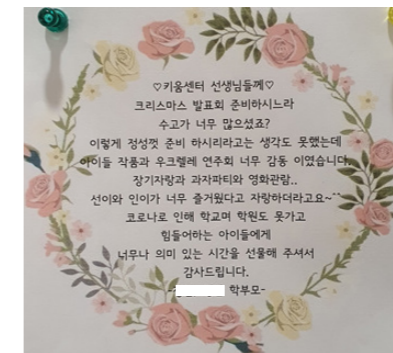
센터장님 인터뷰



떨리는 촬영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학부모님께 보내드리는 프로그램 정보와 자녀들의 영상 또는 사진을 보시고 감사를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의 편지를 첨부합니다.
한 아이를 온마을과 학부모님, 센터가 같이 양육합니다.



-----Original Message-----

From: [Redacted]
To: [Redacted]
Cc: [Redacted]
Sent: 2021-09-16 (목) 18:43:36 (GMT+09:00)
Subject: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키움센터 모두에게,
그동안 키움센터에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우도 건이도 잘 챙겨 주시고, 오늘 주신 선물 이만 모두가 선 메시지로 받고 감동했어요!
경우가 한국 와서 잘 적응할까 걱정 했었는데 키움센터 덕분에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경우도 키움센터 가서 한국말도 재미있다고 하고싶어 하고, 센터에서 재미있었던 활동
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보드게임도 미술도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할수 있어서도 정말 좋았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키움센터가 더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수혜가 되길 기원해요!
모두 보고싶을게예요. 감사했습니다!♥♥
----- 가족 올림

△ 재원 학부모님 편지, 타국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님 편지

센터 | 우수운영

자연아 놀자! [생태활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힘들고,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 구로16호점 (공동)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로구 공동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공동은 저수지 생태공원과 주말농장이 많고, 주변이 녹지로 둘러 쌓여있어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밭과 논이 있어 가끔은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키움센터 아이들과 텃밭에서 어떤 작물을 키울지, 생태와 관련된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지 많은 의견을 모아 더욱 풍성한 생태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시기에 자연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업개요

- ◎ 일 정 : 2021년 5월~ 2021년 11월 / 매주 1회
- ◎ 장 소 : 공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주말농장, 생태공원
- ◎ 대 상 : 공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용아동
- ◎ 기대효과 :

1. 피상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한다.
2. 교과서 속 환경교육과 숲 생태 체험 교육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
3. 지역사회 환경을 교육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주요일정

1. 텃밭 활동

공동 키움센터 친구들과 처음 만나는 우리만의 텃밭입니다. 풋말도 만들고 작물 이름도 적어서 예쁘게 텃밭을 꾸며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상추를 키워 삼겹살 파티도 하고, 가을에는 무 모종을 심고, 가꾸며 커다란 가을무를 수확했습니다.

생태활동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나눔과 협동의 중요성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풋말 만들기



상추, 열무 가꾸기



무 모종심기



무 수확하기

2. 깨끗한 물 만들기

생태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관련된 과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갈, 모래, 활성탄, 여과지를 순서대로 쌓은 후 오염된 물을 부으면 시간이 지나 정수가 되어 깨끗한 물이 내려옵니다.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과정을 보며 너무나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실험과정을 통해 물을 보호하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물 실험



깨끗한 물 실험

3. 자연물을 이용한 요리활동

자연생태와 연계 활동으로 요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이용해 악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식용 꽃을 이용해 예쁜 카나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식용 꽃에 관심을 보이며 요리활동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리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예쁘게 포장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용꽃 카나페 만들기



식용꽃 카나페 만들기



텃밭 상추를 이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텃밭 상추를 이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4.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식물원 탐방 (ZOOM수업)

서울식물원과 연계하여 생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식물원 선생님께서 서울 식물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식물들의 이름을 설명해주고,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시작했던 ZOOM수업에 곧 적응했고, 식물원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가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물원 탐방 zoom수업



식물원 탐방 zoom수업

5. 논습지

구로구 공동 생태공원 내에 생태습지와 다랭이 논습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이 주변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논습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습지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조사하고, 자연관찰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논습지가 있다는 것을 새로 배우고, 지역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논습지 관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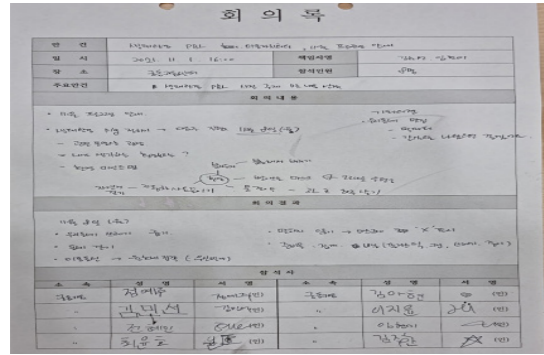


논습지 관찰하기

6. 생태환경 PBL “깨끗한 우리동네”

공동 키움센터 친구들과 생태환경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환경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자동차 사용줄이기- 자전거, 걷기’ ‘물 절약-3L로 하루살기’ ‘빨아쓰는 마스크 사용하기’ ‘분리수거-분리해서 버리기’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동네를 걸으며 쓰레기 줍기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낸 의견을 모아 활동을 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운동에 앞장서는 공동 키움센터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



아동자치회의 회의록



쓰레기 줍기



쓰레기 줍기



동네 걷기

7. 찾아오는 현장학습 ‘작은 동물원’

공동 키움센터 친구들의 한 가지 소원!! 동물 보러가고 싶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못하고, 체험 학습도 자유롭게 갈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복지관 내에 위치 한 공동 키움센터의 장점을 살려 강당을 대여 하고 넓은 공간에서 ‘작은 동물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제 돌봄, 일시 돌봄 아동까지 모두 모여 동물들을 관찰하고 만져보며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동물원



작은 동물원



작은 동물원



작은 동물원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 “진짜 큰 무를 수확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집에 가서 생채 만들어 먹을 거예요.”(참여아동 K)
- “전 상추따서 삼겹살 파티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친구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데리고 온게 아쉬워요. 다음에 또 삼겹살 파티해요”(참여아동 H)
- “다음에는 딸기랑 토마토를 키워보고 싶어요. 그 때는 제가 다 먹을거예요.” (참여아동 J)
- “다음에는 환경 캠페인도 해보고 싶어요.” (참여아동 G)
- “텃밭 활동이 조금 힘들 때도 있었는데, 나가서 놀 때 상추랑 무 뽑을 때 재미있었어요.”(참여아동 Y)
- “저는 키움센터에서 요리활동할 때가 제일 좋아요.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참여아동)
- “동물원은 최고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안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참여아동 C)
- “동물들 왔을 때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친한 친구도 데려오고 싶어요.”(참여아동 L)

센터 | 우수운영

백제가 살아있다(P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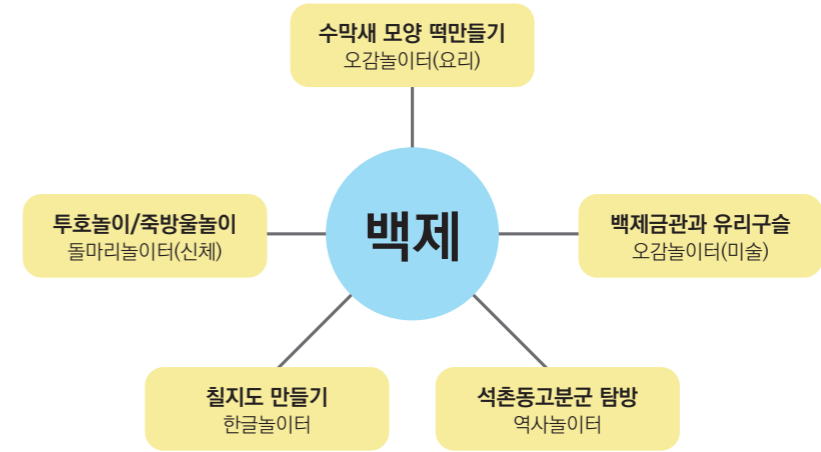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회차	제목	내용	날짜
1	백제를 알고 싶어!	프로그램 기획하기	21년 4월 27일
2	맛있는 수막새라고?	수막새 모양 떡 만들기	21년 5월 12일
3	백제야, 놀자(1).	투호 만들기	21년 5월 14일
4	백제야, 놀자(2).	투호놀이	21년 5월 28일
5	우리 동네 이름은 돌마리아.	석촌동고분군 견학	21년 6월 11일
6	백제야, 놀자(3).	죽방울놀이	21년 6월 18일
7	후세에 전하여 보아라.	칠지도 만들기	21년 9월 14일
8	내가 백제의 임금이다(1).	마스크스트랩 만들기	21년 11월 1일
9	내가 백제의 임금이다(2).	백제 금관 만들기	21년 11월 8일
10	사라진 게 아니야.	프로그램 마무리 및 평가	21년 11월 15일

I 백제를 알고싶어!

◎ 프로그램 기획하기(4월 27일)

‘어린이가 만드는 프로그램’인 PBL에 대해 이해하고, 브레인스토밍 및 마인드맵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기획함. 어린이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백제를 프로젝트로 제안함. 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글놀이터, 오감놀이터(미술, 요리 등), 환경놀이터, 돌마리아놀이터(신체)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백제의 건축, 놀이, 외교, 무역, 공예에 대해 탐구하고,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만들기 활동을 계획함. 매회 프로그램의 내용 및 동료와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는 일지를 작성함. 10차시에 걸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전시회를 계획함.



△ 그림1 | 프로젝트 마인드 맵



그림 2 | PBL 이해 및 프로젝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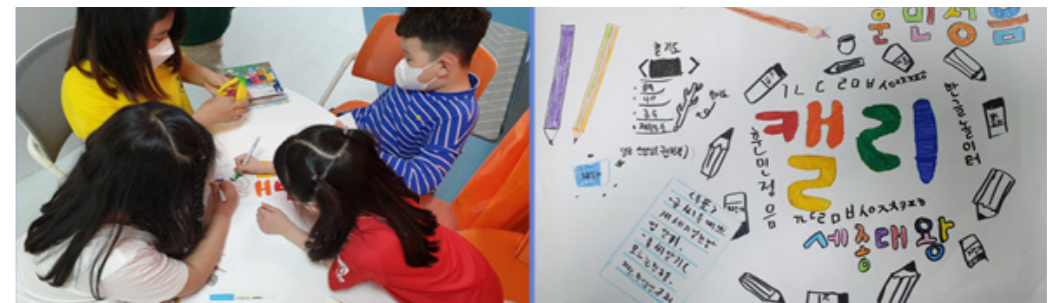


그림 3 | 한글놀이터와 연계한 칠지도 탐구 설계



그림 4 | 역사놀이터와 연계한 장신구 탐구 설계



그림 5 | 오감놀이터(요리)와 연계한 수막새 탐구 설계



그림 6 | 오감놀이터(미술)와 연계한 석촌동고분군 탐구 및 돌마리놀이터(신체)와 연계한 놀이 탐구 설계

I 맛있는 수막새라고?

◎ 수막새 모양 떡만들기(5월 12일)

어린이들은 인터넷으로 '백제'를 검색해 관련 이미지를 살펴봄. 둥글고 예쁜 모양의 수막새에 관심을 가지고, 수막새와 백제 건축물을 조사함. 백제 주거문화를 통해 신분제도를 이해하고, 수막새의 예술적인 가치를 알게 됨. 어린이다운 상상력을 발휘해 둥글고 입체적인 수막새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연상함.

오감놀이터(요리)와 연계하여 수막새를 닮은 떡을 만들고 간식으로 맛보는 경험을 함. 고운 흙으로 반죽을 만들고, 꽃무늬 틀로 찍어 만든 수막새처럼 고운 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다양한 떡살로 무늬를 찍어 떡을 만들.

10차시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클레이로 떡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추가로 진행함(11/15).



그림 7 | 수막새를 탐구하고, 수막새 모양 떡을 만들

백제야, 놀자(1).

◎ 투호 만들기(5월 14일)

어린이들은 ‘백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백제놀이문화를 탐구함.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온 투호놀이를 발견함. 투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대 놀이는 귀족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대 어린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환경놀이터와 연계해 재활용품(페트병, 페트병 라벨,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하여 모듬별(4인 1모듬)로 호(병)를 만들고, 개별로 살(인당 3개)을 만들.



그림 8 | 페트병, 나무젓가락을 사용해 투호놀이감을 만들

백제야, 놀자(2).

◎ 투호놀이(5월 28일)

돌마리놀이터(신체)와 연계해 개인전·팀전 투호를 즐김. 어린이들은 놀이에 필요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칙을 수정하며 ‘우리만의 놀이방법’을 만들어 냄. 모듬별로 경쟁할 때는 모듬원의 게임 순서를 적절히 배치하고, 어느 호부터 공략할지 상의하는 등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활동함. 어느새 투호를 잘하는 어린이를 ‘백제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놀이를 즐김.



그림 9 | 신나게 투호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

우리 동네 이름은 돌마리아!

◎ 석촌동고분군견학(6월 11일)

어린이들은 우리 동네 이름인 ‘석촌’을 탐구함. 석촌은 돌이 많은 마을, ‘돌마리’의 한자식 이름임을 알게 됨. 예부터 석촌동에 돌이 많았던 이유는 석촌동고분군이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됨. 센터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석촌동고분군을 방문하여, 모듬별로 자유롭게 탐방하고, 친구들에게 퀴즈를 만들. 센터로 돌아와 퀴즈를 내고 맞추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함. 평소 동네 공원으로 여겼던 석촌동고분군을 항공사진 및 뉴스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함. 직접 견학을 다녀옴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알게 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낌.



그림 10 | 석촌동고분군 견학

백제야, 놀자(3).

◎ 죽방울놀이(6월 18일)

지난 3·4차시에 이어 어린이들은 ‘백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백제놀이문화를 탐구함. 벽화와 민화에서 죽방울 놀이를 발견하였으나,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연희 공연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인터넷으로 ‘죽방울’을 검색하면 중국의 콩쥬, 일본의 켄다마 영상이 함께 추천됨. 어린이들은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화려하고 숙련된 놀이 기술에 감탄함. 하지만 죽방울과 유사한 중국의 콩쥬, 일본의 켄다마는 현대에도 대중적인데 비해 죽방울은 잊히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낌.

환경놀이터와 연계해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죽방울을 만들뉼. 떠먹는 요거트 용기, 털실, 탁구공으로 죽방울을 만들고, 유성펜으로 개성 있게 꾸밈. 돌마리놀이터(신체)와 연계해 중국 콩쥬, 일본 켄다마, 직접 만든 죽방울을 가지고 재미있게 즐김.



그림 11 | 재활용품으로 죽방울을 만들고, 한·중·일의 전래놀이를 즐김



그림 12 |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곧 능숙해짐

후세에 전하여 보아라.

◎ 칠지도 만들기(9월 14일)

송파구는 “칠지도의 5조각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문화유적을 알리고 있음. 또한 한성백제 박물관의 로고도 칠지도를 모티브로 하여 송파지역 어린이들은 칠지도의 모양과 백제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음. 하지만 칠지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칠지도를 탐구하고, 칠지도를 만들어 봄.

칠지도를 통해 백제와 왜의 외교관계와 백제의 수준 높은 금속기술을 알게 됨. 칠지도의 아름다운 모양만큼 칠지도에 적혀있는 명문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한글놀이터와 연계해 칠지도를 만들고, 바른 글씨로 명문을 적는 활동을 함.



그림 13 | 칠지도에 명문을 적고, 개성있게 꾸밈



Ⅰ 내가 백제의 임금이다(1).

◎ 마스크스트랩만들기(11월 1일)

어린이들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금제관식과 유리구슬을 탐구함. 금제관식을 통해 백제의 뛰어난 금세공술, 유리구슬을 통해 백제의 무역에 대해 알게 됨. 삼국 금관 모양의 차이를 구분하고, 다양한 세움장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토론함.

백제시대 먼 나라에서 수입된 유리구슬을 모티브로 '색구슬 마스크스트랩'을 만들. 완성품의 좌우대칭을 생각하며, 구슬을 규칙적으로 배열함. 완성된 작품은 금관 장식으로 활용하였다가, 목걸이나 마스크스트랩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림 14 | 삼국 금관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 알아봄



그림 15 | 구슬로 마스크스트랩 만들기

Ⅰ 내가 백제의 임금이다(2).

◎ 백제 금관 만들기(11월 8일)

백제 금관 종이도안을 뜯어내고, 비즈스티커로 금관을 장식함. 지난 차시에 만든 '색구슬 마스크스트랩'과 금관을 연결해 완성함. 만약 왕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즉위인사말'을 작성한 후, 완성된 금관을 쓰고 발표함.

인권놀이터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은 평소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고,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함. 어린이들은 백제의 뛰어난 각종 기술, 활발한 외교 및 무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대 사회의 차별적인 신분제도는 비판적으로 바라봄. 때문에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내용의 즉위인사말이 많음.



그림 16 | 비즈스티커로 금관을 장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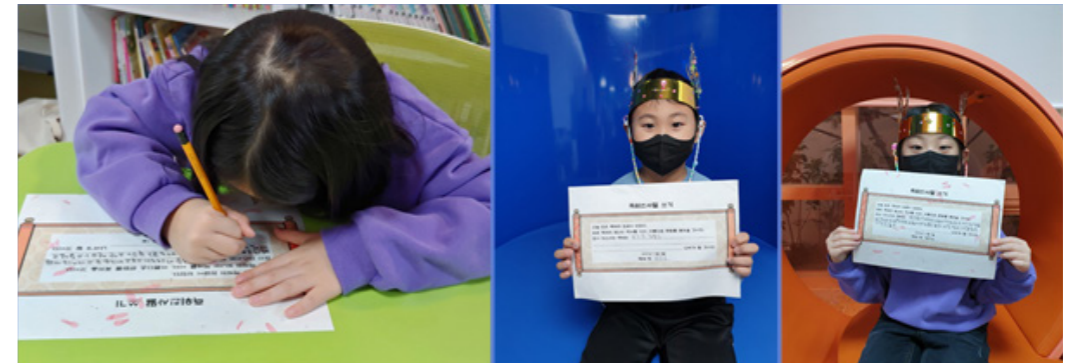


그림 17 | 즉위인사말을 작성하고, 완성된 왕관을 씌

■ 사라진 게 아니야.

◎ 프로그램 마무리 및 평가(11월 15일)

4월 27일부터 약 6.5개월에 걸쳐 진행한 “백제가 살아있다” PBL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전시준비 및 소감발표 시간을 가짐. 그동안 활동했던 사진자료를 감상하고, “백제가 살아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소감을 발표함.

사진을 전시하기 위한 폼보드를 ‘젠텅글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법으로 꾸미고, 경험을 떠올려 사진에 어울리는 문구를 적음. 사진보드는 각 차시 결과물(투호, 죽방울, 칠지도, 금관+마스크스트랩, 수막새 모양 클레이떡)과 함께 송파구 주최 “나만의 그림책 전시회”(11월 25일, 송파쌤 악기도서관 & 음악창작소)에 전시.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연말 전시회”에 전시 예정.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고취되었을 것으로 기대. 프로그램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 어린이들은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로 활용가능한 여러 자원과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능력을 발휘함.



그림 18 | 사진에 문구를 적고, 보드를 꾸미는 모습



그림 19 | 보드에 사진을 배치함, 전시회 모습



센터 | 우수운영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놀이 클럽,
진해 우아한 클럽에서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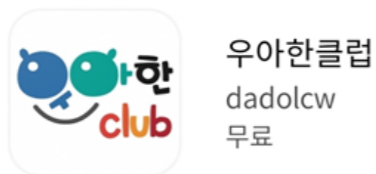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진해 우아한 클럽



센터 외부 및 내부

◎ 아동 관리

- 실용적인 이용자 입소조건
소득무관, 공정한 입소 우선순위
(저학년,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 전자출결 및 코로나 감염예방 체온자동기록 시스템
출결관리 소프트웨어 “우아한클럽 앱” 자체개발



△ 출결관리 소프트웨어



△ 체온자동기록 시스템

- 기능

	연동된 발열체크기로 입소시 자동 발열 및 체온체크 후 서버전송		학부모 알림앱으로 출결사항 및 체온 자동전송
	아동 스케줄 업로드 및 수정, 돌봄 교사 자동알림		공지사항 알림 및 활동내용 피드 백 창구

- 기대효과

- 아동의 건강상태 자동체크
- 학부모 안심 출결 및 발열상태 전송
- 타기관 연동을 위한 아동 스케줄 관리
- 간식, 식사내용 및 활동내용 피드백 및 학부모 소통 원활

실제 앱 관련 안내문

I 아동 및 학부모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기획력과 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콜라보를 이루어 학생·학부모 맞춤형 공통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양질의 공통 프로그램 (기본이용료 포함)

돌봄만 하는 센터? No.! 교육의 트렌드 맞는 공통 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중국어 수업, 미술 수업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생들의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선진국형 미래인재양성 인성교육 프로그램 Y캠프 (운영기관과 경남 청소년지원재단 공동개발 후 저작권등록)

2) 사교육비 절약을 현실화 하는 우수한 특별프로그램

- 다돌이들의 진로인식과 탐색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특별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 재해기간 긴급돌봄 운영기간을 대비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무료제공

	월	화	수	목	금
12:00~13:20	등원 및 휴식	등원 및 휴식	등원 및 휴식	등원 및 휴식	등원 및 휴식
13:20~14:00	자유놀이 및 개별학습	자유놀이 및 개별학습	자유놀이 및 개별학습	자유놀이 및 개별학습	자유놀이 및 개별학습
14:10~15:00	간식 및 독서	간식 및 독서	간식 및 독서	간식 및 독서	간식 및 독서
15:00~16:00	중국회화 및 한자 (무료)	개별학습	개별학습	요리 (한달 2회 10,000원)	개별학습
16:00~17:00	미술 (무료)	원어민 영어회화 (25,000원)	건축 교실 (25,000원)	글로벌 인성교육 Y캠프(한달2회 무료)	교육 미술 (25,000원)

- E - library (영어전자도서관 - 무료제공 / 주중 상시 이용 가능)
www. ysclibrary.com 접속 → ID / 비번
- 자기주도학습 호두 잉글리시 (무료제공/ 1인 1 ID -주중 상시 이용)
- 글로벌 리더쉽 캠프 년1회 참가 기회
(우수 돌봄 센터 회원 1인 60만원 상당 자체캠프 기회제공)
- 안전교육(소방, 지진, 실종, 성교육 등)은 센터운영 일정에 따라 월 1회 교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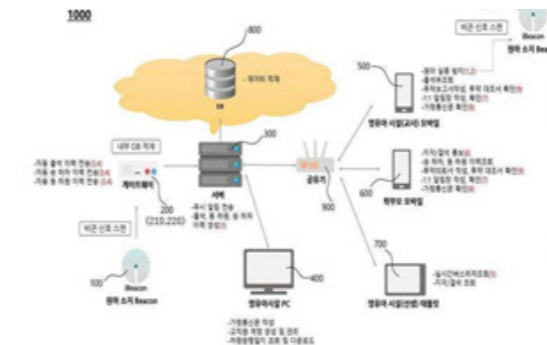
우아한 클럽 방과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특징 및 강사진	내용 및 수업 모습
호두 잉글리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국내최고의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 개별 아이디 제공	
E-Library 전자도서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기초부터 심화까지 미국 전통원서 출판사의 800여 가지 온라인 원서 제공 www.ysclibrary.com	
원어민 영어회화	주2회 원어민 강사 수업 - 영미 7개국 출신 경력 10년이상 창원 최고 인기강사님이 우아한 클럽에 오십니다.	
다돌이의 리틀키친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요리활동을 통하여 요리사의 직업관을 배우고 학생들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	

<p>미술</p>	<p>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창의적 및 미적 감각 향상</p>	 
<p>융합 스팀형 건축교실</p>	<p>건축으로 배우는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p>	 
<p>교육미술</p>	<p>미술을 배우고 친구들 앞에서 시연을 해봄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력과 자신감향상</p>	 

활동	요일	횟수(주)	수업시간	1인당 월 수업료 (교재비 등)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미술	월	1회	50분	무료		
원어민 영어회화	화	1회	40분	25,000원		
건축교실 (1달 2개 작품 완성)	수	1회	50분	25,000원		
원어민 중국회화 및 한자	수	주 1회	50분	무료		
글로벌 인성교육 Y캠프	목	월 2회	40분	무료		
요리	목	월 2회	50분	10,000원		
교육 미술	금	1회	50분	25,000원		

코로나 19재난극복

- 1) 안전교육
 - 주1회 화재 및 지진대피, 재난대비 안전교육
 - 매일 코로나 19 감염예방교육
 - 코로나 19 감염대비 안전 수칙 게시
 - 마스크 착용 필수, 간식시간 최소화
- 2) 안전비품 비치
 - 우아한클럽 앱과 연동된 열감지기 제작 (개발중, 11월 20일 제작완료) 등·하원시 간식 전후 평균 총 4회의 열체크
 - 코로나 19 감염대비 안전키트 비치 : 손소독제, 마스크
- 3) 방역
 - 조리도구 및 간식도구 열탕소독 후 살균기 보관
 - 주1회 천연편백나무 소독제로 연무소독
 - 방역일지 작성
 - 매 활동후 책상, 교구 및 바닥 스프레이 소독



자동 열감지기 도면
발명의 명칭 :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동시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조리 도구 열탕소독 / 자외선 살균기




출석부 및 온도 체크 결과비치

연무방역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창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진행 아아한 club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아이돌 놀이클럽

2021학년도 진행 유아한 클럽 만족도

1. 2021년 진행 유아한클럽 이름은 만족스러웠나요?
 ○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2으로 이동)
 ○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1으로 이동)
 ○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2으로 이동)
 ○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2으로 이동)

1.1. 만족스러웠다면 어떤점이 만족스러웠는지요? (선택체크 가능)
 ○ 프로그램 구성
 ○ 활동시간
 ○ 교사
 ○ 연차 선생님들과의 소통
 ○ 기타 사항
 ○ 기타

1.2. 불만족스러웠다면 어떤점이 불만족스러웠는지요? (선택체크 가능)
 ○ 프로그램 구성
 ○ 활동시간
 ○ 교사
 ○ 연차 선생님들과의 소통
 ○ 기타 사항
 ○ 기타

2. 연차를 이용함으로써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는지, 유익했던 점을 적어주세요.
 (자유로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3. 2021년 진행 유아한 클럽에 참여하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유로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4. 2021년 진행 유아한 클럽을 통해 알게 된 선생님 또는 아이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유로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진행 유아한 클럽 만족도

1. 2021년 진행 유아한클럽 이름은 만족스러웠나요?
 ○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2으로 이동)
 ○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1으로 이동)
 ○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2으로 이동)
 ○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에 체크하시면 1.2으로 이동)

1.1. 만족스러웠다면 어떤점이 만족스러웠는지요? (선택체크 가능)
 ○ 프로그램 구성
 ○ 활동시간
 ○ 교사
 ○ 연차 선생님들과의 소통
 ○ 기타 사항
 ○ 기타

1.2. 불만족스러웠다면 어떤점이 불만족스러웠는지요? (선택체크 가능)
 ○ 프로그램 구성
 ○ 활동시간
 ○ 교사
 ○ 연차 선생님들과의 소통
 ○ 기타 사항
 ○ 기타

2. 연차를 이용함으로써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는지, 유익했던 점을 적어주세요.
 (자유로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3. 2021년 진행 유아한 클럽에 참여하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유로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4. 2021년 진행 유아한 클럽을 통해 알게 된 선생님 또는 아이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유로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시 항상 수고하셨습니다~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가게되어서 센터에 더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도 너무 재미있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진짜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안전하게 잘 돌봐주셔서 안심하고 보낼수있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오후 6:18

돌 센터장님, 감사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늘 애들 출석 먼저 신경써서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학교는 안가도 센터는 꼭이이합니다...ㅎㅎ 참여하면 예뻐서 선생님 수업에 잘 참여하나요? 영어랑요리까지만안된다...(오늘다행 하도 영어 요리아니네요.) 오늘 꼭주고 언니선 회복해서 내일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후 6:14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장 선생님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야 연락드려요 방학동안 나이가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몇달후에 겨울방학때도 부탁드려봅니다! 나이가 지안이 못해서 아쉬웠었고 선생님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는지 알기에 다시 가고싶다고 적어드리구요~** 감사드리구 건강하게 잘지내세요 또 연락드려겠습니다♡
 오전 11:21

도 지도 이전 예뻐 유치원때 이후 처음으로 느껴봐요 ㅎㅎㅎ 아시죠 초등학교 순간부터 딱딱함의 연속인셈 ㅎㅎㅎ 알가닥 지안이 없애나 정신없을줄 아는대 늘 애써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당**
 오후 7:42

코로나 19로 인해 학부모님과 아동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 아이들의 생활 반경도 굉장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하여 저희 창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진해 유아한 클럽에서는 아동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아 돌봄센터 이용아동들의 90%이상이 방과후를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일날엔 특별한 경험을 안겨 주고자 진로체험(고고학자, 치과의사)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며 현행 초등 음악교육과정에 국악교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따라 우리 다돌이들에게도 무료로 가야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무료로 가야금 수업도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요즘 우리 아이들 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며 또한 부모님들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 저렴한 방과후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점점 입소문을 타고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2월까지 정원을 다 채우는 것이 목표이며 실현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 우수운영

슬기로운 돌봄생활

경기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1. 프로그램 내용 요약



◎ 인성교육

2021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운영목표는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바르게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고민하며 도덕, 사회,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덕목 질서, 배려, 효, 나눔, 존중, 협력 등을 주제로 돌봄센터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중 “자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초점을 맞춰 매일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1월에는 가장 먼저 국제 구호 개발 NGO에서 하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모든 아동들이 신생아 털모자 뜨기를 해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생과 사를 오가는 작은 신생아들을 위해 한뼘한뼘 정성껏 털모자를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의 진지함이 기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예쁘게 만든 모자를 구호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성자랑 연간교육계획안

월	교육부 덕목	실천덕목	정의	요리실습	행사
					퍼포먼스 활동
1월	나눔	봉사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웃에게 나눠줄 와플만들기	신생아 털모자 뜨기 (캠페인참여)
2월	협력	성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목표를 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하는 것	부모님을 위한 떡볶이 만들기	
3월	존중	생명존중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친구와 나누기 초콜릿만들기	물고기 키우기
4월	나눔	봉사 (술선수법)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환경보호 붓꽃 샌드위치	플리마켓
5월	효	지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가족 얼굴 쿠키 만들기	어린이날
6월	질서	책임감	순서를 지키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조금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며 노력하는 것	조부모님을 위한 팬케이크	몬드리안
7월	존중	겸손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선생님 얼굴 주먹밥	감정놀이 작품전시회
8월	협력	우정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목표를 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하는 것	동생을 위한 꼬마김밥 만들기	벽화 (묘법)
9월	배려	평등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함께 만드는 팥빙수	고슴도치 (빨대놀이)
10월	질서	인내	순서를 지키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조금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며 노력하는 것	가족선물 송편빚기	할로윈파티 김치담그기
11월	배려	감사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고마운 분께 팬케이크	소금물감
12월	나눔	도움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모두를 위한 떡꼬치	크리스마스파티 밀가루

인성덕목 : 봉사, 나눔



인성덕목 : 존중, 나눔



매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활동을 할 때는 ‘소중한 나!를 위한 맛있는 와플’과 ‘친구를 위한 소떡소떡’, ‘부모님을 위한 김밥’, ‘조부모님을 위한 팬케이크’, ‘선생님을 위한 파르페 만들기’ 등. 나와 관련된 많은 타인을 위해 직접 요리하며 내 주변 돌아보며 관계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인성덕목 : 생명존중



♪ 씨씨씨를 뿌렸죠~ 또 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 밤, 셋 셋 셋~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꽃이 폈어요~♪
 조금은 유치한 노래에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 채 “우리 아기가 아니라구요!”라고 말하며
 꽃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꽃이 더 활짝 피어 돌봄센터의 입구를 환하게 만들어 주도록 마음을 담아 물을 주었지요. 햇빛 쨍쨍한날 돌봄센터에 오면 제일먼저 물조리개를 들고 가꾸는 기특한 모습, 모종마다 개성 넘치는 이름도 지어주어 더욱 특별한 꽃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를 통해 ‘자연’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성덕목 : 효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카네이션을 만들며 부모님이 오래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편지와 함께 고이 접은 카네이션을 액자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카네이션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여 카네이션과 어버이날의 유래, 그리고 꽃말(사랑과 존경)을 배웠습니다. 꽃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에 모두 신기해하며, 각자 좋아하는 꽃이름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인성덕목 : 질서



네덜란드의 화가인 몬드리안은 어지러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싶어 했던 예술가래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몬드리안처럼 꼬마 예술가가 되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빨강, 노랑, 파랑으로만 칠했는데도 근사하고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했어요.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더욱 즐거워요.

| 인성덕목 : 생명존중, 겸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의 색을 만들어 손수건에 천연염색 활동을 해보았어요. 고무줄로 손수건을 고정하여 모양을 만들면서도 아이들은 종알종알 수다쟁이가 되었지요. 고정된 손수건의 모양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천연재료도 공부하며 일일 천연염색 전문가가 되어 '나만의 천연손수건'을 만들었어요. 자연물로 색을 만들 수 있고, 자연의 색으로 옷감을 염색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얻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 인성덕목 : 협력, 책임감



유난히 더웠던 여름날 특별한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 돌봄센터 벽을 꾸며 보았지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우리만의 그림을 완성해 보았지요. "이 캐릭터는 내가 색칠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말에 "알겠어! 그럼 네가 이거 해! 내가 다른 거 색칠할게~"라고 답하며 양보하는 예쁜 마음! 서로의 색을 예쁘다고 칭찬해주거나,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송보송 포근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 인성덕목 : 협력, 우정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생긴 일상에 지치지 않도록 2인용 DDR을 마련하였어요. 컴퓨터와 TV를 연결하고, 음악과 화면이 나오자 아주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관심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한동안 매일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매트를 가져와 실행시킨 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 버리듯 바쁘게 발을 움직이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수줍은 손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순서를 정하고, 칭찬과 격려 하는 훈훈한 모습에 함께 하는 기쁨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인성덕목 : 인내, 배려



♪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레트로봇에 ‘똥 밟았네’를 시작으로 다돌 1호점에는 댄스부가 생겼답니다~
 “선생님, 너무 신나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춤추는 거 좋아해요.”, “춤추면 너무 신나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매 주 수요일 강사님의 설명에 따라 한 동작, 한 동작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요.
 3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마지막 4주째!
 두근두근, 콩닥콩닥~ 부끄럽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요.
 짜잔~ 완성된 동영상을 틀자 “어머나 선생님!! 안돼요~~~ 까~~”, “선생님~ 부끄러워요~ 틀어주지 마요~” 부끄러워하면서도 화면 속 본인의 모습에 소리를 지르며 웃기도하고, 손으로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까지도 너무 예쁜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 인성덕목 : 존중, 감사



우리 돌봄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바깥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시간 “놀잼꿀잼” 활동이 있어요. 파란 하늘과 초록의 나무들을 배경으로 먼저 ‘돈가스’라는 옛날 놀이로 몸 풀기를 하기 위해 놀이 방법과 규칙을 배우고, 아주아주 신나게 참여합니다. 솔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있는 힘껏 멀리 뛰기를 하며 크게 소리 내어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같이 돈~가스를 외치며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신나는 몸 풀기 놀이 후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면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나뭇가지, 나뭇잎, 솔방울 등등 여러 가지 자연물을 종이가방에 붙여 개성 있는 가면을 완성한 뒤 서로 감상하며 멋진 포즈로 찰칵! 우리들의 추억은 늘어갑니다.

| 인성덕목 : 지혜, 인내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뀐 일상... 책상을 다 밀어놓고 바닥에 종이테이프를 붙여 ‘땅따먹기’를 그렸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저도 해 볼래요~” 서로서로 한 번씩 양보도 하고 돕기도 하며 그린 땅따먹기 놀이!! 우리만의 규칙을 정하여 시작! “나는 5까지 갈 수 있어!”, “나는 8까지 한 번에 가겠어.” 각자의 목표를 정하였지만, 장기 알로 만든 돌이 말을 듣지 않네요. 오랜만에 윷놀이 한 판~! 대형 윷을 품에 꼭 안고 힘차게 던지고 내가 던진 윷만큼 말도 움직여 보았어요. “이번엔 윷이다! 윷!! 아~ 이런! 개가 나오다니~” 생각했던 윷이 나오지 않아도 시끌벅적, 하하호호~ 신나는 윷음소리에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 지역사회 연계



우리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여러 지역사회의 기관으로부터 방역물품 후원이 참 많았어요.

용인시 시민안전관에서는 크고작은 재난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비대면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관에서 돌봄센터로 배송 되어진 손소독제 만들기 키트를 가지고, 감염병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과 함께 손소독제를 만들며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어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계획이 되어 질 때마다 코로나19 단계 상향으로 대부분 비대면 활동으로 계획되어져 아동의 체험활동에 제약이 있어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실행하지 못 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 아동의 의견 수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좋았던 것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전자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힘들었을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원예테라피 키트였어요. 아기자기 귀여운 식물과 반짝반짝 아름다운 조명을 더해 나만의 화분을 만들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았지요. 화분LED 등을 키고 귀가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아동은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성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성장합니다. 돌봄센터에서 교사와 함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생각을 표현하고, 직접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는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돌봄센터의 주체가 아동이 되어 활동하며 책임감을 복돋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퍼포먼스 수업의 주제와 재료를 아동이 골라 보도록 하고 있어요. 21년 작계나마 시작된 아동의 운영 참여를 22년에는 더욱 확장하여 이용 아동이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II. 프로그램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첫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활동에 대한 추가 연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것과 아동들의 만족도를 위해 계획해야하는 것들의 차이

가 있을 때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아우를 수 있을지 지자체와 주변 센터와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돌봄센터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고민을 통해 돌봄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무척이나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교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부족해 센터장은 법인과 함께 이 부분을 위한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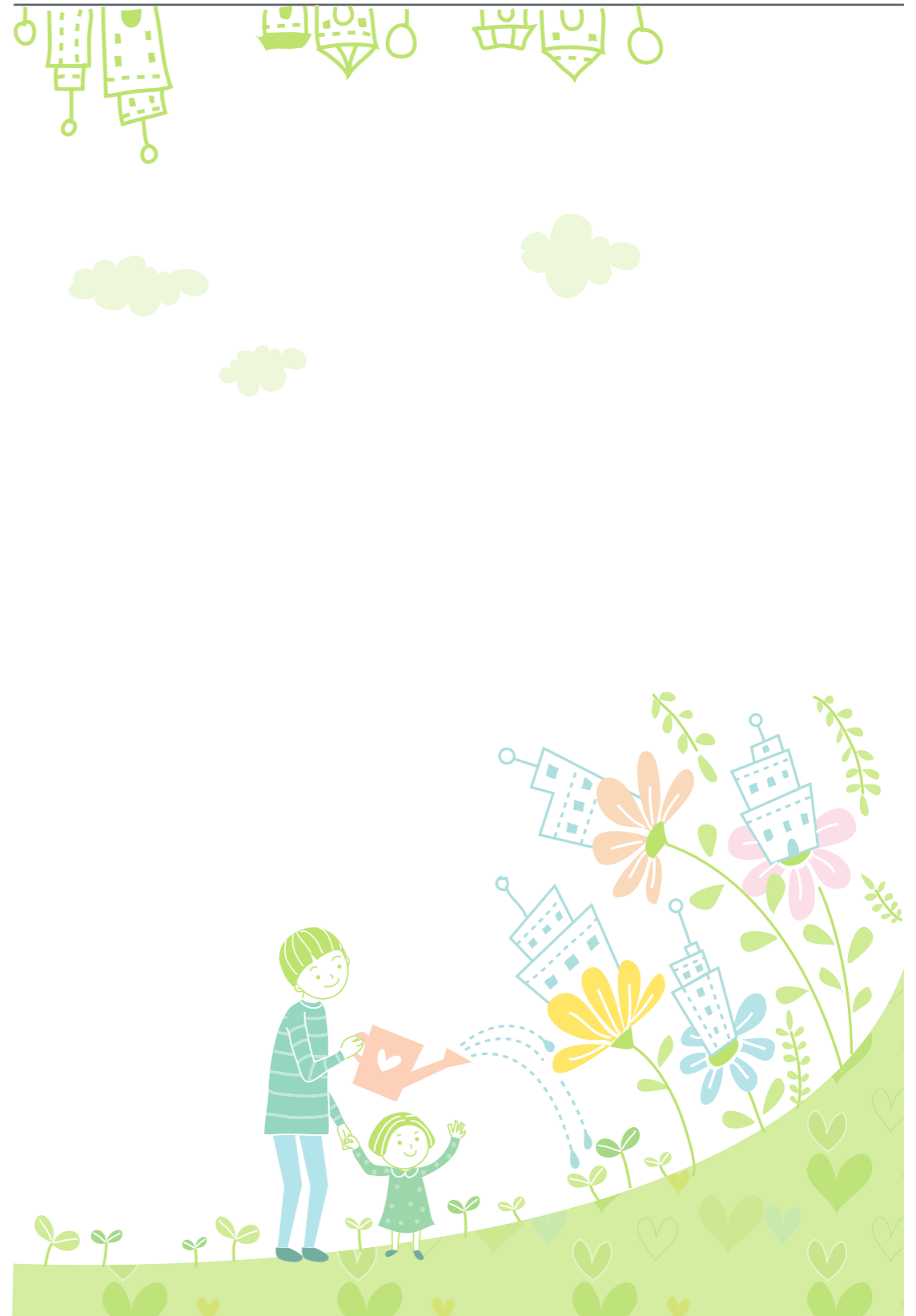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아이가 돌봄센터를 다녀오고 만나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용아동의 학부모님들 모두가 저와 같이 느끼실겁니다. 특히 민기는 코딩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결국은 어려웠던 부분도 해내고야 말고는 하원 할 때 저를 만나면 얼마나 뿌듯해하고 즐겁게 자랑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항상 즐겁게 참여하도록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얼마나 더 알차게 계획되어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지 더욱 더 기대됩니다.

(2학년 홍** 보호자)

맞벌이부부라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학교 못가는날, 원격수업 중 갑자기 노트북이 안된다며 아이 전화가 울리면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갑자기 연락드리고 아이를 보내도 항상 친절하고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여러가지 큰도움 받고있습니다. 배우는것도 다양해지고 놀이프로그램도 많아져 아이가 자꾸 돌봄센터 가겠다고 하네요. 작은 아이도 내년엔 1학년되서 돌봄센터가고 싶다고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다함께돌봄1센터 1호점 앞으로도 계속 쪽~ 화이팅 입니다!!

(3학년 임** 보호자)



센터 | 우수운영

아동이 즐거운,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이 함께하는 영귀미돌봄터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돌봄터

아이가 즐거운,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놀이터 영귀미돌봄터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마을에 하나씩만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교 후 갈 곳 하나 없어 마을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마을교육공동체 새끼줄'이 시작 되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영귀미면행정복지센터, 홍천군이 함께 움직여주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인 '영귀미돌봄터'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지역아동 돌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돌봄터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 편지 전달하기

영귀미돌봄터는 아이들의 놀이공간, 휴식공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며 즐거운 공간으로 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보내는 모습에 행복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돌봄터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사라졌고, 그러한 입소문을 듣고 학부모님이 영귀미면을 이사를 오게 되면서 학교도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귀미돌봄터는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있습니다. 특히 위탁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새끼줄 마을교사 인력 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 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을교사에는 마을주민들도 있지만, 아동들의 학부모님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돌봄터 운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효과도 보게 됩니다. 끼 있고 꿈 많은 영귀미돌봄터 아이들과 다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을교사 선생님들과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구 분	이 름
미술	정**나, 이*영
미술 / 명상수업	김*원
음악	박*량, 윤*형, 차*호, 정*진, 이*동
연극	김*리, 김*남, 김*란
독서 / 숲놀이	조*자
영어	조*예
의식주	박*웅, 이*상, 김*숙, 이*정, 차*호, 박*수, 오*현, 심*애, 차*원, 이*름
기타전문가	김*옥, 고*성, 조*선, 고*식, 김*자

〈 사회적협동조합 새끼줄 마을교사 인력풀 리스트 〉

I 예술이 함께하는 영귀미돌봄터

◎ 드라마 연극놀이

쓰러진 벼들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아이들이 직접 씨앗이 되어서 땅속에서 새싹, 꽃과 나무가 되는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고,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부를 아저씨를 도와 문제 해결을 해 주는 과정을 연극놀이를 통해 경험을 하며, 쓰러진 벼들에게 음악을 만들어 들려주는 활동을 함으로 농촌 지역에 딱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씨앗관찰하고 되어보기

태풍에 쓰러진 벼 / 농부의 의뢰

쓰러진 벼들에게 어떻게 하면?



벼 연구 해 보기



쓰러진 벼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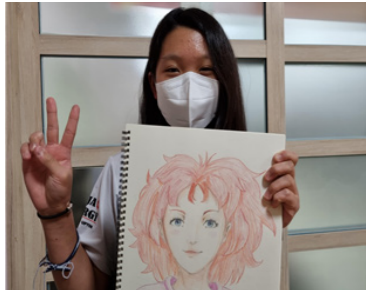


농부의 영상 편지

◎ Fun art

획일화되고 만들어진 반 제품 미술교육은 가라!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묘와 드로잉을 중점으로 다양한 정물을 정확하게 스케치하고 명암표현방법을 지도하여 입체감을 낼 수 있게 아이들을 수준별로 지도하여 자신감을 심어주고 재미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양한 진로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영귀미돌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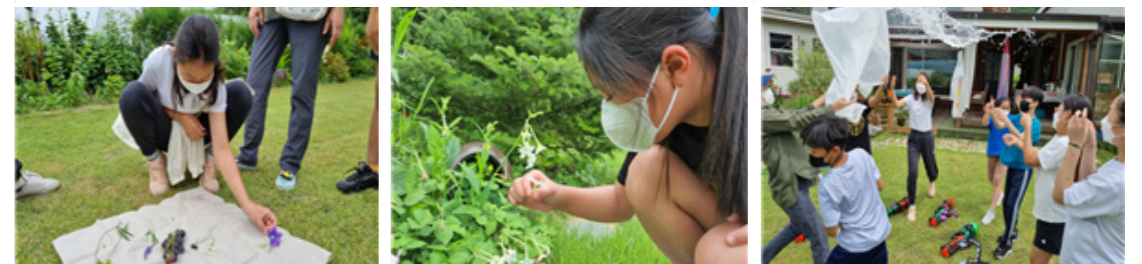
아이들은 마을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베이킹 수업을 하며, 파티쉐를 꿈꿔 봅니다. 그리고 마을 선생님이 운영하는 잼가게에서 이뤄지는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도 요리사가 되어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는 꿈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마을 선생님들로 구성된 방학 중 특강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베이킹 수업에서부터 숲체험, 책놀이, 전래놀이 등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특강 프로그램은 2020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선정을 하다 보니 아동들의 참여도 또한 높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파티쉐 - 베이킹 수업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 요리수업



자연과 함께해요 - 숲체험



재미있는 놀이 방법이 있어요 - 전래놀이

돌봄터 아이들 뿐만이 아닌 지역 아이들도 함께하는 영귀미돌봄터

◎ 마을에서 읽고, 이야기하고, 놀이하는 <삼색행복놀이터>

위탁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새끼줄이 ‘온마을학교’ 사업에 선정이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귀미돌봄터 아이들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인 <삼색행복놀이터>는 전래동화를 읽고 생각을 나누며 옛이야기에서 전해져오는 지혜를 배우고, 회복적 서클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 구석구석을 산책하고 절기놀이를 즐기면서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놀자 - 회복적 대화마당



읽으면서 놀자 - 옛 이야기 마당



마을에서 놀자 - 우리 동네 산책마당

친구들과의 수다방, 놀이터 영귀미돌봄터

이렇듯 영귀미돌봄터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제공을 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매일하기보다는, 돌봄터에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형님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보다는 재미있는 놀잇감들을 주면서 자유롭게 놀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아이들을 위해 보드게임, 퍼즐, 레고, 클레이 등 다양한 놀잇감들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 | 우수운영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담다함께돌봄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다함께돌봄센터

소담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에 위치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교육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의 방과후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연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프로그램 동반 성장의 기회를 도모하며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소담다함께돌봄센터를 소개합니다.



〈붙임1〉 소담다함께돌봄센터 외부 및 내부 전경사진

I 1. 마을방과후 활동 (생활체육, 창의미술, 전래놀이)

◎ 가. 프로그램 운영 배경

-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지속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실현
- 창의미술, 생활체육, 전래놀이 등의 다양한 마을방과후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전인적 성장 실현



◎ 나. 실태분석(S.W.O.T분석) 및 전략수립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기 회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청 지원 운영사업 · 분야별 우수한 전문강사 파견 · 지역사회 내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방역강화로 안전한 아동돌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을방과후 홍보 부족으로 잠재적 이용자 발굴이 어려움 · 프로그램 지원시간 부족 · 운영비 부족으로 개인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움
위 험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과 연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연계기관 활용 ·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배치 · 다양한 분야로 마을방과후 활동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S-O전략 (적극적 전략)	W-O전략 (방향전환 전략)
	S-T전략 (다양화 전략)	W-T전략 (보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협소로 마을방과후 활동에 제한 · 돌봄교사 인력 부족으로 돌봄의 질 저하 우려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및 거리두기로 아동의 사회성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공백을 최소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활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마을방과후 활동 지원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육의 질 향상 · 마을방과후 활동 수업 참관을 통한 돌봄교사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동의 사회성 향상 · 학업 스트레스 및 부정적 요인 최소화 · 창의적인 체험활동 강화 · 시간표 디자인 변경 및 가정에 배포

◎ 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운영 사진
창의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마을방과후 강사로 위촉하여 프로그램 운영 ·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꿈꿔오던 이야기를 미술매체를 통해 표현하기 ·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한 창의력 향상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 신체게임을 통한 또래와의 사회성과 친목을 높여주고 음악을 통한 유산소운동으로 신체발달 촉진 · 다양한 용기구를 활용하여 소근육과 대근육의 기능 강화 · 팀 경쟁 활동 시 팀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스포츠맨십을 배움 	 
전래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놀이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방과후 학교 강사를 위촉하여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문화의 정체성 심어주기 · 다양한 전통놀이 교구를 활용하여 주 1회 수업 진행 	 

◎ 라. 프로그램 운영 성과





- 다양한 마을방과후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부적응 해소
- 아동의 신체감각활동 증가를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과 공감지성 신장

Ⅰ 2. 금강유역환경청

◎ 가. 프로그램 운영 배경

-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여 프로그램 진행
-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 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운영 사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의 종류 · 미세먼지의 원인과 주요배출원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기 ·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자', '개인컵을 쓰자' 등의 아이디어로 카드를 꾸며보기 	
환경오염과 개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의 뜻과 공기, 물, 땅 등 오염사례 원인 및 정화노력 배우기 · 환경오염의 시험 및 검사방법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알기 ·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분리수거 배우기) 	
에너지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 에너지 절약방법 ·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보면서 에너지의 쓰임을 활용하기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 위기 동물 알아보기 · 동물이 멸종 위기종이 되는 이유 알아보기 · 낚시놀이를 통해 멸종 위기 동물을 알아보기 	

◎ 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

-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력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교육 실현
- 재활용 교육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재활용하는 습관을 들임

Ⅲ 3. 홍익대학교 생활과학교실

◎ 가. 프로그램 운영 배경

-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력 및 사고력 향상

◎ 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운영 사진
땅에 닿지 않고 공중부양	· 자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생활 속 자석의 쓰임을 알아본다.	
튼튼한 종이기둥	· 다양한 모양의 종이 기둥을 만들어 물체의 무게를 지지해 보며 힘의 분산을 이해한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 탄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탄성을 이용하여 물체를 날릴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종이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 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

-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현상을 이론과 실제 실험으로 접하여 재밌게 습득함
- 자석, 광물, 무게중심, 비행 등 여러 과학적 분야를 알게 되었다
- 책으로만 보는 따분한 과학이 아닌 손으로 만드는 과학
- 아이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소담다함께돌봄센터 이**엄마 김** 님

결혼 후 줄곧 주말부부였던 나는 출산과 함께 친정 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하고 전적으로 육아 도움을 받았다.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면 4시 언저리에 부모님께서 아이 하원 후 내가 퇴근할 때까지 줄곧 아이를 맡아주셨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희생 속에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앞두게 되었고, 그 시기에 맞춰 친정 부모님께서도 조심스레 “우리도 육아 졸업을 좀 하자” 말씀하셨다. 가뜩이나 엄마께서도 지병으로 병원도 다니시게 되면서 더는 아이를 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그 시점부터 고민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후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고민을 또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은 3시간 이상 빨라졌고, 하교 후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 혼자 학교 현관 앞에 서서 언제 올지 모를 학원 차를 기다려야만 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10분 언저리의 시간을 아이가 한눈팔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 있을지 이제 만 6살이 겨우 넘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나는 걱정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물론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서둘러 돌아와도 7시를 넘기는 직장인 부모들한테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은 반쪽짜리 대안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원활한 관리의 이유로 4시 이전엔 개별하교가 불가능해 아이가 원하는 학원이라도 하나 보낼라치면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하였다. 게다가 사교육으로 아이의 하교 후 시간을 채워도 간식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최대한으로 퇴근을 서둘러도 아이의 저녁은 8시나 가능할 텐데 그 시간 동안 배움을 아이를 생각하니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막막하기만 하였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거듭하던 때, 우연히 집 앞 주민센터에 붙은 다함께 돌봄센터 홍보물을 보게 되었고, 그 즉시 상담을 신청하였다.

좀 과한 표현이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다행이자 행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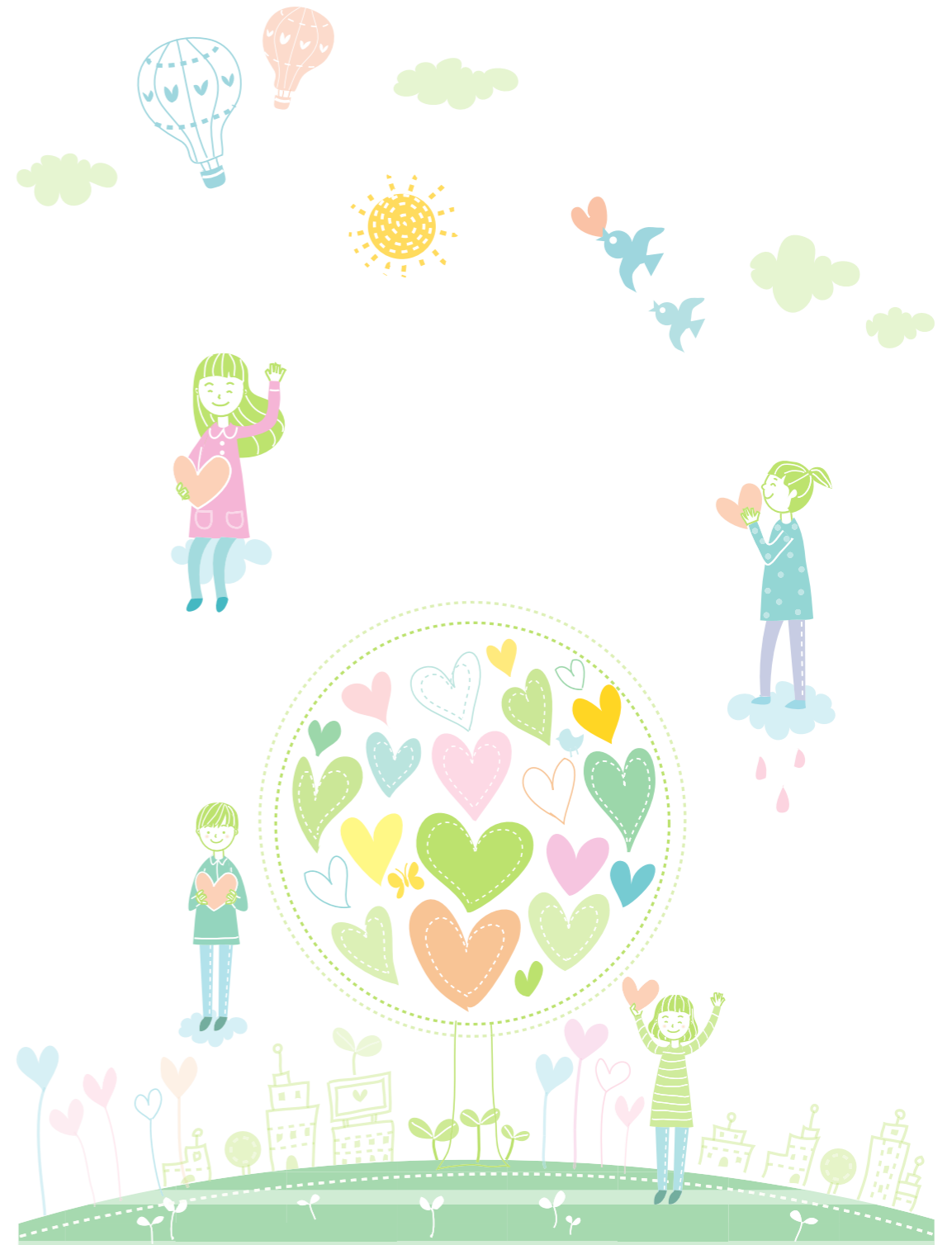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은 그야말로 우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시스템이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곳에서 입찰하여 제공되는 간식과 저녁 식사는 아이가 배고플까 매번 걱정이었던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한 번에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털어주는 단비였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학기 중엔 아이들의 하교가 이루어지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었고, 희망하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오후 3시에는 간식이, 오후 6시에는 저녁이 제공되었다. 간식과 저녁 제공 업체는 식단표와 가격을 업체별로 받아 학부모 간담회 때 다수결로 선정되었고 적당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만족스럽게 제공되었다. 또한, 아이들은 1시부터 8시 사이에 자유롭게 돌봄센터를 오갈 수 있어 하교 후 학원을 가는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자유롭게 센터에 와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돌아갈 수 있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돌봄센터 운영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유익하였고, 2학년, 3학년 형, 누나들과의 교류는 외동인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다만 방학 중에는 부모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아침에 시작하다 보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어 그 시간부터 내가 퇴근하여 돌아오는 7시 30분까지는 결국 또 부모님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도 근로자이고 법정 노동시간 등으로 인하여 그 시간밖에 운영할 수 없음을 이해하지만,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방학 기간 동안 돌봄센터의 인력을 충원하여 학기 중처럼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배고프지 않게 안전하게 있길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생각해본다. 자녀를 두었다고 직장인들에게 방학 기간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방학 기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세종시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방식이 확대되어 더 많은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글을 빌어 정말 엄마처럼 아이를 돌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맞벌이 가정을 도와주시려 애쓰시는 소담동 다함께 돌봄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센터 | 우수운영

완전 안심! 행복 만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더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21년에는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공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들은 믿고 의지하고 아이들은 즐겁게 센터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센터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센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센터에서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내집처럼 생활 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즐거운 생활, 만족한 서비스 제공일 것입니다.



I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1. 저학년 아동들이 하교 후 안전하게 센터에 등원 할 수 있도록 케어합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지역사회연계)하여 아동들이 센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교사들이 인솔, 지도합니다.
2.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아동의 등원, 귀가시간을 부모님 폰으로 바로 전송을 합니다.
3. 간식은 대기업유통업체를 통해 먹거리를 제공하고 월간 간식표를 공유합니다.
이로써 부모님들은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있고, 항상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센터는 인기가 있습니다.

I 즐거운 센터생활을 위해서

1. 또래 놀이문화를 조성, 형제가 적은 요즈음 아동들에게 함께 노는 방법과 재미를 배우게 합니다.
이것은 작은 사회생활을 익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 신체놀이와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합니다.
3.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센터, 집과 같이 편안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먼저 다가가 대화하고, 아동의 욕구와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운영에 반영합니다.
4.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하여 아이들의 학습은 개별화, 놀이에는 다양화를 모색하고 접목시킵니다.

I 만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 지역과 등원아동의 환경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 원어민영어 수업을 넣어 파닉스를 떼게 하고 아이들이 외국인과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모님들과 아동들이 집에서 대화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센터에서 학습습관도 길러주고 숙제 등도 해결하고 귀가시킵니다.
 - 음악치료나 만들기 수업 등을 하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고, 악기연주 등도 가능하게 지도합니다.
 - 돕는 손길을 많이 붙입니다.(대학생자원봉사자, 근로장학생, 학부모 자원봉사 등)
2. 학부모와 아동들에게 자주 의견을 묻고 운영에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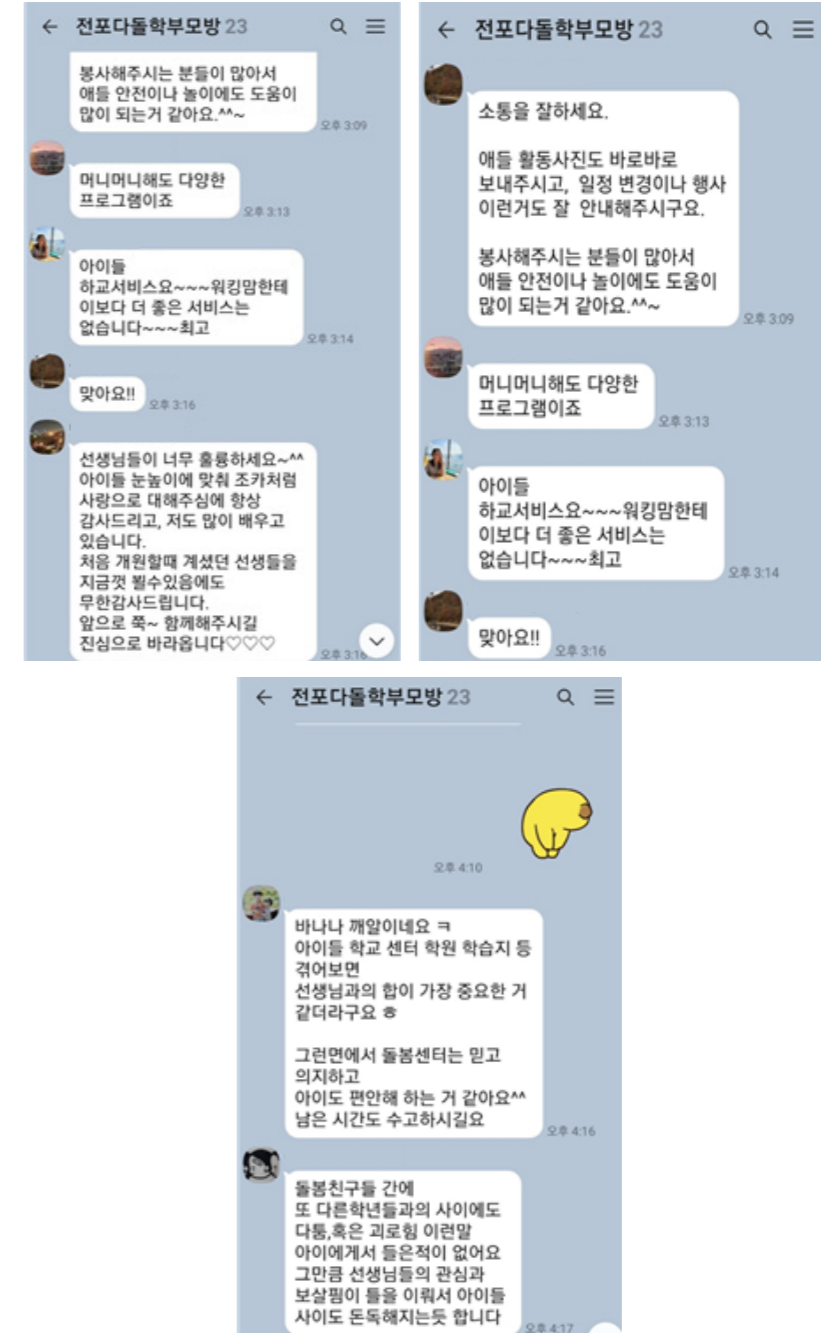
전포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센터이며, 부모님이 데리러 와도 좀 더 있다 가겠다고 부모님들을 먼저 보내는 아동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교수들은 “애들아~ 우리도 집에 좀 가자~”하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어야 한답니다.

전포다함께돌봄센터 활동사진

하교 후 인솔, 음악치료, 책놀이, 바깥놀이, 원어민영어, 보드게임, 요리수업, 자율학습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우수사례집

[지자체·센터]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아동권리보장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1[수송동 156]
G타워 6,7층

전화 02-6454-8500

디자인·인쇄 젠타일 스튜디오

※ 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